

April 2014

Monthly

Gardenin

가든인 4월호

BIG EVENT

프레덴 50% 할인권 / 제이드가든 20%



Outdoor Garden

경기도 평택의
한국의 멋이
깃든 정원



Indoor Garden

누구나 가능한
실내조경 DIY
에코헬스 하나면 충분



도시농업의 발견, 귀농과 교육

교육형 도시농업
학교텃밭,
가꾸면서 배워요



Monthly Gardening

- ✓ 가드닝 인테리어 정보
- ✓ 식물마다 살고 싶은 집
- ✓ 봄에 피어나는 제비꽃
- ✓ 가든인 Q&A



ISSN 2288-1719



10,000원

9 772288 171000

CHECK LIST

씨앗심기, 병충해 녹병균,
4월 식물관리요령

HOW TO GROW YOUR GARDEN

정원시공, 관리, 컨설팅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꽃은 우리나라 고급 경관 트렌드를 이끌어왔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자연과 가깝게 아름답고, 쾌적한 고품질의 경관으로 창출합니다.

우리꽃만의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당신의 정원을 더욱 특별하고 가치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공간의 재탄생

단조로운 베란다, 쓸모없는 옥상이 나만의 휴식 공간으로,

유럽풍 키친정원으로, 내 아이의 생태 놀이터로 재탄생됩니다.

피곤한 일상에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힐링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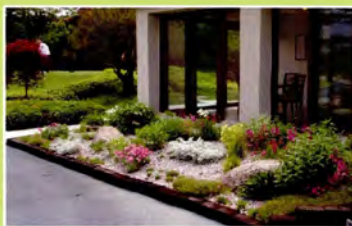
정원의 품격

잘 가꾼 정원은 주택의 가치를 높입니다. 정원의 주제와 식물소재는 적당한지,

내 정원환경은 어떤지, 정원 소품 디스플레이 등 현재 정원상태를 진단받아 보세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꽃의 식물들은 정원의 품격을 차별화 시킵니다.

시공사례



고운 자태 자랑하는
푸른 보라색의 아름다운 꽃

불가리스할미꽃

어쩔 이리도 고운 자태일까? 할미꽃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너무 예쁜 색을 피워낸다. 노란 꽃술 또한 꽃잎과 잘 어울려 아름답고 고고하다. 동강할미꽃이 생각나지만 비슷한 듯 달라 보인다. 색깔, 꽃술이 너무 달라 처음엔 무슨 꽃인가 한참 들여다보았다. '할미꽃이랑... 근데 우리나라 할미꽃이랑은 많이 다른데, 정말 할미꽃 맞아' 라고 의심하며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평상시 봐왔던 익숙한 꽃이 아니어서 인지 두고두고 남을 것 같다.

유럽이 원산지이며 여러해살이 풀이다. 미나리

야채비과에 속하며 관상용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재배한다. 푸른 보라색의 꽃이 피고 약 30cm정도까지 자랄 수 있는 할미꽃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 안된다. 할미꽃은 사랑을 많이 받지만 수난도 많이 받는다. 동강할미꽃처럼 불가리스할미꽃도 예쁘다며 꺾어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꽃은 그 자리에 있어야 예쁘다. 그래야 오래볼 수 있고,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키우고 싶으면 직접 구입해서 심어보자. 그 관심이 예쁜 꽃을 피워낼 것이다. 양지에서 잘 자라며 종자로 번식한다.

- 이름 : 불가리스할미꽃 하일러 하이브리드, 유럽할미꽃 '하일러 하이브리드'
- 영명 : Pasque flower
- 학명 : Pulsatilla vulgaris Heiler hybrids



Outdoor garden

- 3 cover story
고온 자태 자랑하는 푸른 보라색의 아름다운 꽃, 불가리스할미꽃
- 4 발행인 칼럼 봄이 아름다운 것은
- 6 박공영과 함께하는 식물 속 흥취보기 정원, '속' 보이네
- 10 천리포수목원의 봄 아주 낮은 곳에서
하늘까지의 속삭임으로 이어지는 천리포수목원의 봄
- 18 정원으로 꿈꾸는 사람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임영재씨의 한국의 멋이 깃든 정원
- 22 수목원 소개 봄의 선율이 느껴지는 아침고요수목원의 '4월의 봄'
- 26 기자의 꽃밭
겨울을 실내에서 난 라벤더, 야외 옥상으로 옮기고 관리하기
- 30 식물소개 화려한 꽃웅단, 상록잔디패랭이

Indoor garden

- 32 윤평섭 교수의 가든 이야기 벽면녹화
- 36 누구나 가능한 실내조경 DIY
에코웬스 하나면 충분~ 식물이 자라는 에코블럭
- 40 켄덤 오히나의 베란다 정원관리
4월, 씨앗을 심는 가장 바쁜 시기
- 44 안완식 박사의 먹거리파일 여름하면 생각나는 원두막과 참외
- 50 가든디자이너 우정아의 DIY 가든
플라스틱 용기로 만드는 스카이 플랜터
- 52 류제의 정원 눈의 영예, 치오노독사chionodoxa
- 54 이색교육 수목원을 여는 열쇠, 식물표찰
- 58 식물소개 꽃나리, 향기에 취하고, 화색(花色)에 놀라다 2



도시농업의 발견, 귀농과 교육

- 60 수목잔디센터장의 으뜸교육
타고난 바림둥이, 녹병균
- 62 학교텃밭
교육형 도시농업 '학교텃밭' 가꾸면서 배워요, 텃밭에 다 있네!
- 66 우리 몸에 좋은 봄나물
봄맛이로구나! 보약이로구나!
- 69 4월 식물관리요령 텃밭, 식물관리법
- 70 정순진 박사의 '내 손으로 만드는 실내정원'
식물마다 살고 싶은 집이 있어요!
- 78 오가닉 푸드 Organic Food 상자텃밭에서 자라는 다양한 채소,
초록이 다 초록이 아니더라

Garden Design & Story

- 80 손관화 교수의 세계의 정원
작은 정원의 식재계획(Planting Plan)
- 84 이명호의 야생화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올 무렵에 피는 제비꽃
- 86 정원문화
정원은 문화에서 시작된다 정원을 즐기는 방법, 정원여행

Garden Information

- 92 벚꽃개화시기
2014년 지역별 3~4월 벚꽃개화 예정시기 알아보기
- 94 가든인이 추천하는 Books
- 96 독자가 묻고 가든인이 답하고 Q & A



봄이 아름다운 것은

김영채

남쪽 바람 불어와 봄은 파스한 것일까
앞산 아지랑이 진달래 동산
생강나무 산수유꽃 노란 개나리
산여울 찾아드는 봄은 그렇게 오나 보다

노란 복수초 눈녹아진 빈 그자리
털깃머리 할미꽃 봄나들이 오고
골골엔 복사꽃 살구꽃 화사한
봄빛 산천 아름다워라

이처럼 산산 골골이 아름다운 것은
쫓고 긴— 겨울이 품어준 인내였기
저처럼 봄꽃 아름답게 피워난 것은
겨울 내내 찬바람 감싸준
숨짓 걸잎 있었기

봄은 저리도 아름답게 피어나나 보다
봄은 그리도 사랑스러운가보다
봄이 아름다운 것은——

시인은 봄을 이렇게 말한다

나의 봄이 아름다운 것은
그리도 아프고 시리던 긴— 동한을 이겨낸
거룩한 인내와 희생이었기
산천의 봄이 저리 아름다운 것을
그대는 아는지 모르는지

생명의 거룩함 솟아오르는 것이
어둠속에 따뜻한 온기와 습기를 품어온
동토의 송고한 지혜였음을
춘객은 아는지 모르는지

봄빛 화사하고 포근한 따스함이
두터운 회색빛 구름뒤에 아껴두었던
겨울 햇님의 반가운 나들이인 것을
우리는 아는지 모르는지

새봄맞이 소녀의 수줍은 반가움처럼
두 볼에 피어나는 발—간 미소같이
가다려온 마음에 봄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들 가슴에 봄같은 꽃이 피기 때문
봄은 그리 아름다운 것이려

그같은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그대 마음에
봄같은 사랑이 피어나기 때문이려니
그같은 봄이 아름다운 것은 그대 가슴에
봄같은 사랑의 꽃이 피어나기 때문이려니

《봄이 아름다운 것은》 김영채
시인 김영채는 경희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월간 가든인 발행인입니다.

생강나무(Lindera obtusiloba)



산기슭 양지나 음습지의 부식질 많은 곳에 생육하는
4~5m 크기의 낙엽관목. 3~4월 잎이 나오기 전 황색의
작은 꽃이 7~15개씩 모여 핀다. 산야에 일찍 피는 이 꽃
은 개화기의 강한 향과 잎이나 나무껍질에서 향긋한 생강
향이 나 생강나무라 한다.

복수초(Adonis amurensis)



전국 각지 산지 숲속 그늘에서 생육. 크기는 꽃피는 시
기(2~4월)에 5~15cm, 꽃핀 다음엔 30~40cm정도까
지 자란다. 꽃은 제주 2~3월, 내륙 2~4월, 북부지방은
5~6월에 핀다.

할미꽃(Pulsatilla koreana)



우리나라 남·중·북부지방 산야의 양지나 메마른 언덕 등
지에 생육. 꽃은 붉은 자주색, 꽃받침 잎은 길이 3~4cm,
5~6월에 1개의 꽃줄기 위에 1개의 꽃이 핀다.

박공영 우리씨드그룹 회장님 (이학박사님)과 함께하는 식물 속 흠쳐보기는 가든인 독자들에게 식물들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그냥 이름없는 꽃이 아니다. 식물이 속한 '속'이 있고 '학명'이 있고 '한국명'이 있다. 그리고 보면 한두 가지 이름이 아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식물들은 그 이름만큼이나 꽃색, 향기, 아름다움으로 보답하기도 한다. 정원의 숨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빌려 식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보자.

박공영과 함께하는 정원식물 '속' 흠쳐보기

정원, 속 보이네

글·사진 박공영 우리씨드그룹 회장

에고포디움-플립 주신화 등
구근 식물의 배척으로 사용해도 좋다.

알싸한 향기를 전하는

에고포디움 속(*Genus Aegopodium*), 산미나리 속

대략 5종 정도의 다년생 식물을 갖는 속으로 뿌리줄기가 기면서 자라는 침략 형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며 주로 북방에 서식하는 식물이다. 우리나라에는 왜방풍으로 소개되었고 산미나리가 이 속에 포함된다. 잎은 처음 로제트 형으로 자라다가 꽃대를 세우며 호생으로 자라고, 3개의 계란형으로 된 작은 잎이 있고, 다층으로 된 흰색 꽃의 산형화서를 이룬다. 꽃이 매우 하얗고 아름다워 정원에 간혹 재배되는데 특히 무늬산미나리(*Aegopodium podagraria* 'Variegatum')로 불리는 품종이 주로 재배된다. 약간의 음지를 이루고 토양 습도가 높은 곳에서 적합

한 지피식물이다.

내한성은 뛰어나 우리나라 전역에 재배 가능하지만 너무 강한 햇빛이나 건조는 싫어해 간혹 잎이 마르는 현상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완전히 그들이 지거나 반 음지에서 잘 자란다. 여름철 잎이 마르면 빨리 잘라주고 영양제를 투입하면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새 잎이 발생된다.

증식은 주로 가을이나 봄에 지하경을 분리한다. 특별한 병해충은 없다. 잎은 식용 가능하므로 이른 봄에 나오는 아름다운 무늬 잎을 잘 활용하면 알싸한 봄향기와 아름다운 음식을 장식,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파란색의 바다가 생각나는
아가판서스 속(*Genus Agapanthus*)

10여종의 속으로 남아프리카에서 왔으며, 이들 중 몇 품종은 상록 성이다. 그러나 내한성이 약하기 때문에 일반 노지에서는 생육이 불가능하다. 상록성 품종은 해안가 지역과 내륙의 약간 건조한 초지에서 발견되며, 습기가 많은 재배지에서는 낙엽성이 된다. 잎은 우리나라의 상사화를 닮았고 꽃은 작은 문주란을 닮았다. 산형화서로, 볼 또는 트럼펫 모양의 파란색 혹은 흰색 꽃을 피운다. 꽃은 꽃꽂이용으로 적합하고 꽃들은 꽃대의 끝 지점에서 뭉쳐나오며 화기가 긴 편에 속한다. 화단의 가장자리나 큰 화분에서 기르는 게 좋다. 다만 군산 이북지역은 화분에 심어 여름에는 밖에서 재배하고 겨울에는 온실로 들이는 게 좋다. 대부분은 낙엽성이며 상록성의 품종보다 내한성이 뛰어나 우리나라에 좀더 재배하기 쉽다. 남부지방에서는 절화용 시설재배를 해도 아주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옥하고 양질의 토양에서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한다. 추운 지역은 겨울에는 화분에 옮겨 완효성 비료를 주고 온실이나 베란다에서 기른다. 식물이 생장하는 동안에는 자주 주고 겨울에는 약간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봄부터 꽃이 필 때까지 매달 영양제를 스프레이 해준다. 겨울 동안 *A. africanus*, *A. campanulatus*와 *A. praecox* subs p. *orientalis*는 보호막을 해주어야 한다.

증식은 봄이나 온실에서 13~15℃에서 파종을 하며, 서리가 내리는 기후에서는 첫 겨울에는 파종한 상자를 온실로 옮기고 2년째 봄에 화단이나 화분에 정식한다. 보통 2년차에 꽃을 피우는데 관리가 부족하면 3차에 꽃이 핀다. 대부분의 좋은 정원 품종의 종자는 발아를 하지 않아 봄에 분주를 한다. 민달팽이, 달팽이 그리고 더운 곳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진딧물과 응애 등은 잘 관리해야 한다.

아가판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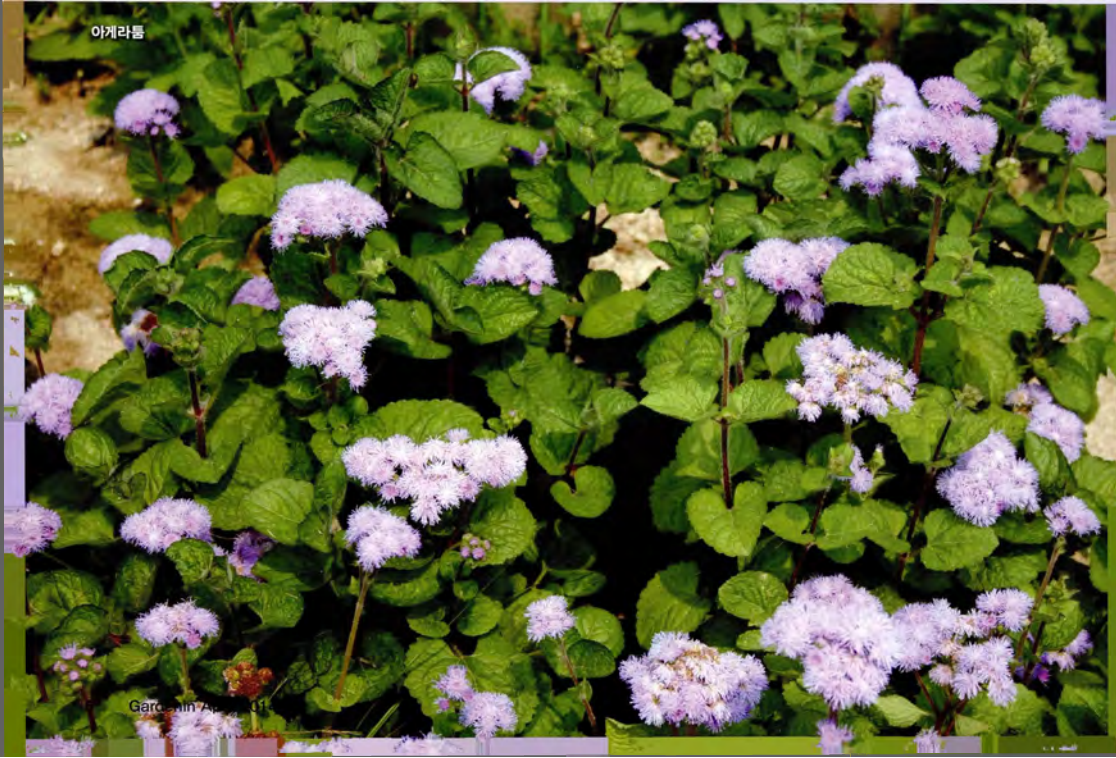
파란 솜털 같은 꽃
아게라툼 속(Genus Ageratum)

우리가 재배하는 대부분의 품종은 일년생이지만 간혹 다년생도 있고 관목류 등 40여 종의 속으로 열대지방과 온대 남미와 북미의 다양한 지역에서 원예용으로 왔다. 또 몇몇 종은 열대 지역과 아열대지역의 나라에서 귀화하였다. 여름과 초가을에 30~50개의 작은 두상화들이 부드럽고 둥글고 솜털 같은 모양의 송이를 형성하는데, 색이 밝은 파란색이나 청회색에서 분홍색이나 흰색까지 다양하며, 이것은 나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충분하다. *Ageratum*은 일반적으로 일년생으로 자라며, *A. houstonianum*과 다양한 1년생 품종들은 화단용 식물로 인기가 있고 최근에는 더욱 많고 아름다운 품종이 개량되어 봄부터 가을까

지 재배한다. **내한성은 약한 편으로 국내에서 월동 불가하여 매년 종자를 파종해야 한다. 재배는 비옥하고 물기가 많은 곳을 좋아하지만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하며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장마가 끝난 여름 중순에는 개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물을 넉넉히 준다. 2차 개화를 위해 시든 꽃을 따 주거나 전정을 하면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개화를 유도할 수 있다. 증식은 파종 후 발아 적은은 16~18℃로 이른 봄이나 온실에 파종을 하거나 가을이나 겨울 동안은 10℃ 이상에서 파종을 한다. 병충해는 뿌리썩음병이 나타날 수 있어 배수와 통풍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아게라툼



아그로스테마 6월이 되면 선홍색의 꽃을 피운다.

하양의 솜털을 가진 정열적인 꽃
아그로스테마 속(Genus Agrostemma), 선웅초 속

남유럽과 지중해 그리고 서아시아에서의 관목 덩굴이나 돌밭, 경작지에서 잡초처럼 서식하는 석죽과의 일년생 식물로 2~4종의 속이 있다. 이들은 솜털이 많은 실 모양의 잎이 마주보고 자란다. 여름에 긴 톱니모양의 꽃받침 속에서 5개의 꽃잎을 열어 트럼펫 모양의 꽃으로 핀다. 줄기는 가늘고 솜털로 덮여 있다. 청원이나 화분에서 재배된다. 꽃은 꽃잎이 용으로도 좋고 아주 정열적이

고 매력적이다. **내한성이 강해 가을에 파종한 것은 냉상에서도 잘 견딘다. 재배적지는 햇빛이 잘 드는 건조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기른다. 키가 큰 종류는 지주대를 세워 주는 게 좋고 꽃이 계속해서 피게 하기 위해서는 시든 꽃은 잘라주어 새로운 순을 발생 시키면 늦게까지 꽃을 볼 수 있다. 종자결실이 어려워지면 다음해 볼 수 없으므로 몇 포기씩은 여름**

이후에 자르지 말고 종자를 맺게 하여 자가 파종되게 하거나 채종 후 파종한다. 파종은 원래 있던 자리에 씨가 떨어지면 가을에 발아하여 겨울을 나게 되므로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초봄에 파종할 경우 20~30cm 간격으로 드문드문 파종을 한다. 화분에 기를 때는 가을에 파종을 하고 겨울 동안에는 냉상에 둔 뒤, 다음해 봄에 화분에 심는다.



아주 낮은 곳에서
하늘까지의 속삭임으로 이어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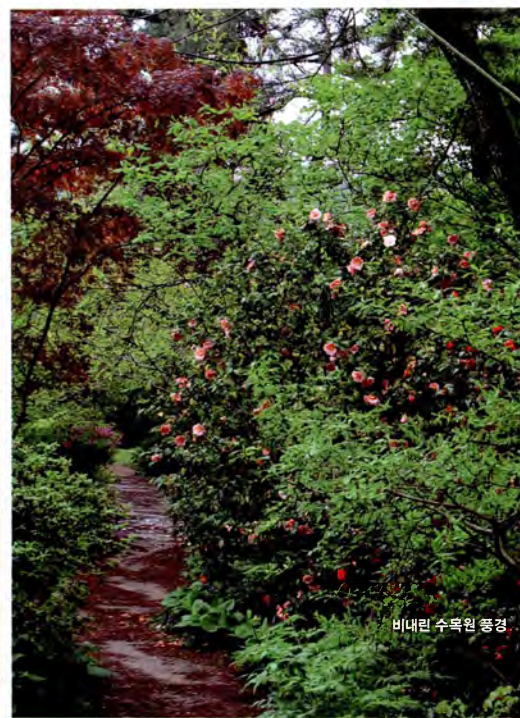
천리포수목원의 봄

영리와 동백의 황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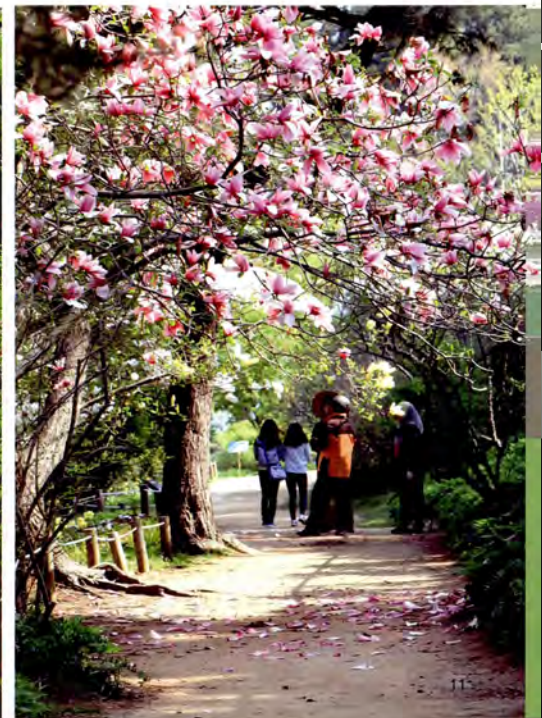
천리포수목원 교육팀 남수환 과장



Magnolia Big Bertha



비내린 수목원 풍경



자연의 속삭임, 봄의 시작
그리고 겸손함으로 낮은 곳을 바라보는
마음이 봄의 꽃 발견

이른 아침의 서리꽃이 언제부터인가 이슬로 바뀌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땅을 해집고 나오는 수선화의 잎과 아주 연약해 보이지만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크로커스의 속삭임이 봄의 시작을 알린다.

천리포수목원의 봄은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된다. 봄햇살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것은 크로커스인데 유심히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우리만큼 키가 작다. 마치 잠이 깨지 않은 어린아이가 엄마품을 파고드는 것 마냥 땅의 품을 벗어나기가 두려워서인지 아주 낮게 꽃을 피운다. 그도 그럴것이 아직은 매서운 바람이 불고 새벽에는 서리가 내리니 땅의 품을 벗어나 계절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른 시기에 꽃을 피우는 크로커스가 대견하다. 그렇게 시작된 천리포의 봄은 푸른 보랏빛의 포도송이를 매달고 있는 무스카리로 이어지고, 해마다 사순절이면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헬레보러스로 이어진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의 마지막은 화려함의 극치인 수선화로 마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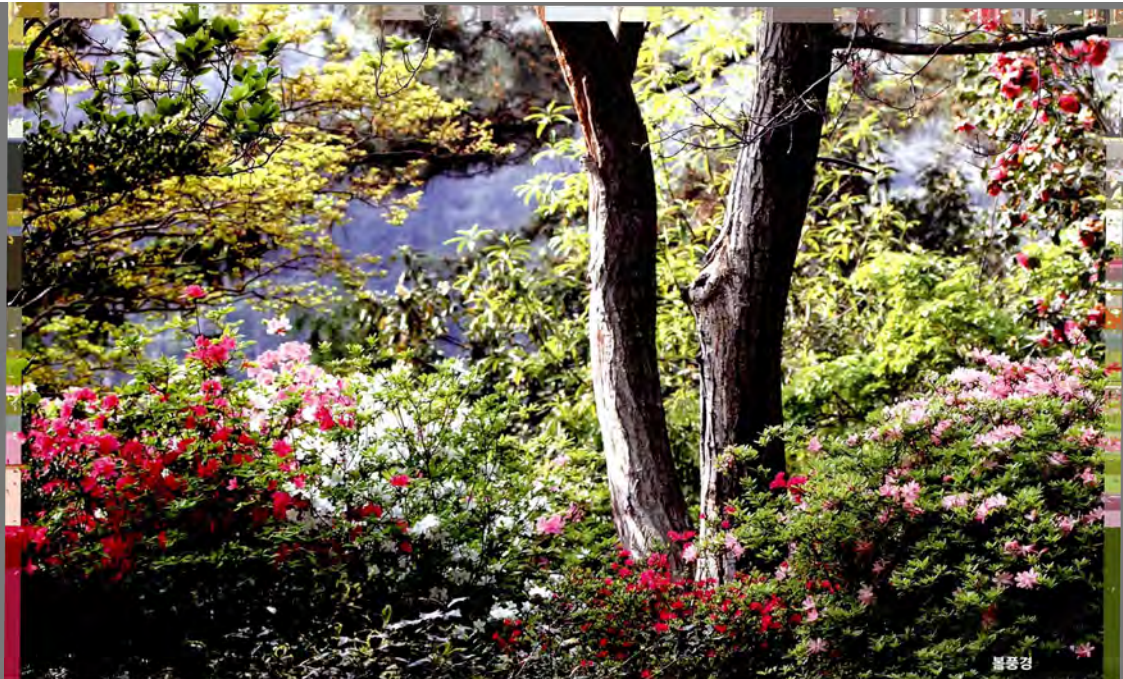
Magnolia Big berthia



불종경

자연의 식물도 상징적 스토리를 전하는 위치에 식재,
고 민병갈 원장님의 전문가적 식재 미학론도
마음에 되새기며 감사함으로 숙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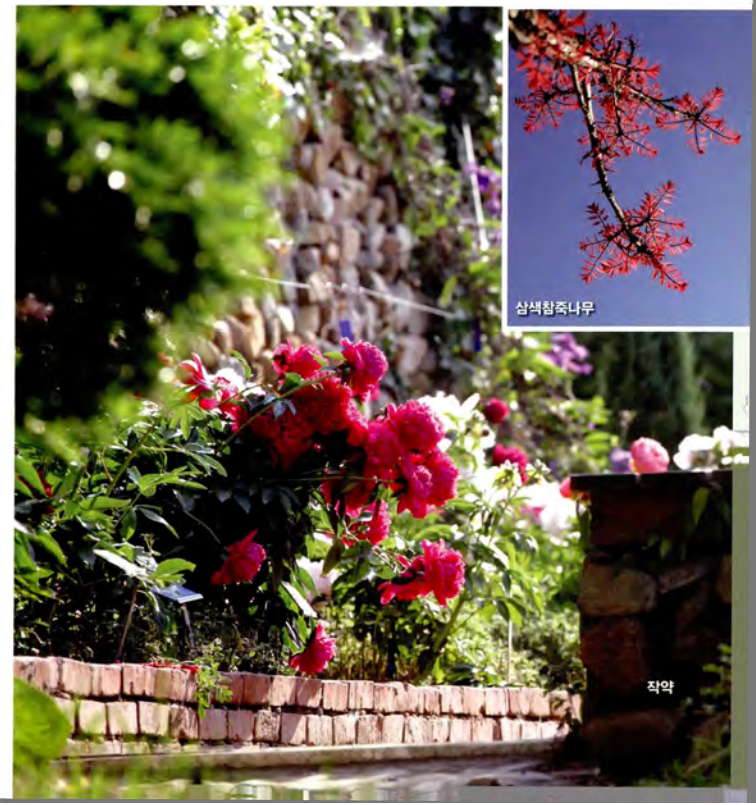
천리포수목원의 수선화는 여러 지역에서 그 빛을 발한다. 탐방객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장소는 아마도 큰 연못 가장자리일 것이다. 호수를 배경으로 피어있는 수선화의 모습을 통해 일부 사람들은 그리스신화를 연상할지도 모르겠다. 수선화의 속명은 나르시소스(Narcissus)이다. 이 속명은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명인 나르시소에서 유래하는데 나르시스는 외모가 아주 빼어나 많은 신들과 요정들이 흠모하고 사랑고백을 받았지만 이러한 고백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특히 아메이니아스라는 청년이 나르시스를 사랑하였지만 나르시스는 그에게 매정하게 대했으며 급기야는 짝사랑의 고통에 자살하였으며 그 고통을 나르시소도 알게 되길 네메시스에게 빌었다. 뒷날 나르시스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됐는데, 입맞춤을 하려다가 자신의 반사된 모습인 것을 알아차린 그는 슬픔에 빠져 자살을 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리에서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이 바로 수선화다. 자신의 모습에 반해 죽은 나르시소스 탓에 수선화의 꽃말은 자기애(自己愛)로 알려져 있고 또 자기 도취증이라고 번역되는 나르시시즘(narcissism)은 여기서 유래한다. 수선화를 보고 있노라면 나르시스가 얼마나 빼어난 외모를 가졌는지 알 듯하다. 아름다운 꽃잎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화관까지 가졌으니 외모에 대한 욕심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수선화가 꽃대를 올릴 즈음이면 크로커스는 참나리의 봄소식을 마치고 다시 수백일의 잠으로 빠져든다.



불종경

낮아지는 겸손을 산책 후,
향내음과 색채의 정원선물
향연을 누리며

낮은 곳에서의 봄소식이 지루해질 즈음이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높이에서 봄에 향연이 이어진다. 별이 빛나는 모양의 산수유와 노란 포도송이를 달고 있는 듯한 히어리, 나비의 영혼을 가진 붓꽃, 고사한 나무까지 아름답게 포장하는 철쭉, 신비로운 보랏빛 꽃을 가진 박태기나무,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군 모란, 아주 진한 자주빛으로 새잎을 내는 삼색참죽나무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 늦은 시기에 피는 동백, 수천의 형형색색의 꽃송이를 달고 있는 목련으로 이어진다. 천리포수목원의 봄이 더 특별한 이유는 동백과 목련이 동시에 개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는 목련에 아쉬움을 느낄 때 천리포에서는 절정으로 치닫는 목련을 보고 있노라면 그 느낌은 더 강렬하다.



삼색참죽나무

작약



천리포의 봄

아름다워 바라보고만 싶은
꽃길 터널을 지나며,

화려한 향연을 마친 목련이 질 때면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을 벚꽃이 달랜다. 다른 벚꽃들이야 목련보다 먼저 꽃을 피우지만 천리포수목원의 '칸잔' (Prunus 'Kanzan')이라는 이름을 가진 벚꽃은 5월에 겹겹의 큰 꽃을 피운다. 이들이 자라는 지역에는 짧지만 아름다운 터널이 생기는데 개화시기 이른 아침에 산책을 나오면 하늘과 땅에서 벚꽃을 볼 수 있다. 떠나는 봄을 달래기 위해 꽃길을 만들어 준 걸까.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꽃길을 허용한다. 그 길을 처음 맞이한 사람들은 꽃잎이 상할까 길가장자리로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긴다. 하지만 꽃길은 탐방객이 많아지고 밝히다보면 이내 상해버린다. 올 봄에는 좀 더 사뿐히 즈려밟아 많은 사람들이 누리며 봄을 보냈으면 좋겠다.



자연속 정원이 삶에 전하는
열정과 봄의 소생함의
식물과 함께 걸으며...

이처럼 천리포수목원의 봄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땅에서 끝나고 만다. 인간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 식물 또한 마찬가지로 인가 보다. 그리곤 다시 다음의 봄을 기약한다. 봄은 생명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짜늘한 바람에 봄의 기운을 느끼다보면 파스한 햇살 속에 봄이 담겨 있다. 특히 천리포수목원의 봄은 아주 짧은 듯 하면서도 길고, 수수한 듯 하면서도 화려한 매력이다. 이른 아침 아무도 없는 수목원을 거닐어 본 사람이라면 그 느낌을 잘 알듯하다. 그건 수목원의 식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올 봄에는 다양한 식물들을 통해 천리포수목원의 생기 있는 봄을 느껴보길 기원한다.





Magnolia Vulcan



Magnolia star wars

▼ Magnolia Royal flush



국내 유일의 RHS 선정 국제수목원, 약 410종의 목련 수집의 무릉도원

천리포수목원을 설립한 고 민병갈원장은 수목원 조성 초기에 다른 나무들보다 목련을 많이 수집하고 가꾸었다. 그래서 천리포수목원에는 약 410품종의 목련이 수집되어 있으며 목련위주로 조성된 목련원이 있다. 천리포수목원의 목련원을 본 사람들은 다들 같은 이야기를 한다. 무릉도원, 천국이 바로 여기라고... 천리포에서 목련이 터지기 시작하면 순백의 흰목련, 분홍목련, 붉은목련, 노란목련 그리고 별빛처럼 잎이 갈라지는 별목련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와 색상의 목련을 감상할 수 있는데 그 화려함의 시작은 해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월 말부터 시작된다. 많은 목련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꽃을 피우는 목련은 비온디아아목련(*Magnolia biondii*)과 얼리버드목련(*M. 'Early Bird'*), 그리고 레오날드메셀목련(*M. 'Leonard Messel'*)이다, 이

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목련꽃의 향연이 시작되는 셈이다. 천리포수목원 목련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아주 가까이서 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가까이라는 거리의 정도는 무릎에서부터 머리꼭대기까지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련을 빨리, 보다 아름다운 수형으로 키우기 위해 전정을 한다. 어릴때야 전정을 하면 수형이 좋아보이지만 성목이 되면 꽃은 대부분 머리 위에서 핀다. 목련에도 향기가 있다. 이런 목련에서는 향기를 맡을 수 없을 뿐더러 자세한 형태도 보기 어렵다. 목련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많은 수술과 암술을 볼 수 있는데 그 형태가 매우 신비롭다. 결만 보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꽃이다. 목련꽃속이 궁금하면 그 속을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Magnolia biondii





경기도 평택시 임영재씨의 한국의 멋이 깃든 정원

정원으로 꿈꾸는 사람들은 우리의 멋이 깃든 정원을 원한다. 고관대작의 후원처럼 거닐고 사색하고 자연의 일부가 되어 봄을 그려볼 것이다. 여기 경기도 평택의 임영재씨가 오랜 노력과 시간을 들여 꾸민 우리 멋이 느껴지는 정원은 누군가의 그리워질 정원 속으로 들어가 또 다른 정원을 꿈꿀 것이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임영재씨의 정원은 800(약2650㎡)여 평의 정원에 산수유, 산딸나무, 낙상홍, 화살나무, 명자나무, 매화나무, 남천, 소나무, 향나무, 대나무, 찔레, 칠엽수, 조팝, 깽깽이풀, 수선화, 복수초, 장포, 철쭉, 용담, 오아리, 들국화 등 토종식물 위주로 식재되어 있다. 주 정원은 집 주위로 돌과 관목을 축경(縮景)으로 연출해 산의 절경을 옮겨놓은 듯 하고 그 사이사이로 물 공간을 만들어 연못을 표현했다. 가운데 부분은 잔디를 식재해 열린 공간으로 구성하고, 여러 종류의 조형물로 전통적인 이미지와 현대적 이미지가 적절하게 융화되어 있다. 후정은 산을 차경(借景)으로 자연스러움을 강조했고, 그 아래로는 장독대를 만들어 한국의 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30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부인의 고향인 이곳에 터를 잡고 부인이 어릴 적 뛰어 놀던 동산을 재현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정원이, 지금은 방문하는 모든 이의 '위로의 정원'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백제토기, 석등, 기둥 등 토기답이 주가 되는 듯하고 신록이 우거지면 조화와 어울려 품격 있는 풍경을 만들어낸다.



▶ 암석과 나무, 조형물이 자연을 옮겨놓은 듯하게 잘 조성되어 있는 주정원



길따라 이어지는 정원. 그 길 끝에는, 그 길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증을 자아낸다.

길의 미학

이 정원의 특징 중 하나는 사이사이에 난 길들이 각기 다른 색을 가지며 걷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주 정원에서 텃밭으로 이어지는 길은 집에서부터 시원스럽게 정원을 가로질러 나 있어서 접근이 쉽다. 일하는 이의 편의성을 우선한 것이다. 그 길을 따라 난 샛길들은 각각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토속산양을 테마로 꾸며진 길에는 옛 어른들이 길에 돌, 나무, 물 등 사물을 보고 소원을 빌던 정서를 옮겨놓았고, 현대적 조각상을 배치한 길은 미술관에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다양한 도자기를 조형물로 배치한 길에서는 동양적인 신비로움이 있고, 향아리와 돌담으로 구성된 길은 낯설지 않은 따뜻함이 느껴진다. 길마다 관석의 소재와 모양을 다양하게 처리한 것과 개성 있는 물확 또한 구도가 다르게 보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저마다의 개성이 있는 길은 가는 방향에 따라 시각적 이미지가 달라지는 묘미도 있다.





▲ 선조들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만든 장독대 : 어린 시절 장독대에서 가졌던 휴식과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조성하게 되었다 한다.

▼ 손님이 오는 날이면 층층이 불을 밝혀 사랑하는 이를 반기던 풍습을 재현한 백제의 토기탑



그리움이 묻어나는 곳

장독대가 있는 후정(後庭)을 만든 이유는 어린 시절 장독대에서 유일한 휴식의 시간을 가지며 꽃과 나무를 즐기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조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산 그늘과 적당한 햇빛이 드는 장독대는 돌담을 쌓고 기와를 얹어서 주정원과 다른 에스리움이 있다. 소금, 숯, 석화와 흙을 넣고 다져 세 개 층 이상 쌓고 그 위에 돌을 쌓아 만든 장독대는 선조들의 방식을 그대로를 따라서 자연을 해치지 않고도 방충 역할을 한다고 한다.

불 밝히는 마음

이 곳 정원은 밤의 야경까지 생각한 주인공의 의도가 엿보인다. 백제의 토기탑과 석등 등 불을 밝힐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밤에도 정원을 감상할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 백제의 토기탑은 손님이 오는 날이면 층층이 불을 밝혀 사랑하는 이를 반기던 풍습을 재현하고 있다고 한다. 한 번 다녀간 이들의 마음속에 치유의 불을 밝히는 정적인 우리나라의 문화가 지켜지고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다.



한국의 맛을 디자인하는 평석의 임영재씨



밝은 창, 맑은 물, 다른 꽃과는 사귄 뜻이 없노라. 젊은 시절부터 동양적인 정원에 특히 관심이 많았고, 동양적인 축경에도 관심이 많아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던 그는 터에 정원을 조성하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석부작, 목부작, 분재, 분경 등의 작품들을 만들고 있다. 처음에는 화분이 나 수석에 붙이거나 심는데, 지금은 후대에 물려줄 자연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사명감으로 돌도 직접 만들고 있다고 한다. 세라믹과 흙을 이용해 만든 돌들은 자연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도리어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고, 이끼가 서식할 수 있도록 다공질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한다. 특히 석창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은 석창포가 예부터 선비의 강하고 고한 자태를 상징해 선비들이 가까이 했던 식물로 한국적인 정서와 잘 맞고, 생명력 또한 강해서 이끼리게 되었다고 한다.

창포가 예부터 선비의 강하고 고한 자태를 상징해 선비들이 가까이 했던 식물로 한국적인 정서와 잘 맞고, 생명력 또한 강해서 이끼리게 되었다고 한다.

◀ 세라믹과 석창포: 직접 만든 돌에 선비의 기품이 느껴지는 석창포가 잘 어울린다

봄의 선율이 느껴지는 4월의 봄

글·사진 아침고요수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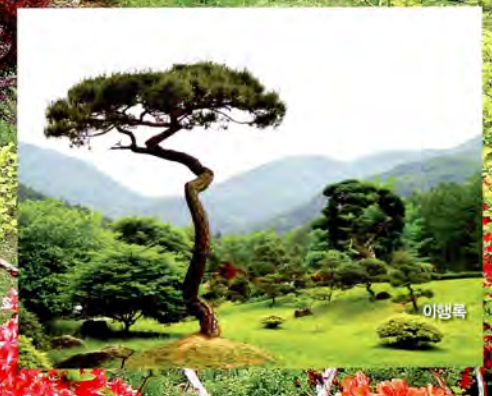


아침고요수목원,
한번쯤은 가봤을...
또 가보고 싶은 곳이다.
수목원의 봄은 아름다다.
여러 수식어가 필요 없다.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화려한 꽃과 싱그러운 초록이
눈부시게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봄바람에 가슴이 설렌다면
발길을 돌려
수목원에서 추억을 담아보자.

하경정원
하경정원은 어울림과 철재가 자연스
럽게 표현되어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정원으로,
200여종의 꽃과 100여종의 목본식
식물을 만날 수 있는 아침고요수
목원의 대표정원이다.



억새원



이행록

생명이 역동하는 경쾌한 봄의 선율과
파릇파릇한 신록의 눈부심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아침고요수목원에서 봄을 만끽해보자.



서화원 : 정자와 연못 주변으로 피어나는 꽃들이 아찔빛처럼 아름답다.



달빛정원 : 봄빛 사이로 화려한 꽃들이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미니교회를 만나볼 수 있다.

싱그러온 꽃내음과 봄의 기운이 완연한 4월, 살
랑되는 꽃바람 타고 꽃길을 거닐 수 있는 화
려한 봄이 아침고요수목원에 찾아왔다.
수목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투명한 빛의 크로커스
와 백목련의 꽃이 풍성하게 피어 상춘객들을 맞이한
다. 분홍빛 꽃 잔디가 하나둘씩 얼굴을 내미는 역새원
을 지나면 봄바람에 휘날리는 매화꽃 아래로 진노랑
의 귀여운 수선화가 가득 피어나 새봄의 생명력을 불
어넣어 주고, 꽃생추위로 닫혀있던 매화꽃의 꽃망울
은 속살을 드러내며 그윽한 향기를 뿜는다.
느긋하게 수목원을 거닐다 보면 봄꽃의 여왕이라 불
리는 튜립 6만 본의 하늘길, 하늘정원, 달빛정원을 알
록달록한 색들이 빼곡히 수놓고 있어 봄의 설레는 기
분을 한껏 고조시킨다. 특히, 아름다운 튜립과 우리
나라에서 가장 작은 미니교회가 어우러진 달빛정원
은 새봄의 청명함을 담고 있어 아름다운 4월의 풍경
을 만나볼 수 있다.
수목원의 대표정원인 하경정원은 각 개체들의 어울림
과 절제가 자연스럽게 표현된 정원으로 풍광이 뛰어나
며, 200여종의 꽃과 100여종의 목본성 식물만



배정옥

배정옥 : 조목의 관목과 아름다운 꽃들이 어울려 봄의 경연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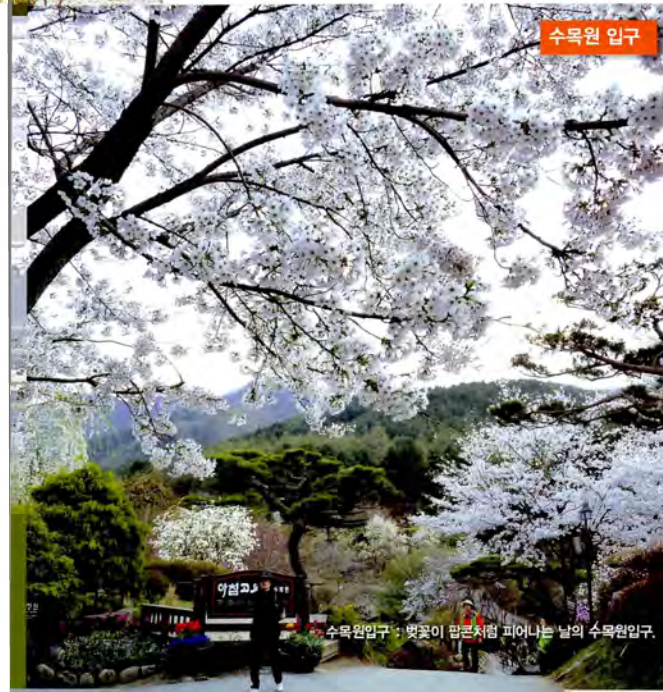
날 수 있다.

줄줄 흐르는 계곡물 따라 거닐면 초봄의
수수함과 단아함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서
화원과 한국정원을 만나볼 수 있는데, 서
화원은 멋스러운 정자와 연못 주변으로
피어나는 꽃들이 아찔빛처럼 아름답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벚꽃이 꽃비처럼

흘날리는 정원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정취를 담아내고 있다.

봄을 맞이해 늘어나는 가족 여행객들을
위한 '만들기 체험'도 준비된다. 4월 중
순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행사는 숲 속에서 즐기는 또 하
나의 추억으로 기억됨을 것이다.

따스한 봄바람을 따라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을 감상하는 시간은 움츠렸던 겨울
을 이겨내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생명이 역동하는 경쾌
한 봄의 선율과 파릇파릇한 신록의 눈부
심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아침고
요수목원에서 봄을 만끽해보자.



수목원 입구

수목원입구 : 벚꽃이 만개처럼 피어나는 날의 수목원입구.

경기도 가평군 축령산 자락에 위치한 아침고요수
목원은 축령산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자원뿐만 아
니라 자체적으로 증식, 보존하고 있는 희귀멸종식
물과 도입식물을 포함하여 총 5000여 종의 식물
을 보유하고 있다.
아이리스정원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품종인 독
일개 아이리스 800여 종이 피어나고 암석지 사이
에서 자라는 식물만 모아놓은 석정원에는 230여
종의 각종 고산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나라꽃 무
궁화 200여 종과 백두산의 희귀야생화 300여 종,
한국정원의 모란 40여 종 등 1000여 종의 작품
성 높은 다양한 수목을 보유하고 있다.

아침고요수목원 방문정보

문의전화 1544-6703

홈페이지 www.morningcalm.co.kr

주 소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
(행현리 산 255번지)

휴일 없이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봄맞이 허브화단 가꾸기 라벤더에게 봄 햇살을 주자

글·사진 김지태 기자

대부분의 화초가 그렇지만 허브, 특히 라벤더는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 식물이다. 하지만 혹독한 겨울 동안은 부득이하게 실내로 옮겨 놓아야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실내생활을 하면서 장장 4개월 동안 충분한 햇빛을 보지 못한 라벤더를 옥상화단으로 옮겨 왔다. 아직은 봄기운이 그리 따사롭지만은 않지만 아침저녁의 쌀쌀함 보다는 충분한 햇빛이 라벤더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전격 이사를 결정했다. 아울러 라벤더를 키워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알아두면 유용한 팁을 제공해 드리고자 한다.

4개월 간 직사광선을 거의 받지 못한 라벤더는 색깔이 변색되어 있었다. 실내생활을 하자마자 아름답던 진초록은 탈색되고 일부 잎새는 누렇게 죽어갔다. 허브 판매점에 물어보니 변색이 됐다고 죽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출덕라도 가끔은 직사광선을 충분히 받게 하거나 라벤더에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한다. 해가 좋은 날 창문을 열어 광합성을 시켜줬지만 충분한 햇빛이 있어야 하는 라벤더에겐 양에 차지 않는 지 색깔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저 틈틈이 물을 주고 창가로 데려가 약간의 광합성을 시키는 게 관리의 전부였다. 그래도 죽지 않고 어렵게 겨울을 버

터 온 라벤더를 드디어 야외로 이사시켜줬다. 실내에 있을 때 한 달에 두어 번 물을 줬는데 그 정도도 많았는지 흙이 상당한 습기를 유지하고 있다. 실내에서 습했던 흙도 광합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마른 상토를 넣어 고르게 잘 섞어줬다. 놀랍게도 실내에 있는 동안에도 조그마한 잡초 뿌리가 움트려고 하는 게 보였다. 잡초 뿌리를 세심히 골라내어 다진 후 토양영양제를 꽃아 줬다. 라벤더는 키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작은 잎새들을 골라주는 것이 중요한데 겨울철 몸을 사리고 있어서 그런지 골라줄만한 잎새들이 생가지 않았다. 완전히 변색된 잎새만 제거해 주고 일



라벤더 꽃



잡초 제거의 중요성
영양제같은 잡초가
뿌리를 내리면 순
아내기가 무척 어려
워진다.



옥상화단으로 옮긴 라벤더

단은 햇빛에 모든 것을 맡기로 했다. 이상한파만 덩치지 않는다면 라벤더, 특히 잉글리쉬 라벤더는 햇빛만으로 견뎌낸다는 게 허브 전문가의 말이다. 사람들 못지않게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버텨 온 라벤더. 지난해의 경험으로 봤을 때 5~6월경에는 꽃을 피우기 시작할 것이다. 벚꽃이 질 무렵 보라색 예쁜 라벤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라벤더에게 훈풍이 불기를 기원해 본다.

토양영양제 주입하기





피종 후 한 달에 모습을 드러낸 라벤더 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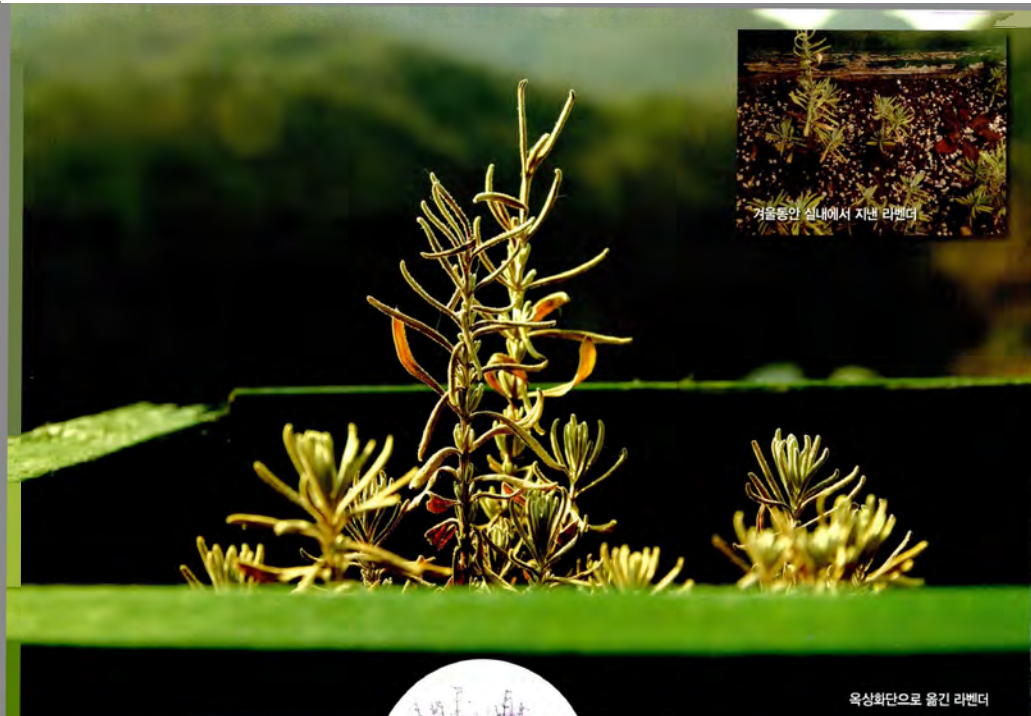
잉글리쉬 라벤더 키우기

라벤더는 허브 중에서도 향기가 좋고 꽃이 예쁘기로 유명한데 그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하다. 내가 키우고 있는 라벤더는 잉글리쉬 라벤더 중 엘레강스 스카이(Elegance Sky)라는 품종이다. 엘레강스 스카이는 비교적 키가 작지만 다른 라벤더보다 약간 큰 꽃을 피워서 관상용으로도 좋다. 한꺼번에 무리지어 피는 경향이 있어서 꽃이 만개하면 화단을 보랏빛 원색으로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다. 라벤더를 키워본 경험상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4~6월 파종 빠른 발아

씨앗은 이태리에 있는 지인이 공수해 온 유럽산 품종이었다. 화원에 물어보니 4월 중반에서 6월초 정도 파종이 좋다고 한다. 또한 햇빛을 많이 타는 품종이라 한국에서 자라기 쉽지 않다며 발아한 후 파종을 권했지만 그냥 씨앗을 뿌리고 가끔 물만 주곤 했다. 싹이 날지 고민을 좀 했지만 생명력이 강한 지 금방 싹을 내더니 파릇하게 자라난다.

2. 물은 적은 듯하게 준다



겨울동안 실내에서 자란 라벤더

옥심화단으로 옮긴 라벤더

잉글리쉬 라벤더는 건조한 곳에서 더 잘 자라는 품종이다. 촉촉한 흙보다는 차라리 마른 흙이 더 낫다고 한다. 물을 줄 때는 다른 화초와 비교해서 적은 듯이 주는 게 좋고 너무 자주 주지 않도록 한다. 문제는 장마철인데 많은 비로 인해 물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비가 많이 올 때는 비를 안 맞는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좋다.

3. 옆의 작은 잎새를 솎아준다

라벤더는 꽃 모양으로 웅기종기 모여서 싹을 낸다. 그대로 두어도 보기에는 예쁘지만 발육에 문제가 생기고 꽃 피우기도 어려워진다. 라벤더의 키가 높게 자라기 위해서는 높은 줄기 중심으로 키 작은 잎새들을 가끔 솎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안 그러면 키 작은 통통한 라벤더로 자라나게 된다.

4. 분갈이할 때 뿌리를 주의한다

라벤더들에게 넓은 공간을 주기 위해 분갈이를 시도한 적이 있다. 생각보다 라벤더 뿌리가 너무 깊고 넓게 퍼져있어서 놀랐다. 상대적으로 뿌리가 크니까 삽을 넣을 때 충분히 여유를 두고 조심히 다루는 게 좋다. 잡초들도 주기적으로 뽑아주는 게 좋다. 방치했다가 라벤더 뿌리와 잡초 뿌리가 엉키면 제거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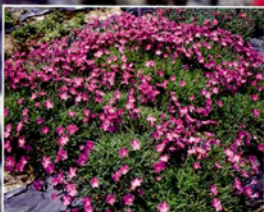


라벤더 꽃, 주변 싹들을 솎아주지 않아 키가 성숙해 자라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식물의 특허라고 할 수 있는
품종등록출원을 받은 상록잔디패랭이

화려한 꽃웅단, 상록잔디패랭이

Dianthus



꽃 분홍웅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초록과 어울려 화려함을 자랑하는
상록잔디패랭이는 한송이씩 피는 패랭이와는
달리 무리지어 화사하게 피어난다.
패랭이는 우리의 산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로 이제는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식물이다. 꽃의 모양이 조선시대 서민들이
쓰고 다니던 모자 패랭이와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먼저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는
장기개화형으로, 만개되었을 때는 꽃방석을
연상시킬 정도로 화려하고 잎의 형태도 잔디와
같은 피복형으로 조밀하고 안정감을 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상록잔디패랭이는 잔디패랭이와 같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고 꽃의 크기도 크고
화색도 진하며, 물빠짐이 좋은 곳이라면
어느 곳에 적응해도 잘 어울리는 꽃이다.
앞쪽의 라인식물, 혼합식재시 앞쪽 식물로
적용하거나 도로변 화단 또는 중앙분리대 화단
등 대면적에 군식해도 좋다. 패랭이 꽃말은
순결한 사랑이다.
별을 닮은 듯한 꽃, 패랭이. 다른 한송이의
꽃보다 잔디처럼, 웅단처럼 펼쳐지는
상록잔디패랭이로 올해는 꽃밭에 화사함을
올려보자.

상록잔디패랭이(Dianthus)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고 겨울엔 상록으로
남는다. 특히로 품종보호를 받는 패랭이로 더
유명합니다.

1. 잔디패랭이를 시작으로 상록잔디패랭이에
이르기까지 육성의 포인트는 4계성이다.
2. 건조에 매우 강하고 상록성의 다양한 품종으로
우리나라의 건조기후에 알맞다.
3. 혼합식재 시 앞 라인에 적용하면 항상
꽃이 있는 정원연출이 가능하며 특히
상록잔디패랭이는 컬러가 우수하다.
4. 여름장마 후에 다습에 의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배수가 양호한 곳에 식재한다.
5. 분화용으로도 매우 좋고 품종이 다양하다.

아름답고 조밀하게 피는 상록잔디패랭이는
선물용으로도 판매 가능합니다.
구입상담문의·식재상담문의
우리꽃 Tel. 031-634-7990

벽면녹화

식막한 벽에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보러 사람들이 직접 찾아왔다. 여전히 허전해 했다. 그 벽에 꽃을 피우는 화초와 초록을 볼 수 있는 식물로 채웠다. 기술이 들어가고 과학이 참여했다. 사람들은 치유를 느꼈다. 회색도시에서 여유를 찾고 저 먼 곳의 그리움을 찾아 여행을 떠났다. 벽면녹화 얘기다. 말은 어렵고 쉬 다가올 거 같진 않지만 시작되고 있다. 4월이다. 가든인 독자분들도 벽에 식물을 심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 작은 시작의 문을 열어보자.

트렐리스 공법으로 벽면을 공중걸이용으로 장식한 벽면녹화 경관



출처 사진 윤평섭
삼육대학교 환경그린디자인학과
명예교수

벽면을 텍크로 처리하고 코코넛베트로 만든 행잉베스켓에
잉글리쉬아이비와 뉴기니아 왕핀파티엔스를 식재하여
벽면을 공중걸이용으로 장식한 벽면녹화경관

벽면녹화의 목적은 도시의 공해해소와 에너지 절약차원에 있다. 도시의 건축 밀집현상은 녹색공간의 부족을 야기시켰고, 이는 도시민의 정서와 연결되었다. 날로 각박해지고 심해져 가는 도시의 공해를 해소하려는 목적과 더불어 때는 햇빛을 차단시켜 온도를 낮추려는 에너지 절약차원이 맞물려 벽면녹화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수직적인 벽면에 식물을 식재하기란 어려움이 많다. 식물이 살아남기 위한 배양토 문제, 배양토를 담을 컨테이너와 배양토 무게의 하중문제, 이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가 크게 대두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량제의 인공용토를 개발하여 식재하고 있지만 식물이 필요로 하는 무기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 식물생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점도 있다. 이것은 여전히 연구되

▼ (좌) 담쟁이덩굴로 부착된 벽면녹화 경관
(우) 넓은벽면 한가운데에 액자형으로 플랜트 박스에 잉글리쉬아이비와 트리안, 필레아, 로즈마리, 왕도마를 식재하여 장식한 벽면녹화



1. 아틀란티카개잎갈나무
글라우카팬들라를 애스펠리로 식재하여
벽면을 장식한 벽면녹화
2. 왕모람을 착생시켜 조성한
이치형 벽면녹화
3. 특수용토를 압축하여 청장으로 틀을
짜서 만든 매트형에 황금조팝나무와
페튜니아 등을 식재하여 재배하는 모습
(우리꽃 영농조합, 벽화수재공)
4. 수직적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부직포
주머니에 배양토를 담고 산호수와 테이불아자,
스킨답서스 엔조이를 식재한 벽면녹화
5. 수직 기둥을 플랜트박스에 틀어쥐고
자주달개비, 베르게니아, 알제리아아비,
도깨비고비, 등을 식재하여 감싼 기둥녹화경관
6. 플랜트박스에 배양토를 담고 아프리카
봉선화와 메리골드를 식재한 경관
7. 플랜트박스에 배양토를 담고 필로덴드론
제나두와 테이불아자, 팔손이,
스파티필름, 아스파라거스고무나무
칼라데아루피파르바를 식재한 벽면녹화
8. 볼력을 쌓은 벽면을 오염담쟁이덩굴로
늘어트려 놓은 벽면녹화경관



벽면녹화 Green wall



어려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순수한 **벽면녹화**에서 가장 좋은 식물은 **담쟁이덩굴**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뿌리가 건축벽면을 파고 들어가 건축물을 훼손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뱀이나 징그러운 벌레가 서식한다는 문제가 외면당하는 이유가 되리라 생각한다. 최근에는 콘크리트 웅벽이나 석축벽, 고가도로의 교각 같은 곳에 식재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식물이 벽면을 가리면 직접육안으로 균열을 감지할 수 없어 식재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될 것 같다. 독일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한 독일인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에 벽면에 모두 담쟁이덩굴로 뒤덮여 있었다. 주인에게 물기를 '뱀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독일은 뱀이 없는 나라라 한다. 그러면 '벌레는 없어요' 그랬더니 없다고 한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일정에 따라 외부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담쟁이덩굴을 한 건물 주인이 부르는 것이었다. 담쟁이덩굴을 사방 1m를 뜯어놓고 보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4개의 새집이 있었다. 그런 고로 새들이 벌레를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벌레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1m를 뜯어 놓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이렇게 뜯어놓는 것인가 하고 물었더니 이집은 자기 집인데 은행에 담보로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받고 살다가 죽으면 은행소유가 된다고 하였다. 50년 만에 한번 씩 수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번이 50년째라 은행에서 수리해준다고 하여 담쟁이덩굴을

뜯어낸 것이라 하였다. 또 한 가지 벽면녹화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식물의 선택이다. 비교적 건조에 강하고 되도록이면 상록성이며, 적응력이 뛰어나고 늘어지는 포복성식물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극한 추위에 월동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어 또 하나의 난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식물들을 가지고 벽면녹화에 적합성을 실험하고 있지만 시원한 결론은 없는 것 같다. 모두가 한시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하면 담쟁이덩굴이나 다래류, 으름덩굴 등 이상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초본류**로는 **대사초류**, **섬기린초**, **톨나물** 등을 들 수 있고 토심을 약간 깊게 한다면 **눈향나무**나 **눈주목**을 들 수 있다. 외국종으로는 **황금조팝나무**와 **세돔 아크레**(Sedum acre), **파랑세돔**(Sedum rupestre), **세돔 색상골레**(Sedum sexangulae)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이상 기후에 의해 월동이 되지만 온대기후지역에서는 월동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마음 놓고 장려할 만한 종류들은 될 수 없다. 물론 남부지역은 가능할지도 모른다. 지지공법으로는 트렐리스(trellis)를 이용하거나 덩굴식물을 하수형으로 늘어트려 관상하는 수법이 있으며 컨테이너공법으로는 **매트형**(mat form)과 **플랜트박스형**(plant box form), **부직포형**(fabric form)으로 나누기도 한다. 매트형은 특수용토를 압축하여 5~15cm 정도 두께로 판형을 만들어 식물을 식재하는 방법을 말하며 플랜트박스형은 화분 형태로 배양토를 담아서 식재하는 방법이며 부직포형은 부직포를 두겹게 만들어 식물을 식재하고 배양액을 공급하여 재배하는 공법이다. 이외에도 이들의 절충형과 애스펠리아와 트렐리스 공법이 있으며 이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플랜트박스형이다. 플랜트박스형에는 배양토가 인공용토로 배합되어 들어가는 데 버미큘라이트와 피트모스, 펄라이트를 3:5:2나 3:3:3의 비율로 혼합하여 재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만으로는 미량요소가 결핍되어 한시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식물이 영양결핍증에 걸리기 쉽다.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깨끗한 일반 토양을 10~20%정도를 인공배양토에 더 혼합하여 재배하면 2~3년을 충실하게 유지관리하며 감상할 수 있는 아점이 있다. [벽화수 용법제공]





실내조경 에코웬스 하나면 충분~ 식물이 자라는 에코블럭



에코웬스 만들기 재료
스텐레스 사각 프레임 33개, 나선형 철사 62개(33cm), 부직포블록 9개, 상토 15포 (부직포블록 2개 제작시 3포 필요)

딱딱한 사무실, 숨 쉬기조차 탁한 실내공기는 사람들을 각박하게 만든다. 하루 이틀이 아닌 많은 날들 속에서 지쳐간다. 호흡기질환, 면역력저하, 시력저하 등과 끈질긴 사투를 벌일 수도 있다. 긴 시간 노출은 건물에서 나오는 환경물질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능률 없고, 그저 기계적으로 일만하게 만든다. 작은 화분 몇 개로는 어렵다. 눈요기다. 공기를 정화하려면 좀 더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요즘은 미세먼지로 인해 환기도 가려가며 해야 한다. 특히 봄철이 더하다. 봄은 식물을 부른다. 누군가 꾸준히 관리해주면 모를까? 식물은 사무실에서 키우기가 그리 쉽지 않다.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불철 나른함을 더 느끼는 사무실에 필요한 아이템을 소개한다. 이름하여 에코웬스, 에코블럭이다. 사방으로 둘러서 식물을 심을 수 있다. 공기정화뿐만 아니라 가림막 역할, 분위기도 남다르게 연출이

가능하다. 1단, 2단 쌓아올려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블록색깔도 기호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 관엽식물과 초화류를 섞어가며 식재할 수 있고, 계단모양, 일자모양 등 모양도 다양하다. 맨 위는 열려 있어 조밀하게 분류해서 심으면 관상 가치가 더 뛰어나다. 블록 한 개당 앞뒤면 4개씩 구멍이 있어 식물을 심을 수 있고, 위로 올리는 부분은 블록을 겹칠 수 있어 원하는 높이까지 조절할 수 있다. 부직포로 만들어진 블록은 가습효과가 뛰어나다. 물은 연결되어 있는 호스를 통해 전체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조절된다. 에코블럭은 실외에서도 가능하다. 식물 담(살아있는 울타리)을 만들 수도 있고, 글씨나 이미지를 식물로 만들어 넣을 수도 있다. 실외에서는 초화류와 관목을 적절히 섞어 사용하면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실외는 관수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3칸 3단 에코웬스 제작과정 (1회째)





2단을 쌓기 위해 1단과 같은 방법으로 먼저 칸이 되는 부분에 프레임의 덧대고 철사로 고정한다. (1단과 2단 사이 바닥 칸은 만들지 않음)



2단을 올린 프레임



다음으로 맨스 전 후면에 2단이 될 프레임의 덧대고 부직포의 구멍을 통해 철사로 고정합니다. ※ 부직포 구멍과 프레임 연결방법 (단을 올릴 시에는 프레임 하나를 덧대고 철사로 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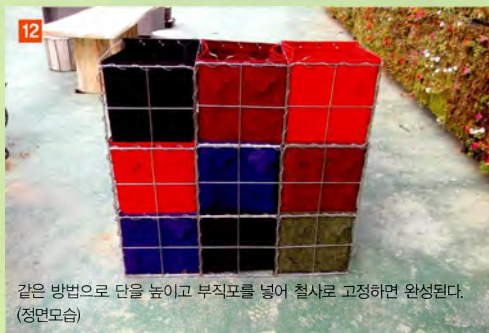
12



2단 끝면이 완성되면 부직포 하단과 위단의 부직포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14



같은 방법으로 단을 높이고 부직포를 넣어 철사로 고정하면 완성된다. (정면모습)



측면모습

식물식재과정

1. 연결한 프레임에 흙을 채워 넣는다. 흙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배양토를 사서 써도 된다. 안쪽을 다 채워야 함으로 재배 흙이 많이 들어간다. (작은사진 : 내부공간에 흙이 채워지고 있다.)
2. 흙을 채워가며 식물을 둘러친 구멍으로 안쪽에서 뿌리부분을 잡아당겨 심는다. 식물은 잡아주고 흙은 빠져나오지 않게 사전처럼 곡선 모양으로 되어 있다. (작은사진 : 식물을 심기 위해 둘러친 구멍으로 식물을 밀어 넣고 있다. 사무실은 정화능력이 있으면서 인테리어 효과도 있는 종류를 선택하면 훨씬 좋다.)
3. 2단을 심고있는 상태. 페페로미아와 천남궁이 식재된 모습. 키가 큰 종류보다 작고 옆으로 퍼지는 종류를 택해서 심어야 풍성하고 멋진 식물의 어우러짐을 볼 수 있다.
4. 2단까지 심은 후 호스를 연결한 모습. 직접 물을 주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자동이나 반자동으로 물을 줄 수 있게끔 호스에 작은 구멍을 뚫어 설치를 한다. (작은사진 : 호스에 작은 구멍이 있어 관수하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다.)
5. 블록면에 식물을 심었으면 처음엔 직접 물을 충분히 준다. 물받이가 있어 빠져나온 물이 예코블록 아래면으로 나온다. 받침대역할을 하는 부분이 물받이다.
6. 빙 둘러 식물을 식재한 모습. 홍콩야자, 천남궁, 페페로미아 등의 관엽식물이 보인다. 밑의 받침대가 물받이 역할을 해준다. 바퀴가 달려있어 어디든 움직일 수 있다.
7. 계단모양으로 예코블럭에 식재된 모습. 식물을 다양하게 심을 수 있는 장점과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어 좋다. 페페로미아, 팔손이, 천남궁, 후마타, 녹보수, 송오브인디아, 홍콩야자, 실버레이디가 식재된 예코블럭모습. 공간분할, 가림막, 정화기능, 인테리어 효과까지 탁월하다. 벽면보다 앞면에 약간 키가 큰 관목이나 퍼지는 식물을 심으면 더 풍성해 보인다.





4월, 씨앗을 심는 가장 바쁜 시기

봄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식물을 위해 몸을 움직이는 시기는 바로 4월이다. 꽃샘추위가 물러가서 따스한 기온이 완연한 계절, 그리고 파종하기 적당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계절이다. 씨앗을 심는 것을 좋아하고 씨앗부터 식물을 키워나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4월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2~3월에는 서늘한 기온에서 발아가 잘 되는 잎채소와 뿌리채소, 육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열매채소를 파종하고, 4월초에는 허브씨앗과 박과채소 씨앗을 심는다.

1년 중 내가 가장 바쁜 시기를 꼽자면 4월을 꼽게 될 것 같다. 매달은 힘들더라도 매해 한번 이상은 씨앗을 심곤 하는데, 그 씨앗을 심는 시기가 바로 4월에 몰려있다. 왜 하필 4월에 씨앗을 심느냐 하면, 3월은 꽃샘추위가 남아 있는 계절이고, 5월부터는 온도가 올라가 여름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4월이 딱 적당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한번은 4월에 씨앗을 다 심지 못하여 5월에 심었었는데 병충해가 슬슬 생겨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다 자라기 전에 병충해의 피해를 크게 입었던 경험이 있다. 때문에 2~3월에는 서늘한 기온에서도 발아가 잘



농경학 자문관 김현숙 씨의 글·사진 오히려
<http://blog.naver.com/e1512/>



고개를 내민 씨앗: 이른 모종으로 키워내는 뿌듯한 보람이 있다.



꽃이 활짝 핀 파초모종: 미니정원을 만들어 베란다에 놓으면 집안이 화사해진다.



꽃시장 화초모종: 온갖 종류의 꽃모종이 전시되고 있다

되는 잎채소와 뿌리채소, 육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열매채소를 파종하고, 4월초에는 허브씨앗과 박과채소 씨앗을 심으려 하고 있다. 모든 씨앗을 4월에 몰아서 심기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몰리기 때문이다.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애정을 다하여 성인으로 키우는 것처럼 많은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활동보다 더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씨앗을 심어 키운다는 것은 상당히 선호도가 갈리게 된다. 정성을 다해 새싹을 돌보는 것이 귀찮거나 시간이 잘 나지 않는 사람은 씨앗을 심는 것보다는 모종을 구입하여 키울 것이고, 새싹의 귀여움, 새싹부터 키워 어른 모종까지 키워내는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은 힘들어도 씨앗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사실 회사를 다니며 베란다에 식물을 가꾸는 나로서는 씨앗을 심어 키운다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기에, 이따금 씨앗을 심지 않고 모종을 구입하여 키우고 싶은 충동이 자주 들게 된다. 그럼에도 씨앗을 키워 심게 되는 이유는 채소와 일부 일년생 허브 등을 모종으로 구입하여 키우는 것보다 씨앗이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채소 모종은 대부분 종묘상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씨앗을 심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특히 잎채소의 경우에는 햇볕만 잘 들어오면 성장이 빨라 금새 본잎까지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순식간에 판매하는 모종만큼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뿌리채소의 경우에는 모종을 옮겨심는 것이 아닌 키울 곳에 직파로 심어야 하기 때문에 씨앗으로 심어 키워야 하고, 모종도 잘 판매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채소와 일년생 허브 등을 키울 때 무조건 씨앗으로 키우는 것이 좋을까?

가든인 정보

Garden info

모종 트레이에 파종하기

1. 여러 개의 구멍이 나 있어 다양한 종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모종 트레이를 준비하였다. 모종 트레이는 구멍의 개수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 모종 트레이는 홈쇼핑,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2. 모종 트레이에 파종용 흙을 채워준다. 파종용 상토, 피트모스, 질석 등을 사용하면 된다.
3. 흙을 구멍에 모두 채웠다면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흙이 구멍을 뚫어준다. 손가락으로 뚫고 싶지 않다면 나무젓가락을 이용해도 좋다.
4. 씨앗을 구멍에 넣어 준다. 만지만금 미세한 씨앗의 경우에는 흙을 덜지 않아도 되고, 중간 사이즈의 씨앗은 3~4개 정도의 씨앗을, 큰 씨앗은 1개 정도를 심는 것이 좋다.
5. 흙이 쓸려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물을 준다. 흙이 마르면 바로바로 흙에 물을 주도록 한다.
6. 위에 투명한 랩을 씌워주면 온도와 수분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그 부분은 씨앗을 심을 환경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새싹을 키워낼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햇빛이다. 봄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면 씨앗부터 모종을 키워낼 경우 햇빛 부족으로 웃자라서 튼튼하지 못한 모종으로 지랄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에는 모종을 구입하는 것이 관리가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파종 후 이렇게 관리해야...

처음 씨앗을 심을 경우엔 영양분이 적고 무균인 파종용 상토, 피트모스, 질석 등에 심어야 제대로 발아할 수 있다.

처음 씨앗을 심은 사람은 새싹이 올라왔을 때 튼튼하게 키워내려면 영양분 높은 흙에 심는 것이 좋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씨앗을 심을 때는 영양분이 적고,

무균인 파종용 상토, 피트모스, 질석 등에 심어야 한다. 그 이유는 사람의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밥을 바로 먹을 수 없듯이 새싹도 처음에는 여린 상태이기 때문에 높은 영양분의 흙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발아율이 높은 채소 종류들은 그나마 어떤 흙에서도 발아를 하는 편이지만 발아율이 떨어지는 일부 화초, 허브 등에는 되도록 파종용 흙을 사용하는 것이 발아에 도움이 된다.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습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싹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수분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흙이 마르려고 하면 바로 물을 주어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발아가 까다로운 식물의 경우에는 흙의 수분이 마르면 발아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발아를 하는데 적당한 온도는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서늘한 기온에서도 발아를 하는 잎채소 종류는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의 씨앗이 발아하기 좋은 온도인 20도 안팎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4월은 보통 20도 안팎의 온도가 나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수분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에 투명한 비닐을 씌워주는 것이 좋은데 검정색 비닐은 오히려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투명한 비닐을 사용하도록 하자. 우리집 베란다는 거의 동향에 가까운 위치이다. 때문에 햇빛이 하루 종일 들어오지는 않는 편인데 씨앗을 심으면 웃자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스탠드 스탠드를 짚는 것이 일반 햇빛보다는 성장에 좋을 리가 없지만 햇빛을 쬌 수 있을 때는 햇빛을 쬌어주고, 햇빛이

부족한 시간대에는 스탠드를 켜주면 그래도 웃자람을 조금이라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화려한 꽃들이 만발하는 시기.

화초를 구입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금새 시들어버렸다면, 너무 더운 곳에 두지는 않았는지, 햇빛이 잘 들지 않은 곳에 두지 않았는지, 물을 너무 과하게 주지 않았는지 꼭 체크해야 한다.

적당한 온도의 4월은 각종 화려한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다양한 봄 꽃을 구입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4월을 놓치지 말 것! 물론 2~3월부터도 예쁜 봄꽃을 구경할 수 있지만 가장 다양한 꽃을 구경할 수 있는 계절은 꽃샘추위가 수그러든 4월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굳이 모종을 살 생각이

아니더라도 꽃시장에 한번 들르면 그 화려함에 눈이 동그래질 것이다. 그 동안은 꽃시장에 가게 되면 그저 꽃 감상을 하기만 했었는데 올해는 달랐다. 먹을 거리 위주로 키우던 내게 요즘 들어 꽃이 어찌나 예쁘게 느껴지던지 참치 못하고 들고 가지 못할 정도로 꽃 모종을 왕창 구입하기 일쑤! 화초를 구입하면 얼마 가지 않아 꽃은 금새 시들어버렸다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더운 곳에 두지는 않았는지, 햇빛이 잘 들지 않은 곳에 두지 않았는지, 물을 너무 과하게 주지 않았는지 꼭 체크해야 한다. 특히, 고온에 꽃이 시들기 쉬운 화초가 많기 때문에 꽃이 너무 활짝 핀다 싶으면 서늘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중요하다. 꼭 흙의 물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주고, 시든 꽃은 바로바로 잘라준다면 꽤 오랫동안 예쁜 꽃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원두막과 참외

노란 껍질 속에 하얀 속살, 참외는 맛과 향이 있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채소과일이다. 예전엔 여름에 수박과 함께 먹는 대표적인 과일이었지만, 지금은 3월부터 5월까지가 제철인 듯 노란 참외가 소비자를 유혹한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참외는 노지에서 재배하는 참외에 비해 육질이 연하고 이른 철부터 먹을 수 있다. 참외로 유명한 산지는 지금 참외수확이 한창이다. 성주참외, 금싸라기참외만 알고 있는 독자라면 안완식 박사의 참외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이렇게나 종류가 많고 사연이 많다. 생전 처음 보는 참외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자 참외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글·사진 안완식
안완식 씨드림 대표 농학박사
한국토종연구회의 고문, 슬로푸드코리아
생물다양성위원장, 맛의방주 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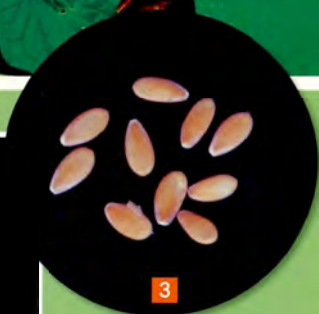
가만히 서 있거나 하더라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삼복더위지만 방학을 맞으면 의례히 책가방 들러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용인에 사는 할아버지 댁에 다니러 가곤 했다. 시외버스를 내려서 한참을 걸어 논둑을 걷고 시골길 산모퉁이를 돌아서면 시원한 마파람이라도 쏘일 수 있는 높직한 원두막이 보이고,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소리쳐 부르면 반갑게 맞아주시던 할아버지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시골 친구들과 밤이면 참외서리 하다가 들켜서 야단맞던 일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다. 요즘은 참외는 작고 노란색의 하우스에서 재배한 참외 일색이지만 60여 년 전의 참외는 그 종류가 많았다. 개구리참외, 먹참외, 사과참외 외에도 당도가 꽤 높았던 김막가나 나이롱참외라는 것도 있었다. 참외(*Cucumis melo* var. *makuwa*, Oriental

melon)는 박과류에 속하는 1년생 식물로서 원산지 및 재배의 기원은 아프리카이고 2차 중심지역은 중국동, 인도, 중국이다. 이집트에서는 예부터 멜론이 재배되었다고 하는데 멜론(*Cucumis melo* var. *reticulatus*)은 참외의 변종이다. 원산지로부터 유럽방향으로 전파되어 재배종으로 개량된 것이 멜론이고, 참외는 동양으로 전래되어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개량 발전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재배역사는 삼국시대 또는 그 이전부터 재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통일신라시대에 황과(黃瓜)와 참외(𩇐瓜, 王瓜)에 대한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부터 참외는 여름철 과실로서 인기가 있었다. 외가 오이를 가리키고 있는데 참외의 (참)은 순수한 우리말로서 오이보다 맛과 향기가 썩 좋다는 표현인 것이다.



1 개구리참외: 정(鄭)씨가 수백 년을 모여 살아온 정씨촌인 성환읍 메주리에서 정관용 할아버지가 재배하던 개구리참외는 일제 때에 일본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았다. 개구리참외는 저장성이 좋지 않고 당도가 낮은 편이어서 당도 높은 춘향참외, 은천참외, 금천참외 등 다른 개량 참외로 대체되었다. 정관용 할아버지는 한국동란을 거치면서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종자를 잃지 않으려고 해마다 뒷밭에 조금씩 심어 가꾸어 오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였는데 다행히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을 근처 경부국도변에 심고 원두막을 지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지나는 사람들이 없어졌던 개구리참외를 보고 한두 사람씩 찾게 되면서 이곳저곳 소문이 나고 재배하는 사람들도 몇 명 생겨서 지금도 이따금 국도 변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외로 대체되었다. 정관용 할아버지는 한국동란을 거치면서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종자를 잃지 않으려고 해마다 뒷밭에 조금씩 심어 가꾸어 오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였는데 다행히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을 근처 경부국도변에 심고 원두막을 지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지나는 사람들이 없어졌던 개구리참외를 보고 한두 사람씩 찾게 되면서 이곳저곳 소문이 나고 재배하는 사람들도 몇 명 생겨서 지금도 이따금 국도 변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2. 잘 익은 개구리참외 : 개구리참외는 살이 연하고 아삭아삭하는 씹히는 맛이 좋으며 특히 잘 익은 참외의 속은 당도가 높아서 씨를 빼지 않고 먹어야 제 맛이 난다.
3. 참외의 종자 : 참외종자는 오이의 모양과 비슷하지만 그 크기는 절반정도로 작다.

참외의 효능

참외는 100g당 일반성분은 수분92.8%, 단백질0.9g, 지질0.7g, 당질4.7g, 섬유소 0.3g, 회분0.6g, 칼슘16mg, 인10mg, 철0.2mg, 비타민A13re, 베타카로틴 80μg, 비타민B1 0.02mg, B2 0.05mg, 나이아신0.7mg, 비타민C 15mg 정도인 알칼리성 건강식품이다. 참외에 함유되어 있는 포도당과 과당은 인체에 흡수가 빨라 원기회복에 도움을 준다. 참외를 많이 먹으면 밤에 오줌을 심다고 하는 것은 수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수박과 같이 이뇨작용이 있고 또 칼륨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참외는 비타민 등의 영양분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다른 과일에 비해서 한번에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영양분의 섭취가 많은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참외의 향기 성분은 에칠 세바시테이트(ethyl sebacate)이며 꼭지의 쓴맛은 쿠쿠르비타신 이라고도 하는 엘라테린(elaterin)이라는 결정성 고미질로서 유독하다. 쿠쿠르비타신(엘라테린)은 항암효과가 있어 참외를 많이 먹으면 암세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엘라테린은 구토의 효과가 있어서 참외꼭지 말린 가루 또는 꼭지를 달인 물을 마시면 토한다. 동의보감에는 참외가 진해 거담작용을 하고 풍담, 황달, 이뇨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과일이라 할 수 있으며 체질이 산성으로 변하기 쉬운 여름에 참외는 좋은 식품이며 피로회복에 좋다. 그러나 참외는 성질이 차가운 과일이어서 덜 익은 참외나, 몸이 찬 사람들이 과식하면 소화가 잘 안될 수도 있다. 참외는 잘 성숙된 것을 주로 생과, 주스, 화채 등을 만들어 먹지만 풋참외로는 참외장아찌나 피클 또는 참외김치를 만들기도 한다.

피부미용과 다이어트

참외에 함유된 비타민C 성분이 여름철 자외선으로 인하여 손상된 세포나 피부노화를 예방해주는 뛰어난 효능을 갖는다. 참외를 자주 섭취하면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에 도움이 된다. 또 참외는 칼로리가 100g 기준으로 31kcal 정도로 낮고, 쉽게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을 줄일 수 있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피로회복 및 빈혈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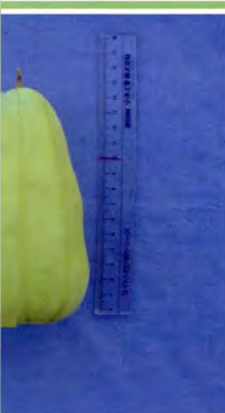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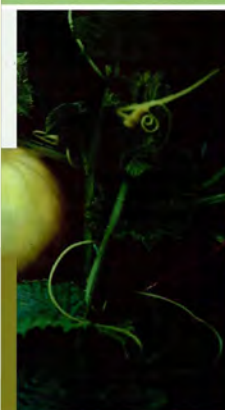
참외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C 성분은 원기를 회복하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엽산 성분은 빈혈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평소 피로를 자주 느끼거나 빈혈증상이 있는 사람은 참외를 자주 먹으면 좋다. 특히, 참외는 태아의 신경과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임신부들이 섭취하여도 좋은 과일이다.

간기능 보호와 항암효과

참외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간 기능을 보호해주고 간의 해독을 도와서 간 기능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심장 질환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 특히, 참외에는 항암성분인 쿠쿨비타신이 함유되어 있어 직장암세포나 간암세포 등의 암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

황달치료 및 이뇨작용

참외는 수분함유량이 높고 칼륨의 함량도 높아 갈증을 없애준다. 이뇨작용에도 뛰어나 체내에 있는 독성을 해독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참외꼭지에는 엘로톡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내복하면 구토, 설사를 할 수 있으나 황달 치료를 위해 코로 흡입하는 외용으로 사용하면 좋다.



4. 백사과참외 : 사과와 모양과 비슷하고 크기도 작은 사과만하여 사과 참외로 이름 붙인 것 같다. 저장성과 수송성이 약해서 많이 심겨지지 않았다.
5. 감참외 : 과피는 짙은 녹색이며 과육의 색이 감색이어서 감참외라 불렀다. 맛이 좋고 우반성이 양호하다.
6. 노랑참외 : 과피가 노랑색이며 원추형으로 끝이 거의 없다.
7. 먹참외 : 과피가 검은 녹색이로 진하다.
8. 열꽃참외 : 서울참외라고도 하였으며 오류동을 중심으로 많이 재배되었다. 껍질이 단황록색으로 열꽃이 있다.
9. 칸치참외 : 과피에 개구리참외처럼 얼룩무늬가 있지만 표면이 굴곡없이 매끈하다.

참외 잘 고르는 요령

- 색깔이 좋아야 한다. 참외 고유의 맑은 노란색, 짙은 감색을 띠는 것이 최상품이다
- 끝이 움푹하게 패인 참외가 잘 익은 참외이다.
- 꽃자국이 작아야 참외가 달다
- 꼭지가 가늘고 싱싱한 것, 그리고 털이 적게 난 것이 더 맛있다.
- 몸집에 흠집이 없어야 한다.
- 소리는 튕겨서 맑은 것이 좋다.
- 육질이 단단하고 아삭아삭해야 한다. 참외가 너무 크면 육질이 질길 우려가 있다.
- 무게가 가벼워야 한다. 물에 담갔을 때 끝이 3개 이상 뜨면 잘 익은 참외이다.



참외피를 만지기



[재료] 풋참외 5kg, 양파 1개, 마늘 1통, 생강 30g, 정향 10개, 당근 100g, 통후추 20개, 통계피 약간, 붉은 고추 3개, 물 12컵, 설탕 12Ts, 식초 1컵, 소금 4Ts

- ① 참외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닦는다.
- ② 당근과 양파는 큼직하게 썬다.
- ③ 마늘, 생강은 다듬어 씻어 놓고 생강은 저며 썬다.
- ④ 붉은 고추와 통계피는 깨끗이 씻는다.
- ⑤ 냄비에 물을 붓고 마늘, 생강, 정향, 통후추, 통계피, 붉은 고추, 설탕, 소금을 넣어 한소끔 끓이다가 식초를 넣어 다시 한 번 끓인다.
- ⑥ 병에 참외를 담고 당근과 양파를 사이사이에 넣고 ⑤의 국물을 식히지 않고 뜨거울 때 병에 붓고 밀봉한다. 섞어 주물러서 냄비에 지진다.



주요토종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오는 동안에 서양계 참외인 멜론으로부터 동양계 참외가 분화되어 발달하게 되었다. 그중에서 1960년대 초까지 전국 각 지방에 따라 강서참외, 감참외, 꿀참외, 꿀참외, 백사과, 청사과, 성환참외(개구리참외), 줄참외, 노랑참외, 수통참외, 김치참외 등으로 불리어졌던 토종참외가 있었

는데 F1품종의 진출에 따라 급속히 없어졌다. 그러나 다 행히도 연구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현재 우리나라 연구기관에 감참외, 강서참외, 개구리참외, 개동참외, 간치참외, 노랑참외, 먹참외, 사탕참외, 선과, 쇠뿔참외, 안종참외, 꽃감참외, 열감참외, 이천참외, 장전참외, 조선참외, 청사과참외, 청참외, 홍참외 등 20여 토종참외 품종들이 보존되어있다. 성환을 매주리에서 재배하던 개구리참외는 일제 때에 일본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았다. 일본은 고온다습한 조건으로 단맛이 적어 성환에서 재배한 개구리참외를 검사하여 등급을 매기고 매상하여 일등품만을 일본에 있는 황실에 진상하고 고관들에게 바쳤다. 겉질이 청개구리색을 띠고 울퉁불퉁하며 속이 불그스레한 감색같이 나며 육질이 연하고 아삭아삭하면서 향긋한 개구리참외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으로서 다른 참외에서는 맛볼 수 없다. 저장성이 좋지 않아 상정한 채로 진상하기 위해 일본사람들은 참외를 사러 가는 날에는 배에 이미 실어 놓은 다른 짐들은 풀어 놓고서라도 우선 개구리참외부터 실었다고 한다. 하지만 1945년 광복이 되자 다른 참외보다 몇 배나 비쌌던 개구리참외는 그 수요가 줄어들어 재배면적도 급격하게 줄었다. 개구리참외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조선농화보(1932)>의 기록을 볼 때 1850년경에 한국으로 이주해온 중국사람이 가지고 온 것으로 추측된다. 1927년경에 성환 지방의 개구리참외 재배면적이 최대로 증가하여 당시 화차 33칸 분 660토니 서울(당시 경성)로 출하되었으며, 1928년경에는 그 두 배 가량이 되었으나 개량참외가 등장하면서 점차 감소되었다.

10. 조선참외: 과피가 진한 녹색이며 편으로 얇은 껍이 있다.
11. 청참외: 과피가 진한 녹색으로 흰색의 껍이 있다.
12. 강서참외: 과실의 모양이 타원형으로 과피와 과육색은 연한 녹색이다.
13. 여러 가지 야생참외
14. 개구리 참외를 팔고있는 성환읍 매주리에서는 소병렬씨
15. 시판중인 개량참외는 대부분이 은천참외에서 유래한 진한 노랑색 일색으로 당도가 높다.



플라스틱 용기로 만드는 스카이 플랜터 Sky Planter

거꾸로 매달린 화분에서 자라나는 식물이 이채롭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새로움이 탄생한다. 감히 화분을 놓을 수 없는 곳에 식물을 놓을 수 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이색적인 아이템이 된다. 4월엔 누워서 바라보기만 해도 좋을 곳에 스카이 플랜터를 달아보자. 텅 빈 공간에서 나풀거리며 자라고 있을 식물에게 말할 수 있게...



재료



치킨와이어, 탈지면, 마끈,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용기, 아글레오나미사암오로라 수태, 배양토

관리방법

관수는 탈지면이 저수층 역할을 하므로 탈지면이 완전히 마르면 탈지면이 꼭 젖을 정도로 물을 준다. 비료는 고체비료를 탈지면 위에 뿌려 두면 관수를 할 때마다 녹아 영양분을 공급한다. 관수할 때 액체비료를 1000배 희석해 공급해도 된다. 통풍이 잘 되는 밝은 그늘이 좋으며, 추위에 약하고 강한 직사광선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공중 습도가 높은 것을 좋아하므로 분무기를 이용해 공중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좋다.



Sky Planter

Sky Planter DIY



만드는 방법

1. 플라스틱 용기 뚜껑에 식물이 나올 수 있는 크기만큼 구멍을 낸다.
2. 플라스틱 용기 밑바닥에 물을 줄 수 있는 구멍을 낸다.
3. 끈을 묶을 수 있는 구멍을 3개 낸다.
4.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한다.
5. 색칠이 완전히 마르면 3개의 구멍에 끈을 통과시켜 매어 놓는다.
6. 밑바닥에 탈지면을 여러 겹 넣는다.
7. 오로라를 포트에서 분리해 넣는다.
8. 빈 곳이 없게 흙을 메워준다.
9. 흙이 빠져 나오지 않을 정도로 수태를 덮어 준다.
10. 치킨와이어를 뚜껑과 같은 크기로 자르고 가운데 분에 식물이 들어갈 구멍을 낸다.
11. 수태 위에 치킨와이어를 덮어 준다.
12. 뚜껑 구멍으로 식물의 잎을 통과 시키고, 밑의 구멍으로 탈지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눈의 영예 Chionodoxa 치오노독사

글·사진 윤태훈(류제의 정원)

치오노독사는 스노우드롭과 함께 봄꽃 중에서도 가장 일찍 꽃이 피는 식물 중 하나이다. 키가 작아 정원의 앞쪽을 구성하기에 좋은 치오노독사는 아직은 이름이 낯설다. 청색, 분홍, 흰색의 꽃이 피며 청색이 가장 아름다워 인기가 높다. 유럽의 사랑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는 얼마 안된다. 이 사랑스러운 봄의 전령사에 대해 알아보자.

개요

치오노독사는 유럽이 원산지인 백합과의 구근 식물이다. 꽃은 이른 봄에 피며 화색은 청색, 분홍색, 흰색 등이 있고, 우리나라 야생화 복수 초처럼 종종 눈 속에서 꽃이 피기도 하여 서양에서는 Glory of snow(눈의 영예)라고 부른다. 이 꽃의 장점을 들자면 일단 성질이 강해 키우기가 쉽고, 구근이 작아 구근 비대에 신경을 덜 쓰더라도 매년 꽃을 보기 좋으며, 파스텔톤 색조를 가진 별모양의 꽃은 귀여우면서도 우아하다. 아직 이름이 널리 알려진 꽃은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키워보기를 추천한다.

식재 정보 알게 심는다

구근식물은 깊게 심어야 되는 종류가 많지만 치오노독사같이 작은 구근은 구근 높이의 1배, 깊어야 구근 높이의 2배정도의 깊이로 심어야 한다. 구근을 너무 깊게 심으면 싹이 미처 땅위

로 나오지 못하고 땅 속에서 꽃이 피는 경우가 있다. 토양은 배수가 좋지 않은 흙 빼고는 가리지 않으므로 구근만 적절한 깊이로 심으면 잘 심은 것이다. 식재 간격은 구근끼리 5~10cm 정도 간격을 두고 심으면 좋다. 오묘조밀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더욱 간격을 좁게 하여 심어도 된다. 치오노독사는 화분에도 잘 어울리는 식물이며 작은 식물이기에 큰 화분에 10포기 이상 심던 작고 귀여운 화분에 2~3포기 심던 어떻게 심더라도 아름다운 꽃을 즐길 수 있다.

치오노독사는 봄에는 햇빛이 잘 들다가 여름에는 그늘이 드리워지는 장소에 심는 것이 좋다. 정원의 낙엽수 아래가 가장 이상적인 장소이다.

비료, 물주기

물주기에 신경을 써야한다

구근식물은 대부분 건조에 강하지만 치오노독

사는 구근이 아주 작고 알게 심는 구근이라 제때 물을 주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물은 겉흙이 마르면 곧바로 주도록 한다. 잎이 진 후에는 딱히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 비료는 가을에 공급하는 퇴비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욱 풍성히 키우고 싶다면 잎이 나는 이른 봄부터 잎이 지는 초여름까지는 2주에 한 번 물에 녹인 액비를 공급해준다.

번식법 분구 번식을 주로 한다

치오노독사는 씨뿌리기, 분구로 번식이 가능한데 자연스레 늘어난 구근을 나눠심는 분구법으로 번식시키는 게 쉽고 무난하다. 나눠진 자국은 2~3년 후에 꽃이 핀다. 씨앗 번식도 가능하지만 씨앗으로 치오노독사를 키우면 3년 이상 키워야 꽃을 볼 수 있고, 씨앗을 맺는 여미 포기는 내년의 개화가 실통치 않게 되므로 파종에 취미가 있는 독자가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는다.

병충해

특별한 병충해가 없는 강건한 식물이다

치오노독사는 특별한 병충해가 없어 관리가 쉽다. 하지만 배수가 안 좋은 곳에 치오노독사를 심으면 구근이 썩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치오노독사 포함 구근식물들을 심을 때는 배수가 좋은 장소를 골라 심도록 한다.

치오노독사의 구근 관리

여름에는 구근을 건조하게 관리하라

치오노독사는 강건하여 3년 정도는 구근을 캐지 않고 그대로 키울 수 있지만, 한국에선 장마철에 구근이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야외에서 치오노독사를 키울 때는 잎이 지고 나서 구근을 캐어 통풍이 잘 되는 어



둑과 건조한 곳에서 보관한다. 양파망에 넣어 상기 장소에 걸어두면 더욱 좋다. 화분 재배 시에는 비를 맞지 않는 장소에만 둔다면 캐지 않고 3년 정도는 그대로 키워도 된다.

구근을 캐어서 바로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보관법이다. 구근을 냉장고에 넣는 이유는 구근이 일정 저온을 받아야 휴면에 깨기 때문인데, 저온은 겨울에 충분히 받을 수 있기에 냉장고에 구근을 넣어 보관하는 것은 그리 좋은 보관법이 아니다. 구근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할 때는 피치 못하게 겨울 동안 구근을 저온에 노출 시키지 못할 거 같을 때나, 봄이 아닌 계절에 구근식물의 꽃을 보고 싶을 때 하는 것이다.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여름 동안에는 구근을 통풍이 잘 되는 건냉암소에 보관하도록 하자.

치오노독사의 월동 내한성이 강하다

치오노독사는 눈속에서 꽃이 필 수 있을 정도로 내한성이 강한 식물이다. 경기, 강원도 북부 지방이나 산간 지방이 아니라면 월동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화분 재배를 할 때 노지월동을 하게 되면 구근이 얼어 죽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오노독사를 화분에 심었다면 베란다나 0~5도 사이의 장소에서 월동을 시키도록 한다.



구근 윗부분은 땅위로 나오도록 한다



알게 심는다

대부분의 수목원은
시기적으로 볼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기이다.

수목원을 여는 열쇠, 식물표찰



글 사진 권순식 / 제이드가든 수목관리팀

식물의 이름표, 표찰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된다는 말이 있듯, 꽃들도 이름을
불러줘야 온전한 꽃이 되지 않을까요?
그저 꽃을 봤다는 막연함과 달리 표찰을
봤다 함의 의미는 분명 다르리라 봅니다.
학명, 국명, 원산지 등의 정보는 물론
식물원의 관리정보까지 알 수 있다하네요.
작은 이름표 하나가 주는 정보가 많은데,
그 동안 간과(看過)한 건 아닌지요. 올 봄,
식물원에 갈 계획이 있으신 분은 꽃혀있는
식물표찰을 자세히 살펴보길 권합니다.
많이 알면 추억도 길어진다 합니다.

수목원은 '식물들을 모아놓은,
살아있는 박물관'
저는 수목원에서 일하고 있는 가드너
(Gardener)입니다.
수목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분들 중 어떤 분들은 튜립, 수선화 같
이 화려하고 멋진 꽃들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무로 우거진 숲길을 좋
아합니다. 물론, 볼만한 꽃이 없다고 하
거나, 볼 것도 없는데 입장료만 비싸다
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수목원에서 일하는 입장에

답답하거나 섭섭하게 여겼었던 적도 있
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 우리나
라에 수목원(또는 정원)이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지 않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목원은 어떤 곳이나 물으
시겠지요?
수목원은 쉽게 생각해서 '식물들을 모
아 놓은,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종
류별로 다양한 식물들을 수집·전시하
여, 방문객들이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
게 하는 곳이지요. 또, 멸종위기종이나
자원 가치가 높은 식물들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기능도 수행하는 곳이 수목원
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깔고 앉거나, 누
워서 휴식을 취하거나, 화려한 꽃들이 대
량으로 식재되어 있는 '공원'과는 구별되
는 곳입니다.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수목원은 보유하고
있는 식물들의 체계적이고, 명확하며, 지
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보유하고 있는 식물과
그 목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중
요합니다.
식물이 어떠한 목적으로 언제, 어디서 도
입되었으며, 어디에 식재되었는지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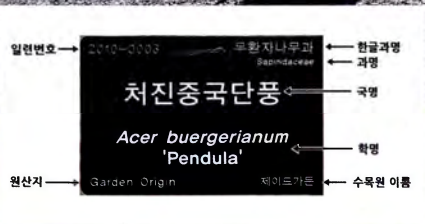
▲ 엑셀로 관리되고 있는 보유식물목록
데이터베이스의 일례

그 식물은 어떤 식물이며, 정확한 이름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등이 도입
될 때부터 고사하여 폐기될 때까지 기록
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그것은 수목원의
역사로서 남게 됩니다.
그런 기록이자 역사인 데이터베이스의 관
리는 수목원에 도입, 식재되어 있는 식물
들마다 식물표찰을 다는 것부터 시작하
게 됩니다.
**수목원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기본이자
시작 - '식물표찰(Plant Label)'**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
름과 소속을 말합니다. 더불어 추가적인
정보가 기록된 명함을 건네거나, 많은 사
람들에게 일일이 소개하기 번거로울 때에
는 명찰을 달아서 자신을 알리곤 합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객들이
수목원을 둘러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
은 식물들을 누군가가 따라다니며 하나
하나 설명할 수 없기에, 식물마다 제 각각
의 명찰이자 명함인 '식물표찰'을 설치해

놓 습니다.
그리고 식물
표찰이 없었다면 그
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식물들이 표찰 하
나로 인하여 방문객들의 시선과 관심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식물표찰을 설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정확하게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목원에서 일하
고 있는 가드너라 할지라도 도입된 모든
식물을 구분하거나, 위치를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식물전문가인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식물표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드너와 방문객, 이 둘에게 식물을 이해



식물표찰은 방문객에게
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시선과 관심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수행한다



하고 관리하기 쉽게 도와주는 식물표찰에는 어떤 정보들이 표기되는지 제가 일하고 있는 제이드가든의 표찰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 ▲ 식물표찰의 구성 정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해주는 게 있다. 비록 겹칩니다. 위 표찰사진은 '처진중국단풍'의 식별표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일련번호입니다. 매년 다양한 곳에서 수많은 식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수목원에서 모든 식물들을 관리하기 쉽도록, 각 식물들은 하나의 번호를 부여 받아 관리되게 됩니다. 위 표찰 사진에 표기된 '2010-0003'이라는 숫자는 2010년 3번째로 기록된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학명입니다. 우리가 소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일본에서는 마쓰라고 합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나라나 민족, 언어가 다르면 부르는 이름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부를 수 있는 기준(이명법)을 세웠고 라틴어로 표기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학명(Scientific Name)입니다.

세 번째는 국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말로 식물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식물분류학회 등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표준이 되는 이름(정명)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명입니다. 식물분류체계에 따른 각 식물의 소속을 표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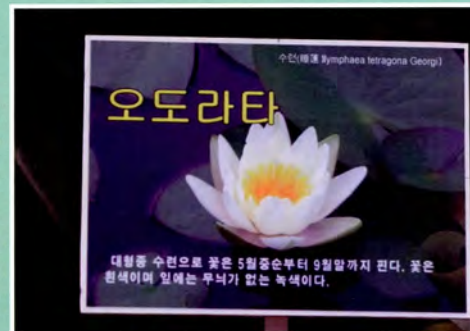
다섯 번째는 원산지입니다. 식물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이 식재되어 있는 '제이드가

든'을 표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표기되지 않은 많은 정보- 도입처, 식재위치, 도입수량, 도입시 크기 등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지만, 간략하게 필요한 정보만을 표기하여 방문객들이 해당 식물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식물표찰은 수목원과 수목원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식물들을 이해하는 열쇠(Key)가 됩니다.

이 글 덕분에 조금이나마 수목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2회차에 걸쳐서 식물표찰의 종류와 제이드가든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표찰 설치 가이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정원이나 텃밭의 가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다음 시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식물표찰의 여러종류 식물표찰은 정원이나 텃밭의 가치를 올릴 수 있고 보논이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다.





향기에 취하고, 화색(花色)에 놀라다
꽃나리(백합, Lily)
Lilium

3월호에 이어 4월호에도 꽃나리를 소개한다. 꽃나리는 널리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키우기도 그리 까다롭지 않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꽃이다. 꽃박람회장이나 놀이농산, 꽃축제장에 가면 화려한 색에 놀라 잠시 넋을 놓고 쳐다보기도 하는 나리꽃이다. 하얀색부터 다홍색까지 아름답고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나리는 대부분 육중한 품종이다. 자세한 내용은 3월호에 나가 4월호에는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꽃나리의 화색을 더 보여주고자 한다. 더불어 꽃나리 키우기 정보도 다시 한번 나간다.

꽃나리 키우기

꽃나리나 정원식물로 매우 좋은 꽃나리는 키우기가 까다롭지 않아 널리 선호하는 종이다. 또한 꽃색이 다양하고 화사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꽃이다.

- 다양한 종 보유 : 봄~가을까지 장기간에 걸쳐 선택 가능
- 단일 대군락 식물들과 혼성식재 가능
- 빠른 증식 : 1회 식재 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식

- 절화로도 좋지만 정원식물로도 매우 좋은 꽃나리는,
1. 종이 다양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는 종의 선택이 가능하다.
 2. 단일 대군락 식물들과의 혼성식재가 매우 유리하다.
 3. 정원용 품종들은 1회 식재 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식된다.
 4. 토양은 물빠짐이 양호하고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에서 재배한다.
 5. 많은 품종은 수림의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양호하므로 주의한다.

우리꽃에서 판매하고 있는 꽃나리는
구근상태로 판매된다.
구입상담문의 · 식재상담문의 T. 031-634-7990



글·사진 차병진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장

바람을 피워야만 살 수 있고, 바람피우는 걸 멈추면 삶이 끝난단다. 균들의 얘기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삶이 이어지는지도 잘 모르지만 살아있기에 무던히도 애쓴다. 사람들에게 편잔을 들어가며 수많은 균들이 수세기동안 살아온 것은 그들의 생존전략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바람둥이란 별명이 붙은 녹병균에 대해 알아보자.

타고난 바람둥이 녹병균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지 만 술 잘 마시고 여자를 많이 밝히는 사람이 호걸로 대우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술 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사고를 쳐도 관대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뿐이 아니었습니다. 본부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밖에 나가 바람을 피우고 첩을 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바람을 피우는 것을 그 남자의 육체적 힘이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부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몰상식한 사내들이 조강지처마저 버리고 바람을 피워도 용서가 되던 몰상식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다행

균의 멸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조를 지키는 순간 그 병원균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런 곰팡이들이 '이종기생균(異種寄生菌, heteroecious fungi)'라고 부릅니다. 이종기생균들은 자신의 생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기생하고 있는 식물 이외에 다른 종류의 특정 식물에서 기생한 다음에 현재의 식물로 돌아와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때, 두 종류의 기주 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중간기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에 이종기생균에 의한 병이 심하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중간기주들을 모조리 없앤다면 다음 해에는 병이 거의 나올 수 없습니다. 즉, 이런 병들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간기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곰팡이들의 포자는 바람에 의해서 매우 멀리까지 날릴 수 있으므로 중간기주를 모조리 제거한다 하더라도 병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발생률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다른 곰팡이들과는 달리 이렇게 까다로운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이종기생균들은 여러 가지 특성들로 미루어 곰팡이들 중에서 가장 진화를 많이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매우 고등한 곰팡이들이라 하겠지요. 이들의 일생은 일반적으로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개 한 종류의 기주에서 세 단계, 그리고 다른 종류의 기주식물에서 나머지 단계를 지냅니다. 특정 생육단계를 마치고 다른 종류의 식물로 옮겨가는 것은 '기주교대'라고 하지요. 교대할 기주들은 대개 가까이 있지만, 때로는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다. 대개 자기 사는 곳에서 바람피우지만, 때로는 타 지역까지 원정 다니는 바람둥이도 있듯이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종기생균은 녹병균입니다. 녹병은 병든 곳이 녹슨 듯이 검붉은 가루들로 뒤덮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사진1), 감염하는 식물의 범위가 매우 넓어 화곡류부터 산림까지, 들풀부터 수목까지 거의 모든 식물들이 감염되며, 잎, 가지(사진2), 열매 등을 감염합니다. 물론 녹병을 일으키는 병균의 종류도 매우 많습니다. 이 모든 녀석들이 다 이종기생균이지요. 맥류의 붉은녹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 그리스 시대에는 이 병 때문에 해마다 정해진 날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녹병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히 나타납니다. 증상에 따라서 붉은별무늬병(적성병), 흑병(사진3) 등 녹병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도시지역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녹병은 꽃사과나무나 모과나무의 붉은별무늬병입니다. 이 병은 향나무와 모과나무를 왔다 갔다 하는 병인데 지역에 따라 시기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3월 하순경부터 비가 내리고 나면 향나무의 잎과 작은 가지 등에 주황색의 한천이나 젤리 같이 생긴 돌기가 부풀어 올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사진4). 크기는 2~3mm부터 2~3cm 까지 다양한데, 여기에서 새로운 생육단계의 포자가 만들어져 꽃사과나무, 명자나무, 배나무, 모과나무 등으로 옮겨 가 병을 일으킵니다. 역시 지역적 차이가 있지만, 모과나무 등에는 봄철(주로 5월 초) 잎의 앞면에 지름 2~5mm 정도의 작은 주황색 둥근 반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사진5), 5월 말이나 6월 중순 경에는 병반의 뒷면에 길이 약 4mm 정도의 갈색 털 또는 수염 같은 돌기들이 여러 개씩 무리지어 생기지요(사진6). 여기에서 만들어진 또 다른 생육단계의 포자들이 다시 향나무를 감염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도 봄비가 내린 뒤에는 향나무에서 젤리 모양의 돌기가 쉽게 눈에 띄고, 초여름부터는 모과나무, 꽃사과나무 등의

잎 뒷면에서 갈색 돌기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향나무와 사과나무 등 장미과식물, 소나무와 참나무, 잣나무와 송이풀, 맥류와 매발톱나무 등이 녹병균의 기주-중간기주 조합들인데, 키위 녹병균과 같이 중간기주가 확인되지 않은 병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바람피우는 상대가 누구인지 뽀송 숨기고 있든지, 아니면 이제는 개과천선하여 바람피우지 않고 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병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간기주를 없애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주와 중간기주의 관계에 있는 사과나무와 향나무를 1km 이내에서 함께 재배하면 안된다는 법적 규제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가 어디 쉽나? 그리고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병원균의 포자가 날아와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중간기주를 없애는 것은 병을 줄이기 위한 방법일 뿐, 병을 없애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을 없애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작물보호제(농약)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물보호제는 봄철에 향나무에서 젤리같은 것이 만들어질 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때, 향나무뿐만 아니라 재배하고 있는 장미과 식물들(사과나무 등)에도 같이 작물보호제를 처리하여야 병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녹병이나 붉은별무늬병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작물보호제로는 누리아를, 페나리올, 헥사코나졸, 트리포린, 플루시라졸**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성분이 포함된 작물보호제를 구입하여 봄비가 내린 직후에 사용설명서 대로 사용하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바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형 도시농업 학교텃밭 가꾸면서 배워요 텃밭에 다 있네!

글·사진 문지혜박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아이들이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게 있다. 바로 게임이다. 집에 오면 책보다는 스마트폰을 켜 게임을 체크하고 출석하고 새로운 게임이 나왔나를 검색한다. 그런 다음 게임을 한판하고 다른 것에 눈을 슬쩍 돌려본다. 하지만 게임으로부터 쉬 빠져나오지 못한다. 늘 생각이 그곳에 있다. 숙제나 학원이나 잠깐의 시간을 내서 정리하고 다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떠날다시피 하며 생활한다. 부모와의 갈등은 당연하다. 스마트폰이 독독함을 자랑하는 게 아

니라 아이를 망치고 있는 것은 자명함이다. 기능을 잘 쓰면 똑똑한 보조기구지만 잘못 쓰면 망가지는 시기가 되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관련 두뇌는 타고난다고 한다. 반대로 생명을 키우고 소중히 알고 가꾼 만큼 거둬들인다는 것에는 둔하다. 아니 정보가 없다. 마트에 가면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안다. 작물을 키우고 가꾸는 과정을 모른다. 자연이 키우고 정성과 관심,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수확할 수 있는 것을 못 느낀다.

채소하나 키우는 것이 뭐 그리 거창하냐고 되물겠지만, 생명을 온전히 키우는 행위는 위대하다고 본다. 사람이 사람다워짐을 배우려면 과정을 거쳐야 하듯, 생명을 다루고 키워보는 과정 속에서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번 호에는 농촌진흥청 문지혜 박사님으로부터 학교텃밭 가꾸기가 왜 소중한지, 왜 아이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지 배워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믿어본다.

School Garden Story



정갈정갈한 흙을 주렁주렁한 모종이 담긴 화분에 흙을 채우기 위해 아이들이 흙의 촉감을 느끼고 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 가정에서 선행 학습과 이력 쌓기 등 과도한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또한, 24시간 가동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TV는 학생들의 올바른 관계 형성과 바람직한 취미 생활을 얻어가고 있다. 협동과 배려보다는 경쟁과 이기주의가 가깝고 학업만이 우선시되다 보니 일상사에서의 과정과 도리는 생략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박근혜 정부의 4대 악 척결에 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교육에 변화가 있어야겠고 그 중심에 농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교과 과정에서 그 비중이 점점 사그라졌던 '농업'이 다시 '학교텃밭'의 형태로 불을 지핀 듯 번지고 있다. 기존의 학교농장의 개념은 주로 농업계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용 실습장 정도의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도시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학교텃밭은 전



학교의 화단을 일부 걷어내고 배추와 고추를 심은 모습



창가에 심어져 있는 강낭콩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다. 줄을 매달아주면 타고 올라가 여름에는 가릴막 역할과 함께 수확의 기쁨도 맛볼 수 있다.

학교텃밭 가꾸기



생명을 소중히 다루는 법을 알게 된다. 할부로 뽑으면 뜯어버려 살살 다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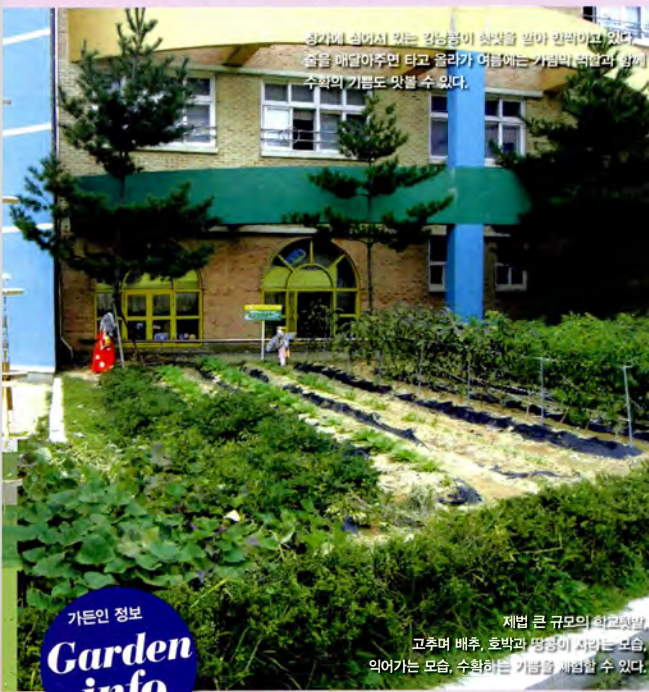
공에 관련 없이 모든 학생의 농업과 자연, 자원에 대한 산교육의 장소로 일반 학교에 보급되고 있다. 이제는 농사경험이 없는 교사의 비율이 훨씬 높고 농업은 초등학교 실과시간에 잠깐 접함에도 이처럼 학교텃밭이 증가하는 이유는 학교텃밭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함께하는 활동이 즐겁고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일상사의 성실함이 있으면 기쁨과 성취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온갖 꽃이 피고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춘천연색 학교텃밭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공간이 된다.

학교텃밭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학교텃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텃밭에 다 있네-학교텃밭(www.rda.go.kr/schoolgarden)'을 클릭해보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학교텃밭에 필요한 기술과 활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텃밭 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농업

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제작돼 초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 대학 동아리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텃밭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과 동국대학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학교텃밭은 학생들의 인지적, 감정적, 신체적 건강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동식물이 자라는 텃밭은 향으로, 색으로, 맛으로, 오감을 자극하여 학생들의 호기심을 일으키고, 관찰력을 향상해 학업에 대한 흥미도와 성취도를 높였다. 또한, 직접 원예작물을 보살피고 키우면서 배려하는 마음이 배양되고,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소중함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정성을 쏟으며 근면성과 책임감이 늘어났다. 어렵게 길러 낸 작물을 함부로 손상하거나 허락 없이 가져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준법정신이 향상되었다. 열심히 땀을 흘린 노력의 결



가든인 정보
Garden info

제법 큰 규모의 학교텃밭. 고추며 배추, 호박과 땅콩이 자라는 모습. 익어가는 모습, 수확하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

학교텃밭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 아이들이 먹는 채소종류가 많아진다.
- 호기심을 자극한다.
- 텃밭관찰과 관심은 수업집중도를 높인다.
- 채소를 가꾸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 아이들의 신체활동이 증가한다.
- 식생활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 향, 색, 맛이 오감을 자극한다.
- 작물을 보호하고 챙기려는 마음에서 배려심을 배운다.
- 경쟁이 아닌 협력의 중요성을 배운다.
- 생명을 직접 가꾸고 키우면서 근면성과 책임감이 생긴다.
- 텃밭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허락없이 가져가면 안된다는 가치관 형성과 준법정신이 향상된다.
- 열심히 땀 흘린 노력의 결과가 수확이라는 성취감으로 거둬들인다.

School Garden Story

과로 얻는 수확의 성취감과 개개인의 능력에 좌우되지 않고 경쟁이 아닌 협력이 중요한 텃밭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이 증가하였다. 교사들은 폭력적인 게임에 많이 노출된 학생들이 식물을 기르는데 정성을 쏟으면서 눈빛이 달라지고 교우관계가 개선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 텃밭 활동을 한 학생 중에 '먹지 않는 채소가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약 24%였는데, 텃밭 활동 후에는 이 중 66%가 '먹지 않는 채소가 없다'라고 응답해 학교텃밭은 식생활 개선에도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 있고 과다한 영양상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말미암은 신체활동 양의 저하와 관련하여 요즈음의 학생들은 비만, 영양 불균형 등과 같은 심각한 식생활습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학교텃밭은 좋은 처방이 될 것이다.

한국의 어린이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23개국 중 가장 낮다는 충격적인 연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경쟁위주 입시교육 탓에 한국 청소년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은 세계 최하위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이제는 학교텃밭을 통하여 학생들이 좀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장할 길 기대해본다.



습위선생의 우리 몸에 좋은 봄나물 봄맛이로구나! 보약이로구나!

고비의 새순과 송달
거미줄 친 모습처럼 송달이 둘러싸여 있다.
대가 푸르면 청굴비, 붉으면 울고비다.



신경통에 좋은 고비

고비과(Osmundaceae)의 여러해살이풀(Osmunda japonica Thunb.)

지방에 따라 개비, 고비나물, 고사리와 비슷한
다고 고베기, 깨알 같은 것이 달린 봄나물(옛말
로 꼬치미)이라고 깨치미, 새순이 가래침(사투
리로 개춤)처럼 생겼다고 개춤 등 여러 이름으
로 불린다. 알갱이 같은 포자주머니가 달린 것
을 개고비, 포자주머니가 없는 것을 참고비라
하기도 한다.

한방에서는 자주썩 풀이라 하여 자기(紫箕)라
한다. 신경통에 쓰기도 하고, 근육을 단단히 해
주는 단백질이 들어 있다. 주로 깊은 산의 반그
늘지고 습기 있는 비탈이나 도랑가에 가끔씩 나
며 무리지어 자란다. 새봄에 지난겨울 말라죽은
묵은대가 서 있는 자리에 가면 새순을 볼 수 있
다. 고사리보다 통통하며 어린 순의 송달이 하
얇다. 길이 60~100cm, 한 뿌리에 여러 줄기가
있다. 둥글고 곧다. 어릴 때는 돌돌 말리고 볶으
며 거미줄 같은 흰 송달이 자라면 긴 잎자루에
2번 갈라진 깃털 모양을 한다.

꽃과 열매 없이 뿌리와 포자로 번식한다. 포자
주머니가 달리는 잎이 따로 있으며 포자가 날려
가 떨어진 곳에 새순이 돋는다.

고사리의 사촌쯤 되는 나물이다. 손질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송달을 깨끗이 떼어낸 뒤 소
금물에 폭 삶아 하루 정도 물을 계속 갈아주면
서 담가두어 떼은맛을 우려낸다.

요리로 만나는 고비

[데친회, 무침] 3~8월에 갓 올라온 연하고 통
통한 새순을 삶아서 하룻밤 물에 담가 떼은맛
을 우려낸 뒤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는다. 고추
장, 간장, 다진 마늘, 들기름을 넣고 무쳐서 먹
기도 한다. 고사리보다 쫄깃하고 부드러우며 향
이 그윽하여 입안에 착착 감긴다. 간장, 고추장,
된장에 다 잘 어울리는 맛이다.

[볶음, 비빔밥] 삶은 새순을 꼭 짰 뒤 간장이나
고추장, 다진 마늘로 밑간을 하여 들기름을 두
른 팬에서 볶다가 물을 자작하게 부어 약한 불
로 끓이다가 물이 자박자박해지면 다시 뒤적이
듯 볶아낸다. 볶은 것을 다른 나물과 함께 밥에
올려 비빔밥을 해먹기도 한다.

[묵나물] 삶은 새순을 한나절 말린 뒤 손으로
씩씩 비벼 숨을 죽인 뒤 다시 말려둔다. 먹을 때

는 쌀뜨물에 불려서 물에 폭 삶아 부드러워지
면 건져낸 뒤 다시 하룻밤 물을 계속 갈아주면
서 담가두었다가 간장으로 밑간을 하여 들기름
을 두른 팬에서 볶다가 물을 자작하게 부어 한
소금 끓여낸다.

[된장찌개] 다시마 국물에 된장을 풀어 넣고 삶
은 새순, 다진 마늘, 다진 파를 넣고 자작하게
끓여서 먹는다.

[죽] 삶은 새순을 들기름에 볶다가 불린 쌀을 넣
고 다시마 국물을 넉넉히 부어 약한 불에서 가
끔씩 저으면서 끓이다가 마지막에 된장을 넣고
한소금 더 끓여낸다.

[튀김] 삶은 새순에 밀가루옷을 입혀 튀긴 뒤 초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다.



▲ 고비 새순 삶은것 고추장볶음, 삶아서 우려내야 함



(좌) 공취 여름군락,
(우) 공취 잎 채취하여 씻은것.
쌈으로 먹는 것이 가장 맛있고 향긋하다.



간에 좋은 나물의 황제 공취

국화과(Compositae)의 여러해살이풀(Ligularia fischeri (Ledeb.) Turcz.)

지방에 따라 공이 먹는 달래라고 공달래, 잎
이 크다고 왕공취, 둥근 말굽을 닮았다고 말
공취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한방에서는
뿌리가 갈대처럼 굵고 칠(七)처럼 생겼다고
해서 호로칠(胡蘆七)이라 한다. 혈액순환 장
애, 간질환에 쓴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
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다. 주로 깊
은 산의 큰 나무가 등성등성 있는 반그늘지
고 촉촉한 땅에 드물게 난다. 뿌리는 굵고
튼실한 수염처럼 무성하다. 갈색을 띤다. 키
는 1~2m로 곧게 자란다. 지름 40cm 내외.
잎자루 길이 60cm 내외. 뿌리에는 큰잎, 줄
기에는 작은잎. 가장자리에 규칙적인 둥근
톱니가 있다. 꽃은 7~9월에 핀다. 어긋나게
갈라진 꽃대(총상) 끝에 노란색 꽃이 핀다.
지름 4~5cm다. 1송이처럼 보이는 꽃 속에
꽃잎 모양의 허꽃들(길이 2.5cm, 5~9개)과
꽃술 모양의 대롱꽃들(노란색)이 들어 있다.
9~10월엔 꽃싸개 속에 원통형 씨앗들이
묻쳐진 모양이다. 씨앗 길이는 6.5~11mm
다. 씨앗에 갈색 갇털이 붙어 있어 바람에

멀리 날려가며 새봄에 싹을 틔운다.

요리로 만나는 공취

[쌈밥] 3~8월에 새로 올라온 어린잎을 채
취하여 쌈으로 날린장에 찍어먹거나 쌈으로
먹는다. 봄에 큰 산으로 산행을 다니다 보면
은 줄게 공취를 만날 때가 있는데 계곡물에
대충 씻어서 맨밥에 날린장만 얹어 쌈을 싸
먹어도 잘근잘근 씹히는 맛과 입안에서 그윽
하게 퍼지는 깊고 순한 향이 일품이다. 공취
의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쌈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된장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맛이다.

[장아찌] 조금 큰 잎을 물기를 꼭 빼낸 뒤
묵은 된장이나 묵은 간장에 박았다가 이듬
해 봄부터 꺼내 먹는다. 잎이 공작으면서 매
우 부드러워지고 그윽한 향이 감돌아 별미
로 먹을 수 있다. 기호에 따라 간장에 식초,
산야초 효소나 설탕으로 맛을 낸 뒤 한소금
끓여서 완전히 식혀서 장아찌를 담가도 된
다. 맛간장으로 담근 장아찌는 빨리 익는 대
신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공취 꽃피는 모습

가든인 정보

Tip

종종하기 쉬운 동의나물(독초)



옛 보릿고개 시절 아주 어린 것은 삶아서
물에 담가 독을 빼내고 먹었기 때문에 나
물이라 했지만, 조금 큰 것은 그냥 먹으면
복통이나 구토·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하다. 잎 앞면과 줄기가 반질반질하고
잎에 얇은 잔주름이 많으며, 톱니가 둥글
둥글하다.



습지생물의 관리에 좋은 봄나물

수리취 열매



5월경 수리취

피를 맑게 하는 수리취

국화과(Compositae)의 여러해살이풀(Synurus deltooides (Aiton) Nakai)

지방에 따라 질겨서 개나 먹는다고 개취. 먹에 넣는다고 딱취. 수리취 종류 중에 조선에서 난다고 조선수리취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한 방에서는 산에 나는 소맥이라는 뜻의 산우방(山牛蒡)이라 한다. 위장병에 쓴다. 피를 맑게 하는 클로로필과 대장 운동을 돕는 섬유질이 들어 있다. 주로 산과 들판의 그늘진 숲속에 가끔씩 난다. 새봄에 지난겨울 말라죽은 묵은대가 서 있는 자리에 가면 새순을 볼 수 있다. 잎이 꽃삼처럼 생겼고 전체에 잔털이 뽀뽀하다. 키는 40~100cm다. 줄기는 세로로 열은 홈이 나 있고, 뽀뽀한 흰 잔털이 있다. 잎은 길이가 10~20cm다. 뿌리에는 뭉쳐서 나고 줄기에는 1장씩 어긋나게 난다. 잎자루는 날개가 있거나 없고 길이는 10~25cm다. 앞면에 꼬부라진 털, 뒷면에 뽀뽀한 하얀 잔털이 있고, 잎가장자리에 안으로 패인 불규칙한 톨니모양이 있다. 꽃은 9~10월에 핀다. 줄기나 가지 끝에 둥근 술 모양의 고개 속인 자주색 꽃이다. 지름은 5cm로 1송이처럼 보이는 꽃 속에 대롱꽃들(길이 20mm)이 둥글게 뭉쳐 있다.

다. 씨앗 길이는 7mm다. 씨앗에 갈색의 갇혀이 붙어 있어 바람에 멀리 날려가 새봄에 싹을 틔운다.

요리로 만나는 수리취

【떡】 3~6월에 어린잎을 따서 찹쌀과 함께 곱게 빻아 시루에 찌낸 뒤 콩가루를 묻혀 인절미를 만들거나 멥쌀과 함께 찹아 찌서 절편을 해먹는다. 팔소를 넣어 개피떡을 해먹어도 맛있다. 쫄면쫄면하면서도 담백하고 그윽한 향이 입안에 감돌아 오래 두고 먹어도 질리지 않으며 금방 굳거나 잘 상하지 않는다. 잎을 뺀아서 넣는다고 해도 익힌 잎을 쓰면 떡이 질겨지고 향기도 덜하므로 되도록 보드라운 것으로 따서 쓴다. 넉넉한 양을 뜯을 때는 살짝 데쳐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먹을 할 때 넣어둔다.

【효소】 3~8월경 꽃이 활짝 피기 전 잎을 넉넉히 따서 씻은 뒤 물기를 꼭 빼내고 같은 양의 설탕을 켜켜이 뿌려 항아리에 담고 맨 위는 설탕으로 두껍게 덮은 다음 밀봉하여 그늘에서 서너 달 이상 숙성시킨다. 발효는 1년 이상 오래 할수록 좋으며 찌꺼기를 걸러내어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수시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신다.

4월 식물관리요령 텃밭·식물관리법

꽃이 피는 계절 봄. 코끝을 간질이는 바람도 좋고, 품내음 꽃내음이 향기롭다. 물오른 나무도 싱그럽고 여러저기 꽃잔치도 손짓한다. 또 한번의 봄이 시작되는 것이다. 봄 중에서도 4월은 특히 더 바쁘다. 식물이 왕성하게 활동하기도 하지만 농사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원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알아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만,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 분들은 실례로 자칫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식물재배는 시기가 중요하다. 특히 수확하기 위한 노지재배는 더욱 그렇다. 적기에 파종하고 관리하면, 식물이 훨씬 잘 자라고 수확도 풍성하다. 때맞춰 심어야 하는 채소, 집에 있는 화분도 체크해야 한다. 봄맞이 봄단장의 적기인 4월은 안과 밖이 분주하다. 부지런한 관리자가 꽃을 피우고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도시농부의 텃밭관리

도시농부의 이력이 붙은 분보다 처음 시도해 보는 분들을 중저나 모종선택부터 어렵다.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이다. 이럴 땐 자신이 좋아하는 종류를 심어보자. 선부르게 선택하면 못 먹을 수도 있다. 일부 쌈채소는 너무 쓰거나 맛이 별로다.



이달의 채소파종은?

엽채류: 잎을 먹는 채소류다. 상추, 쪽파, 아욱, 열무, 근대, 갯잎, 치커리, 대파, 과채류: 열매를 먹는 채소류다. 씨앗보다는 몇 모종만 심으면 두고두고 따먹을 수 있으므로 모종을 사서 심으면 좋다.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지, 호박, 단호박, 오이, 고추
근채류: 뿌리를 먹는 채소다. 당근, 감자, 순무, 우엉, 붕어, 알타리무

이달의 작물재배 요령은?

1. 텃밭에 거름을 뿌린다. 직접 만들어 발효를 시키거나 시중에서 파는 것을 사용한다.
2. 흙을 갈아엎는다. 작은 텃밭은 삽을 이용해서 땅을 뒤집어준 뒤 괭이로 덩어리 흙을 곱게 부셔준다. 분양받은 텃밭은 여기까지 된 상태로 분양된다.
3. 이랑을 적절하게 만든다. 씨앗을 뿌릴 경우엔 작은 골을 만들어 등성등성 뿌린다. 고추나 가지, 토마토 등은 크고 깊은 이랑을 만들어 비닐을 씌운 후 일정간격으로 모종을 옮겨 심으면 된다.
4. 씨를 뿌렸으면 고온 흙을 살살 뿌려 덮어준다. 보통 중저 직경의 2~3배로 덮는다.
5. 발아조건이 충족되면 1주일 정도에 발아된다. 발아조건은 수분, 온도, 산소다. 특히 파종할 때는 수분이 중요하다. 너무 메마른 땅이라면 물을 뿌린 뒤 어느 정도 흡수 된 뒤 파종하면 좋다. 물을 너무 많이 뿌리면 뭉친 흙이 덩어리져 막막해진다.

4월의 베란다 식물

실내의 식물도 봄이 움을 안다. 휴면기에 들어갔던 식물들이 가지개를 켜다. 안 나올듯한 새순이 나오고 생육이 왕성해진다. 연초록 새순은 마음을 설레게도 하고 식물키우기에 정성을 더 쏟게 만든다. 식물생장에 꼭 필요한 분갈이를 하면 더 잘 자랄 수 있다. 들여놓은 지 몇 년 됐다면 화분이 너무 작거나 식물의 뿌리가 보인다면 분갈이를 해줘야 한다.

분갈이 해주기

식물이 많이 자랐거나 뿌리가 기어 올라오면 좀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줘야 한다. 이번 4월호의 정순진 박사님 기사를 보면 자세하게 분갈이 방법을 볼 수 있다.

집안에 초화류 들여놓기

화사한 봄분위기를 위해서 봄에 꽃이 피는 화분을 들여놓자. 집안 분위기를 달라질 것이다. 작은 구근류도 좋고 서양관이나 철쭉 등의 꽃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초록의 관엽식물이나 다육식물 위주로 키우는 분은 꽃피는 화분 하나라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화분의 배열은 어떻게?

질서없이 어지럽게 놓여있는 화분들을 정리해보자. 작은 화분에 심어져 있는 식물들은 큰 화분 하나에 용기있게 모아심어보자. 좀더 풍성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또 큰 화분은 벽쪽으로 해서 배열하고, 작은 화분을 순차적으로 놓으면 좀더 정돈된 작은 베란다 정원을 만들 수 있다. 베란다정원을 참고하면 예쁜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우리 집 식물이 새집과 살아 있는 흙을 만났어요

봄이 오면 식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꽃피는 화분을 사오거나 집에 있는 식물에 정성을 들이고자 노력한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모른 채 분갈이하는 분도 계시고, 햇볕이 따스하니 물을 너무 정성들여 주기도 한다. 내 맘대로 되는 게 많지 않듯이 식물도 내 맘같이 잘 자라지 않는다. 어떤 식물은 2년이 가도 새로운 싹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머물기도 하고, 어떤 식물은 녹아내리듯이 물러져버리는 것도 있다. 또 꽃대가 많이 올라와야 하는데 한 개 정도 겨우 올라오는 것도 있고, 뿌리가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식물을 알면 관리법도 알게 되고 관리법을 알게 되면 식물이 운기를 내며 잘 자란다. 올봄, '난 식물키우기에 영 소질이 없어', '내가 키우면 왜 죽지?'라며 탄원하는 분들에게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 정순진 박사'께 비법을 배워보자. '아~ 그래서 그렇지'라고 알게 될 것이다.

글: 정순진 박사 /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
T. 031-290-6164 / sunjin75@korea.kr

식물마다 살고 싶은 집이 있어요!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다 보면 식물에 물을 주지 않아 말려 죽이는 경우보다 물을 너무 많이 주어 뿌리가 질식사(숨이 막혀 죽음)한 이후, 잎과 줄기로 물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말라 죽는 경우가 더 많다. 분갈이는 식물의 뿌리를 위한 공간, 뿌리를 지지하는 배양토의 물리적 환경, 노폐물, 균 제거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화분 용기의 디자인, 색상, 재질에 따라 그린 인테리어의 값어치, 관리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다음은 분갈이가 필요한 시기와 분갈이 도구·용기와 분갈이 용도 및 분갈이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분갈이가 필요한 때와 분갈이 시기는?

분갈이는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성장이 왕성하여 1년마다 자기가 사는 집이 비좁아지는 녀석들은 매년 봄에, 2년 정도 되어야 재질이 필요한 녀석들에게는 2년마다, 성장이 아주 느린 식물은 필요한 시기에 해준다. 식물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에 따른 용기의 크기를 기준으로 시점을 결정하면 된다.

분갈이에 가장 좋은 시기는?

식물도 동물처럼 휴식이 필요하며 식물 대부분은 한겨울을 휴식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봄이 오면 다시 새로운 생명 활동을 시작하므로 아직 꽃망울이 맺히기 전에 분갈이가 필요한 식물들은 분갈이한다. 그러나 너무 이른 봄보다는 좀 더 따뜻해졌을 때(4~5월경) 재입의 이사가하고 싶어 하는 녀석들도 많다.

분갈이가 필요한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분갈이가 필요할 때 식물들은 열심히 신호를 보낸다. 뿌리가 배수구멍을 빠져나와 소리를 지르는 광경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또한, 물을 줄 때마다 이미 너무 커 버려 작은 화분이 자꾸 넘어지는 모습에서 우리는 식물의 신호를 읽을 수 있다.



2. 분갈이에 필요한 도구와 용기의 선택

도구

새롭게 옮겨 심을 화분, 모종삽, 막대기, 물 뿌리개, 배양토, 화분망 등

용기

식물에 용기의 선택은 사람에게 살 집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미관상 보기에만 좋은 집이 살기 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용기는 화분 안에 들어갈 흙 온도와 수분의 유지, 조절에도 관여하며 식물을 더욱 아름답게, 편안하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

용기와 식물의 비율

어떤 디자인이든 황금비율(1:1.618 → 약 5:8, 2:3)을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그러나 식물은 드러나는 식물체의 모습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상태도 고려해서 용기를 선택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뿌리가 깊게 뻗어 내리는 식물은 다소 긴 용기를, 뿌리가 얇은 식물은 다소 얇은 용기를 사용해도 괜찮다.

용기(화분)의 선택

화분의 종류는 크기와 형태, 재질에 따라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다. 용기의 종류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용기 :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모든 그릇을 총칭, **화분** : 일반적으로 배수구멍이 있는 용기를 말하지만, 배수구멍이 없는 용기도 이용됨



플라스틱(Plastics)

장점 :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 형태, 색깔을 연출할 수 있고 유리나 점토, 금속에 비해 내구성이 강하다. 유리와 황동세라믹 등 다양한 소재들과 겹쳐 제작할 수 있다

단점 : 가볍기 때문에 안전성이 없다. 통기성이 없어서 식물뿌리가 과습의 상태에서 빨리 회복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토분(Terracotta)

장점 : 테라코타라고도 하며 보존성이 우수하다. 자체의 질감, 색을 살린 제품이 많아 용기들 중 가장 자연스러우며, 따뜻하고 소박한 느낌을 준다.

단점 : 화분을 통해 수분의 증산이 활발하여 건조가 빠르게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다.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장점 : 유리섬유(Fiber glass)를 주 보강제로 하여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unsaturated polyester resin)를 함침(含浸) 가공한 복합 구조제로서 가볍고, 철보다 강한 내식, 내열 및 내 부식성이 우수한 반영구적인 소재로 매우 큰 강도를 가지며 화기 제조업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소재이다. 분수대, 동상, 인조바위, 인조폭포, 조경관개, 배관다용기, 형상조각 등 주로 조각품에 이용되고 있다.

단점 : 우수한 내구성과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지만 자연소재 만큼 환경친화적이지는 않다.



유리(Glass)

장점 : 투명하고 내구성이 강하고 광선을 굴절시켜 식물성장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재료의 특성, 기능적인 형태미로 공예적 가치를 높이며, 비교적 값이 싸고, 형태, 크기, 스타일의 변화를 줄 수 있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단점 : 운반 시 쉽게 깨지며 수경용 용기로 사용 시 물때 자국이 남는다.



세라믹(Ceramics)

원토(점토)를 풍화(외지에 2~3개월 방치), 분취(암석질 원료를 점토와 분리시키는 작업), 침전(유기질이나 불순물을 제거하여 점토를 정제하는 작업)의 과정을 거쳐 만든다. 점토에 배합제를 혼합시켜 재질을 균질화한 것으로 molding(성형), 건조, 유약처리, 장식기법에 따라 굵기 전후에 바르는 유약은, 표면마감과 질감을 다양하게 만든다.

장점 : 색상과 형태가 고급스럽다.

단점 : 가격이 비싸다.

3. 분갈이 용토의 특성과 적절한 배양조건

어떤 흙을 사용해야 하는가?

식물을 잘 키우는 요령은 그 식물의 원산지를 아는 것
이라는 말도 있다. 식물의 원래 고향이 열대인지, 고산
지대인지 온대인지, 한대인지 등을 알고 나면 그 식물이
가장 잘 적응한 환경을 배양토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열대우림지역이 원산지인 대부분의 실
내 관엽식물들은 다소 습한 환경을 좋아하며 햇빛이 부
족해도 견디는 힘이 강하다. 이때는 용토로 습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피트모스 등을 많이 섞어 쓰면 좋다. 또
한, 사막이 고향인 대부분의 선인장과 다육식물 등은
배수가 잘되어 뿌리가 썩지 않게 하려면 모래나 펄라이
트 등의 혼합 비율을 높여 뿌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
든다. 그 외 온대식물들은 배수와 습도유지가 동시에 유
지될 수 있도록 같은 양의 비율로 배양토를 만들면 된다.



혼합 인공 배양 상토



피트모스(인공배양토)



펄라이트(인공배양토)



난 재배용 경석(대립형)



마사토



하이드로볼

산이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흙도 가능한가?

아니면, 꼭 구매한 토양만 써야 하는가?

일반 가정에서 용토(흙)를 이용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해 보면, 실제로 인
공배양토를 구입하여 분갈이하는 가정이 별로 없었다. 원예에 관심이 많
아 직접 분갈이를 하는 주부들의 경우, 주로 화분의 흙, 산 흙, 밭 흙을 이
용하여 분갈이하였다. 이러한 자연의 흙들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사
용할 수 있고 더러는 거름기가 풍부한 흙을 구할 수도 있지만, 무게가 인
공배양토보다 많이 나가 큰 화분은 옮길 수 없을 정도의 하중이 발생하
는 결점이 있다. 화원에서 판매하는 흙은 피트모스,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부엽, 밭 흙 등이 골고루 섞여져 판매되며 가볍고 다양한 성분이 혼합되어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분갈이 시 흙의 양은?

화분높이의 80~90% 정도 흙을 채우면 좋다. 10~20%의 관수 공
간을 두어야 한다. 흙이 너무 많으면 물주기(관수)할 때 흙이 흘러 넘
쳐서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들며, 너무 적은 흙은 뿌리가 충분히 지지
할 수 있는 토대를 줄이므로 식물에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Garden Ti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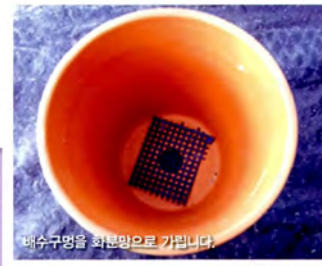
바람직한 화분



화분의 해부도 디자인시 필요한 4가지 특징



배수층 만들기



4. 분갈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화분망

화분 아래쪽의 배수구멍의 크기에 맞게 플라스틱 그물망(화원에서 판매,
아주 저렴한)을 자르거나, 양파 주머니 혹은 망사 천 등을 이용해서 배수
구멍으로 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다.

배수층

화분의 아래쪽에 물이 고여 있으면 뿌리가 썩기 쉬우므로 아래쪽에는 배
수가 잘되는 다소 입자가 굵은 돌을 깔아 준다. 화분이 크면 자갈의 굵기
가 더 굵어지며 작은 화분은 그에 알맞은 작은 돌로 배수층을 만든다. 배
수층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보다는 물을 싫어하는 식물은 물이 쉽게 빠
져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비율을 둔다. 그러나 피트모스, 펄라이트 등이
혼합된 혼합배양토를 이용하는 경우, 굳이 배수층을 두지 않아도 된다.

용기의 높이가 높은 경우

식물과 잘 어울릴 것 같아 골라온 용기가 너무 높아 그 속을 흙으로 다
채우면 무겁기도 하고 흙도 많이 들어 불편하다. 이럴 경우엔 아래쪽의
일정 부분을 가벼운 스티로폼 같은 물건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그러나 뿌
리가 내리는 부위를 고려해서 뿌리에 직접 스티로폼이 닿지는 않도록 하
는 것이 식물을 행복하게 키우는 비결이다.

뿌리의 흙을 떨어내는 방법 분갈이하기 전 용기를 충분히 마시지한다.



한 손으로 식물을 받친 후 화분을 제거한다.

흙 케이크의 윗부분의 흙을 떨어낸다.

흙 케이크의 아래 중심에 손가락을 넣어 송송송~ 흙을 떨어낸다.

흙을 잘 떨어낸 후 뿌리의 모양을 정리하여 보면, 사방으로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흙으로 뿌리를 고정하는 방법



용기의 높이와 뿌리 길이를 고려하여 이랫부분에 흙을 넣는다.

흙을 떨어낸 뿌리의 모양을 자연스런 상태로 정리 한 후, 지제부와 관수공간 높이를 맞춘다.

왼손으로 지제부 높이를 고정 한 후, 오른손으로 흙을 들어 용기에 담는다.



흙을 어느 정도 뿌리 사이로 채운 후, 오른쪽 손가락을 갈퀴 모양으로 하여 뿌리의 중심을 향해 짚러준다.

흙을 채운 후, 바닥에 툇툇 친다.

물을 충분히 공급한 후, 표면장식을 한다.

흙을 채우는 높이

화분 용기 높이를 기준으로 10~20% 정도 여유 공간(관수 공간, 테두리경계)을 두어 물을 줄 때 흙이 바깥으로 튀지 않게 하고, 물이 천천히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세요.



너무 높아요



적당해요

토양표면처리방법(농촌진흥청 도시

농업연구팀 연구결과와 자료 인용)

화원에서 심겨 판매되는 화분들을 보면 화분의 위쪽이 여러 가지 재료들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옥돌이나, 색돌, 바크(나무껍질), 자연이끼, 인조이끼, 지피식물, 장식인형 등 물론 놓이는 장소나 구매자가 원하는 디자인이 판매되겠지만, 연구소의 실험결과로, 실내의 포름알데히드 제거를 위해서는 모래 중에서는 가는 모래보다 굵은 모래가 우수하였고, 식물체 중에서는 살아 있는 식물체에 의한 지피(땅을 덮는) 효과가 우수하였다. 디자인과 기능을 고려할 때 너무 원색적인 장식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줄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식물과 화분의 어울림을 볼 수 있는 토양처리 표면방법
가는모래 < 굵은 모래 < 마른이끼 < 셀라지넬라(살아 있음)

5. 분갈이 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분갈이한 후 영양제를 공급해야 하나? 아니면 수분공급만으로 되나?

가끔 행안바스켓 등의 작품을 만들 때는 배양토 위에 어느 정도의 비료를 뿌린 후 다시 흙을 덮고 식물을 심지만, 가정에서 분갈이하는 대부분은, 화분의 크기를 키우기보다는 식물체의 뿌리를 더 작게 정리해서 그 화분에 다시 심는 경우도 많다. 이때 식물의 뿌리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회복기를 거쳐야 하므로 바로 비료를 주는 것보다는 뿌리가 잘 정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서히 비료를 주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화분에 물을 줄 때의 양과 빈도는?

분갈이 후에는 물을 충분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주는 빈도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놓이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심하게 관찰하여 물을 말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분갈이 직후에 베란다의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아두면 식물이 뿌리를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광합성을 부지런히 하여야 하므로 식물체에 무리가 온다. 그러므로 어떠한

식물이든지 분갈이 후에는 1주일 정도 반그늘에서 식물이 휴식하도록 한 후에 빛이 드는 곳으로 서서히 이동하여 식물이 환경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한다.

효율적인 물 관리방법 없을까요?

너무 많은 물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은 관계가 없으나 규칙적인 관수를 원하는 식물의 경우, 특히 습도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식물은 화분 받침에 굵은 자갈을 깔고 그 속에 물을 부어 언제든 습기가 화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화분 주위를 이끼 등으로 감싸서 축축하게 해주면 습도를 요하는 식물들이 행복해한다. 물주기는 보통 화분의 가장자리로 조심스럽게 물을 충분히 주어 화분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물주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저면관수가 효과적이다. 저면관수란 화분의 아래쪽에서 용도의 모세관현상을 이용하여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또한, 식물체가 너무 건조한 경우에는 바스켓에 물을 화분 높이만큼 채우고 화분을 통째로 담가 저면관수하는 방법도 있다.

◀저면관수법으로 물주기

우리꽃농장엔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다.
꽃들만 화사한 게 아니다. 초록의 채소들도
갓가지 색을 자랑하며 저마다의 자세로 자라난다.
긴긴 겨울을 지나 막 봄이 피어나는 4월, 쌀쌀한
기운을 물리친 노지에 다양한 초록을 뽐낼 채소를
만나보자.

초록이 다 초록이 아니더라

꽃이 예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꽃을 보면 외마디 감탄을 하
거나 예쁘다는 소리를 연거푸 뱉으면서 사진찍기에 열을 올린
다. 하지만 이봄, 초록이 예쁘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 것이다. 연
초록 새순이 올라오는데도 감탄하고, 반짝반짝 물기를 머금은 초
록이 주는 싱그러움에 목은 체증이 풀리는 듯 시원하기도 하다.
초록이 동색이라 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이색이거늘, 어찌
초록의 다양함에 무심하나는 듯 갓가지 색을 뿜어낸다.

질은 보라에서 연두까지

한곳에 모여져 있는 갓가지 채소들의 색을 보라. 생김새가 다
르듯 색도 다 다르다. 무심코 넘겼다면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일
이다. 색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꽃색을 표현하긴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초록은 진초록, 초록, 연두 정도 될까?
하지만 몇 가지가 아님은 사진을 봐도 쉬 알 것이다. 어찌 초
록을 초록으로만 표현할 수 있었는가. 채소가 다양한 만큼이나
색도 다르다.



채소의 다양한 색



상추의 색



올겨울을 강낭콩의 초록색



프라스틱화분하이에 다양한 채소가 다양한 색으로 심어져 있다.

색만 다르랴, 맛도 다르다.

상추, 배추, 갓잎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다양한
쌈채소가 주는 맛을 알까? 쓴맛의 정도가 다르
고, 채소의 식감, 맛이 다르다. 어떤 잎은 쓰고,
어떤 잎은 달다. 또 어떤 잎은 씹히는 식감이 있
고, 어떤 잎은 부드러운 느낌이 넘어간다. 또 어
떤 잎은 향기 남다르고, 그 반대인 채소도 있다.

작은 화분, 상자에서 자라는 채소들

집안에서 얼마든지 채소를 키울 수 있다. 작
은 화분이나 재활용통, 저렴한 상자텃밭 하나
마련해보자. 두고두고 길러먹는 즐거움이 있다.
몇 천 원하는 종자 한봉지로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만날 수 있다. 한번 심으면 두고두
고 따먹을 수 있기에 가능하다. 두세 번만 심으
면 될 일이다. 화분에서 자라는 채소는 관엽식
물이나 초화류를 키우는 재미를 능가하는 먹
는 재미가 있다.

요리가 즐거워

여러 가지 쌈채소는 쌈으로 먹기에는 너무 양
이 많아 부침개를 해봤다. 부침개를 하면 쓴맛
도 덜하고 채소도 양껏 섭취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다른 부재료 없이 갓가지 채소를 씻
어 적당한 치란 다음 밀가루를 채소가 엉겨 붙
을 만큼만 넣었다. 약간 쓴맛이 느껴지지만 아
이도 잘 먹을 수 있는 맛이다. 부모님도 맛있
다며 몇 번을 다시해서 드셨다. 약간의 쓴맛은
입맛도 돋워 평소 밥맛없는 분들도 맛있게 드
실 수 있다.

집안에서 키울 수 있는 채소들

상추, 근대, 치커리, 무, 브로콜리, 겨자잎, 당근,
토마토 등은 무난하게 키울 수 있다.
부추, 파, 강낭콩도 가능하다. 단지 과채류들은
많은 열매를 수확하지는 못한다. 그래도 따먹
는 즐거움을 한껏 느껴볼 수 있다.

나도 꽃 씨앗을 만드는 소중한 먹거리

무꽃, 브로콜리꽃, 토마토꽃, 배추꽃을 본 적이
있나? 작고 소박하게 피는 꽃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작은 씨앗 하나가 무가 되고 배추가 되고
소중한 먹거리가 된다. 화려한 색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 꽃이 아니라 채소를 주기 때문이
다. 진한 향기로 유혹하지도 않는다. 때되면 알
아서 벌과 나비가 찾아온다.



초록의 색

우리꽃농장 상자텃밭에서 자라는 다양한 채소 초록이 다 초록이 아니더라

▲ 길어진 꽃가래 양파로가 좋습니다



부침개 재료로 준비한 알록달록
여러가지 채소들.



다양한 채소로 부침개를 해
색이 맛을 부른다.



작은 정원의 식재계획 Planting Plan

계획없이 진행하면 실수가 잦다. 그 실수가 금방 회복될 수 있으면 경험으로 삼으면 된다. 회복이 안되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원은 어떻게? 정원이야말로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한다. 간단하게 밑그림이라도 그려보고 꽃과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지 구상을 해봐야 한다. 한번 심으면 옮겨심기도 힘들고 다시 바꾸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번호 손관화 교수님의 기사엔 '왜 계획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 식재계획을 잘 들여다보고 실천하면 멋진 정원이 만들어질 것이다.

작은 주택 정원을 디자인할 때 식재 계획은 정원의 환경과 정원 소유자의 의도와 같은 실제 상황과 디자이너의 생각이나 영감과 같은 예술적 측면의 두 가지를 잘 조합하여 계획해야 한다.

정원의 환경을 고려한다는 것은 토양, 채광, 온도, 바람 등의 식물생육과 관련된 환경조건을 체크하고, 또 시야를 가려주거나 경계를 해야 할 부분 등과 같은 주변 환경과의 관계나 문제점을 이해하여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원 소유자는 정원에서 나무 그늘이 있는 쉼 수 있는 공간을 원할 수 있고 벤치나 출입문 부근에 향기로운 식물을 심고 싶을 수 있으며 뒤뜰에 키친가든을 만들고 싶을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디자이너가 어떻게 예술적인 영감으로 풀어나가면서 식물을 선정하고 배치하느냐가 식재계획이다.

글·사진 손관화
천안연암대학 화훼디자인계열 교수
(가드닝 전공, 플로리스트의 산정)
<http://sohn.yonam.ac.kr>



영국 코츠월드(Cotswolds) 지역의 작은 시골주택 정원

스케치

건축사무소에서 주택의 평면도를 구해오거나 없으면 정원을 측량하여 평면도를 만든다. 전체 정원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정원에 식물을 식재할 모습을 상상하며 평면도에 식재공간의 크기와 모양을 스케치한다. 침실에서 창문을 통해 정원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려보거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라보는 식재공간을 스케치해보고 또 사진을 찍는다. 디자이너가 식물을 선정할 때는 좋아하는 식물의 목록을 이용하여 식물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모양의 식재공간을 정한 후 이 공간에 필요한 초장이나 형태를 가진 식물을 찾는데 식재계획을 하다보면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게 된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던 선정한 식물은 그 공간의 조건, 특히 토양에 맞는 식물이어야 한다. 식물을 배치할 때는 **엽, 식물과 초장, 질감, 형태를 맞추어**야 한다. 원하는 계절에 돋보여야 한다 **면 개화기가 중요하지만 보통은 잎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식물 선정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나 영감을 위해 가든 센터를 방문하여 식물을 그룹으로 배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능적인 식물

식물을 선정할 때는 전체 형태나 크기는 물론이고 꽃이나 잎을 중심으로 선정하기 쉬우나 이러한 시각적인 효과뿐 아니라 여러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정원에서 식물의 향기는 화려한 꽃색 못지않은 중요한 요소다. 벤치 주변이나 문과 창문 주변의 라일락이나 장미 향기는 사람들에게 정원의 깊은 느낌을 제공한다.

보기 싫은 부분을 가려주는 트렐리스 위를 타고 올라가는 클레마티스와 같은 덩굴식물이나, 키다리 개미취나 마타리, 대형 잎을 가지고 있는 병풍삼과 같은 식물의 형태는 시각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준다. 또한 주목과 같은 식물은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어 바람을 막아 준다.

화려한 초화류 분식물을 가득 배치한 영국 주택의 앞정원



부젠빌레아(Bougenville)의 로보이는 포르투갈 리스본의 연립주택



에메랄드그린 측백나무로 가려준 독일의 주택



네덜란드 아펠도른(Apeldoorn)시의 작은 주택정원



▼ 영국 옥스포드 부근 시골의 가든



이것처럼 벽을 만들고 중앙을 비운 식물의 나열 방법



두 가구가 사는 영국 연립주택의 경계를 나누어주는 식물



프랑스의 온자인(Onzain) 부근의 주택

식재계획 그리기

식재계획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필요한 식물의 수를 계산한다. 평면도에 그려진 식재공간에 개별 식물 또는 식물군의 형태를 상세하게 그린다.

식물을 군식(grouping)한다

초보 디자인은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 작은 공간에 너무 많은 식물을 넣는데 식물이 자랐을 때 폭을 고려해 심어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관목이나 초화류는 모아 심으면 딱 찬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데 특히, 세 포기 이상의 식물을 군식한 다년초는 한 포기씩 여기 저기 식재할 것에 비해 강하고 뚜렷한 느낌을 준다. 다년초를 군식할 때는 삼각형으로 식물을 모으는 것이 보기도 좋고 다른 종류와 연결하기도 쉽다. 때로는 저절로 씨가 떨어져 생긴 자연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식물을 그룹에서 떨어져 배치하기도 한다. 관목은 빠른 효과를 위해 군식할 수도 있고 한그루만 심어 공간을 채울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교목은 성숙한 후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주어 심는다.

아이디어 스케치

작은 정원의 식재계획을 시각화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 중의 하나는 이층의 창가에서 경관을 스케치하는 것이다. 정

확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 상상해서 그려본다. 다음으로 현관문 앞의 바닥높이에서 경관을 체크해 본다. 바라보이는 시야를 트이게 할 지, 시야 둘레에 틀을 짤지, 아니면 막아버릴 지 고려한다. 전체 식물의 배치나 생을 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식물의 형태와 위치를 시각화 하면서 공간을 돌아다니며 생각들을 스케치한다. 또는 정원의 사진을 찍어 사진 위에 트레이싱지를 올려 스케치해 볼 수도 있다.

마지막 식재계획

자기 집 정원을 위한 식재계획이면 아름다운 그림이 필요 없지만 고객을 위한 것이라면 전문가적인 도면이 필요하다. 작은 식재공간은 1:50이나 1:20의 축척이 적절하다. 방안지에 트레이싱지를 올려 정원의 평면도에 식재공간의 면적을 그린다. 교목과 관목의 위치를 잡고 폭을 나타내는 원을 그린다. 덩굴식물을 그린다. 다년초를 그린다. 일년초나 구근류를 그린다. 식재간격은 식물목록에 있는 식물의 폭을 참고로 정한다. 방안지의 1m²를 참고로 식재 수량을 계산한다.

식재계획시 필요한 식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설명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Chris Young, 2009, Encyclopedia of Garden design, DK.



자습 테라다무로 두드러진 분위기를 조성한 영국의 주택정원



독일 바트 워리셔호펜(Bat Worishofen)시의 주택정원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올 무렵에 피는 제비꽃

제비꽃에 이름이 이렇게 많았던가? 그냥 다 제비꽃인줄 알았는데... 봄이 물씬 풍기는 4월호에는 제비꽃을 소개한다. 들에 산에 소박하게 피어있는 제비꽃은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봐야 사랑스럽다' 말처럼, 오래 자세히 들여다보길 권한다.

Wildflower

서울제비꽃

글·사진 이명호
http://www.skyspace.pe.kr

장백제비꽃 ▶

를 물었다 제 구멍에다 놓으면 그 곳에서 제비꽃이 피어난다. 제비꽃 씨에는 젤리상태의 지방산 덩어리인 엘라이오솜(elaiosome)이라는 물질이 붙어 있다. 개미는 엘라이오솜이 붙어 있는 씨를 가지고 이동한다. 개미가 필요한 엘라이오솜만 가지고 개미집 안으로 들어가 유충에게 먹이고 씨는 개미집 밖으로 버린다. 이렇게 해서 제비꽃이 개미를 통해 번식하는 것이다. 개미집 사이에 제비꽃이 많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비꽃의 특징별 종류 구분

제비꽃은 종류가 많기로 유명해서 우리나라에 만도 60여 종이나 자라고 있다. 이들을 구별할 때 우선은 원줄기가 있는 종류와 원줄기가 없는 종류로 크게 구별할 수 있고, 다음은 꽃색과 잎의 모양에 따른 특징별로 구별을 하면 된다. 원줄기를 갖는 종류로는 왕제비꽃, 선제비꽃, 줄방제비꽃을 비롯해서 공제비꽃, 섬제비꽃, 누시제비꽃, 장백제비꽃 등이 있다. 나머지는 대

부분 원줄기가 없이 뿌리에서 여러 개의 긴 꽃자루가 올라와서 그 위에 꽃이 하나씩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종류들을 하나하나 꽃의 색깔별로 구분을 하고, 잎의 특징별로 분류를 하면 된다. 예컨대, 꽃이 흰색인 흰제비꽃, 꽃이 노랑색인 노랑제비꽃, 잎이 나올 때 모습이 고깔처럼 생긴 고깔제비꽃, 잎이 단풍잎을 닮은 단풍제비꽃, 잎 표면이 알록달록한 알록제비꽃,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많이 자라는 서울제비꽃,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고 잎이 가장 가늘게 많이 갈라지는 남산제비꽃 등이 있다.

제비꽃의 민간요법

제비꽃의 어린잎은 나물로 먹고, 뿌리나 잎은 약으로 쓴다. 한방에서는 피를 맑게 하고 가래를 삭이는 데 주로 사용하며, 이노제로도 쓴다. 꽃은 향료나 향수의 원료로 쓰기도 한다.

4월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꽃

따스한 바람이 부는 4월이면 길옆이나 풀밭, 양지바른 산자락, 어디에서든 보랏빛의 작은 꽃이 귀엽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돌 틈이나 시멘트 갈라진 틈바구니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꽃이 바로 제비꽃이다. 아지랑이가 가물가물 피어오르는 봄 언덕에 보랏빛 얼굴로 방긋 웃는 제비꽃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그 종류만 해도 우리나라에 무려 60여종이나 자라고 있다. 꽃의 색깔도 다양하지만 보랏빛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흰색, 황색, 홍자색, 자주색, 하늘색, 남색 등으로 아름답게 핀다.

제비꽃의 유래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올 무렵에 꽃이 피고, 꽃의 모양이 하늘을 나는 제비처럼 생겼다고 하여 제비꽃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음력으로 3월 초사흘날인 삼짇날에는,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라 하여 제비집을 손질하고, 꽃잎을 따서 전을

부쳐 먹으며 춤추고 노는 화전놀이의 풍습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 제비꽃을 '오랑캐꽃'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꽃이 필 무렵에 북방의 오랑캐가 쳐 내려와서 모든 것을 약탈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며, 꽃의 모양새가 마치 오랑캐의 머리채와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또 다른 이름인 '병아리꽃'은 따스한 봄날 양지를 찾아 뛰어다니며 어미닭을 쫓아다니는 병아리를 연상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제비꽃의 꽃색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아마도 병아리꽃은 노랑제비꽃을 보고 그렇게 불렀으리라 생각이 된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꽃

제비꽃은 꽃색이 청초하고 은은하면서도 고상하게 느껴진다. 꽃은 비록 작게 피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따스한 봄날 길가에 핀 이 꽃을 따서 반지를 만들어 손가락에 끼고 다니며 '반지꽃'이라 부를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은 꽃이다. 많은 종류를 가진 제비꽃의 특징과 이를 구별은 못해도, 제비꽃이란 이름 하나만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정도다. 남쪽에서 제비가 올 때쯤 꽃이 피고, 모양이 제비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쉽게 기억이 된 꽃이다. 꽃말은 겸양(謙讓)을 뜻하며, 흰제비꽃은 티없는 소박함을 나타내고, 하늘색은 성모마리아의 옷 색깔과 같으므로 성실·정절을 뜻하며, 노란색 제비꽃은 농촌의 행복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미와의 공생

제비꽃이 있는 곳에는 꼭 개미집이 있다. 개미와 제비꽃은 어떤 관계일까? 개미가 제비꽃 씨

◀ 선제비꽃



노랑제비꽃



흰제비꽃



선제비꽃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제외하고 정원 안은 식물과
조형물 등으로 가득하다.

정원디자인, 채움의 미학을 주도하는 서양식 디자인

한옥집, 장독대, 감나무, 동백나무, 봉선화, 진달래... 눈을 감고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면 어떤 것이 생각날까? 한국사람이라면 느끼는 무언가가 있다. 아마 많이 봐왔던 한국 주택 정원의 모습이 제일 먼저 생각날 것이다. 같은 단어들을 외국 사람, 혹은 한국을 모르는 사람에게 들려준다면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전혀 다른 정원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을지 모른다. 영국에서 정원을 공부하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이야기 한다면 외국사람과 다른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여백의 미' 같이 동양의 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 굉장히 많은 예시와 설명이 필요했다. 비움보다는 채움을 즐겼던 외국사람들의

정원의 문, 벽 너머
어떤 정원이 펼쳐질까
하는 궁금증에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Garden Designer

글·사진 서수현

정원을 즐기는 방법 정원여행

나라마다 정원이 다른 이유는 사람들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하는 영국사람들은 와일드한 정원이, 프랑스
사람은 부드러운 정원이 느껴진다 한다. 우리는 어떤 정원을
원할까? 그림 같은 정원이 아니라도 좋다. 식물을 가까이 하다보면
어느새 미니정원이라도 품고 살날이 오지 않을까?



영국의 hever castle, 천일의 앤인 앤볼린이 처녀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장미정원이 너무 아름답다

눈에 동양인이 말하는 여백은 신기하고 새로운 의미였을 것이다.

오래 전부터 중국이나 일본의 문화를 접했던 영국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것은 늘 새로운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과 같이 새로운 문화 및 정서를 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경우엔 직접 생활 속에 들어가 몸으로 부딪혀 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경험으로나마 많이 보고 접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따라서 가든디자이너인 나에게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나는 어김

없이 여행을 추천한다. '보고, 듣고, 즐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정원을 제대로 즐기려면 어떤 정원들이 있는지, 왜 그렇게 만들어 졌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저 자연스럽게만 보이는 정원도 결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것이다. 처음엔 부와 권력, 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였지만 궁극적으로 자연을 동경하는 사람들의 안식처 역할을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 표현의 장소이기도 하다. 여러 정원을 접하고 정원요소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아가다 보면 조금이나마 그곳을 만



정원여행 중 지나치게 된 영국의 어느 가정집의 정원을. 여행에 묘미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다.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갤러리가 따로 없다.

그림을 정원에 담은 모네의 정원

듣고 영유해 나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정원들은 와일드하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준다. 오래된 건축물이나 담벼락 같은 곳에 자라고 있는 넝쿨성 식물들이 그런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물론 고성이나 유명한 정원이 아니어도 된다. 여행을 하다가 들리는 주변 마을들도 좋은 정원여행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인지 나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가꾸놓은 개인 주택의 정원들을 살짝 엿보는 것이 더 흥미롭다. 영국에는 개인 주택 정원을 예쁘게 꾸며 놓고 방문객들에게 개방하는 정원들이 많다. NGS(The National Gardens Scheme)이라고 정원을 공개하고 입장료를 받고 그 수익을 기부하는 자선단체이다. 이곳에 등록되어 있는 정원의 수만 3700개가 넘으며 The Yellow Book이라고 정원의 정보와 위치를 알려주는 책자를 매년 발행하여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연간 75만명이 정원을 방문한다고 하니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 이렇듯 영국은 정원여행을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정원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정원들을 접할 수 있다. 영국과 가까운 프랑스의 지베르니, 바다를 건너왔을 뿐인데 영국과 또 다른 느낌의 정원이 펼쳐진다. 나라마다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원의 스타일도 다르게 나타나지만 나라마다 갖는 사람들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정원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생각된다. 영국을 와일드하다고 표현했다면 프랑스는 부드러움이다. 좋아하는 색감이 달라서일까? 같은 식물을 키우더라도 어떤 색을 가진 식물을 조합해서 식재하는 지에 따라 그 느낌이 확 달라진다. 모네의 수련화 때문에 유명한 지베르니에는 늘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 곳 지베르니는 파리에서 조금 떨어진 조그마한 마을이다. 원래부터 이곳이 유명한 동네는 아

니었지만 '모네의 정원' 하나로 유명한 곳이 되어버렸다.

우리나라는 아직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의 사례처럼 정원문화를 발전시켜 조그마한 정원이라도 구경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정원여행이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목원이나 식물원과 같은 곳이 아니더라도 각각의 도시 혹은 동등마다 만드는 커뮤니티 가든이라든지 일산이나 판교와 같은 주택이 모여있는 단지에 정원만들기 프로젝트와 같은 이벤트를 만들어 볼거리들을 제공한다면 좋지 하는 다양한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모네가 살았던 집과 수채화들감을 꾸려놓은 듯한 화단의 모습
◀ 지베르니의 모네정원. 모네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정원을 만들었다고 한다. 사진도 마치 그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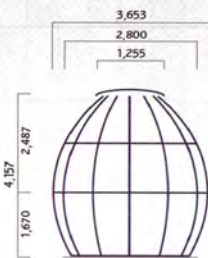


신개념 쉼터 하우스

알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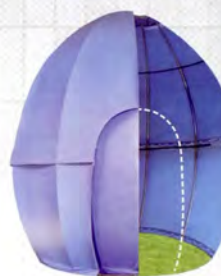


Rest
Refreshness
Recreation



단위 : mm

특대형 측면도



3D 단면도

알 특징

- 계란의 구조에서 오는 안정감, 편안함, 알 안에서 사계절 활동공간 제공
- 이국적이며 색다른 구조물로 지붕덮개, 환풍 및 선풍기 설치 가능
- 다양한 목적의 외부덮개 천, 바닐 사용가능
- 넓은 실내구조로 다목적 활용, 천장개폐가능(바늘 관찰가능)
- 실내 인테리어를 추가하여 나만의 공간을 연출

알 용도

- 바비큐 하우스, 다목적 캠핑하우스, 가족용 쉼터(2층구조 가능)
- 야외 숙소(침상테이블 설치가능), 미니정원, 식물원(제작상당 반영)
- 야외 매장, 요식업소의 야외 테이블, 원두막, 낚시터의 렌트룸
- 기업의 지점 휴먼실, 대화/휴게 공간, 공공 캠핑장의 대여숙소

목적에 맞는 맞춤제작 가능

식생 꽃담

우리꽃이 제안하는 아름다운 과학입니다.
옹벽의 가림면 녹화, 소화단의 기능구현



에코꽃담(에코웬스) 시스템공학이란?

꿈의 생활터리를 하루 아침에 똑딱딱
에코웬스는 어떤 장소나 공간에도 적용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수종과 꽃으로 고품격 녹화시설을 자부합니다.
이제 에코웬스 꽃담이 아름다운 경계의 소통을 시작합니다.
벽화수의 꽃담상당은 물론, 전문적인 시공/설계를 약속합니다.

에코꽃담(에코웬스) 응용 분야

전원주택의 경계구분 및 담장 등으로 대체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연출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아름다운 식생식물로 대체하여 친화적인 환경개선
사무실내 설치 시 공기정화, 습도조절, 실내 인테리어 등 근무환경 개선

구입 및 시공상담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문의전화 : 031-634-7990

www.uriseed.com

창간 1주년 기념

Gardenin

창간 1주년 기념

Garden
in

2013년 5월호를 시작으로 발간된 월간 가든인이 돌아오는 5월호로 창간 1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많은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독자께 더 다가 서는 월간 가든인이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간 1주년 기념 고객혜택

■ 꽃씨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종류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재 계약 정기구독 고객에게
최대 8.3% 추가할인으로
최대 25% 할인혜택부여

■ 가든인 1년 정기구독 시 16.67% OFF

연간 12만원 > 10만원 (2만원 할인)

재 계약 정기구독 고객에게 최대 8.3% 추가할인

연구독료 9만원(3만원 할인)

다년 구독 신청 시 추가할인 혜택 제공

■ 무료 우편배송 / 기업화원 비용처리

■ 가든용품 전문점 [가든조아]에서 우리꽃씨, 우리꽃,

식물구매 시 10%의 추가 할인 혜택 제공



경기도 아진시 모가면 찬상미로 924번길 87

Tel. 031-712-7009

Fax. 031-634-7991

E-mail, bsgim@uriseed.com

월간 가든인 발행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2014년 지역별 4월

벚꽃개화 예정시기 알아보기

글 황주리 기자

4월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나무 심는 4월 5일 식목일 외에도 벚꽃이 피는 벚꽃 축제의 향연이 있는 4월, 가족과 함께 전국 벚꽃 구경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을 추천한다. 아름다운 벚꽃 내용이 만발하고 꽃비가 내리는 벚꽃 길을 거니는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마음속에 봄이 찾아온 것만 같다. 그런 마음의 봄기운을 가득 안고 벚꽃 나들이를 계획해보길 바란다. 여행자들은 너도나도 앞다투어 일본 벚꽃 여행 패키지를 홍보하고 있지만, 뭐니뭐니 해도 몸도 마음도 가까운 국내에서 '일본의 유명한 벚꽃만큼이나 어여쁜 형형색색의 꽃들의 잔치를 만끽해 보자.

벚꽃 외에도 개나리와 진달래 같은 봄꽃의 절정시기는 개화 후 만개까지 일주일 정도다. 가장 개화시기가 이른 제주도 서귀포는 기상청에 따르면 3월 21일 이후, 남부지방은 3월 22일~4월 5일, 중부지방은 4월 1~10일경에 절정을 이룰 전망이라고 한다. 서울에서는 4월 2일~10일 사이 절정에 이른 봄 꽃구경을 할 수 있겠다. 기상청은 2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데다 3월 상~중순의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고 하순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으로 봄꽃 개화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벚꽃 명소 소개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는 벚꽃축제인 한강 여의도봄꽃축제는 2005년도부터 축제를 시작해 올해 10회를 맞는다. 경포 벚꽃잔치는 경포대를 중심으로 경포호수를 둘러싼 4.3km의 웅장한 벚꽃을 구경할 수 있고, 영암 왕인문화축제에서는 전라남도 영암에서 문화축제와 벚꽃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화개장터 벚꽃축제는 청춘남녀가 벚꽃길을 두 손 잡고 걸으면 백년해로 한다고 해서 '혼례길' 이라고도 한다니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특히 추천한다. 이 외에도 전국 벚꽃 축제들을 소개한다.



서울지역

여의도 윤중로 벚꽃 축제, 송파 석촌호수 벚꽃 축제, 종로 삼청공원 벚꽃 길, 독섬 서울숲, 중랑천 벚꽃길, 양재천 벚꽃길

인천지역

강화 북문길, 남구 수봉공원, 연수동 벚꽃로,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중구 월미공원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벚꽃축제, 수원시청 벚꽃길, 남한산성 벚꽃길, 도당산 벚꽃축제, 분당 중앙공원 분당천, 일산 호수공원

강원도

강릉 남산공원, 강릉 경포호수, 경포대 벚꽃 축제, 삼천 맹방리 벚꽃길, 양양 현산공원

충청도

제천 충흥호 벚꽃축제, 당진천 벚꽃길, 서산 삼길포 벚꽃축제, 충주 수안보 벚꽃축제, 예산 벚꽃마라톤, 대구 충남대 벚꽃길, 대구 팔공산 벚꽃축제

전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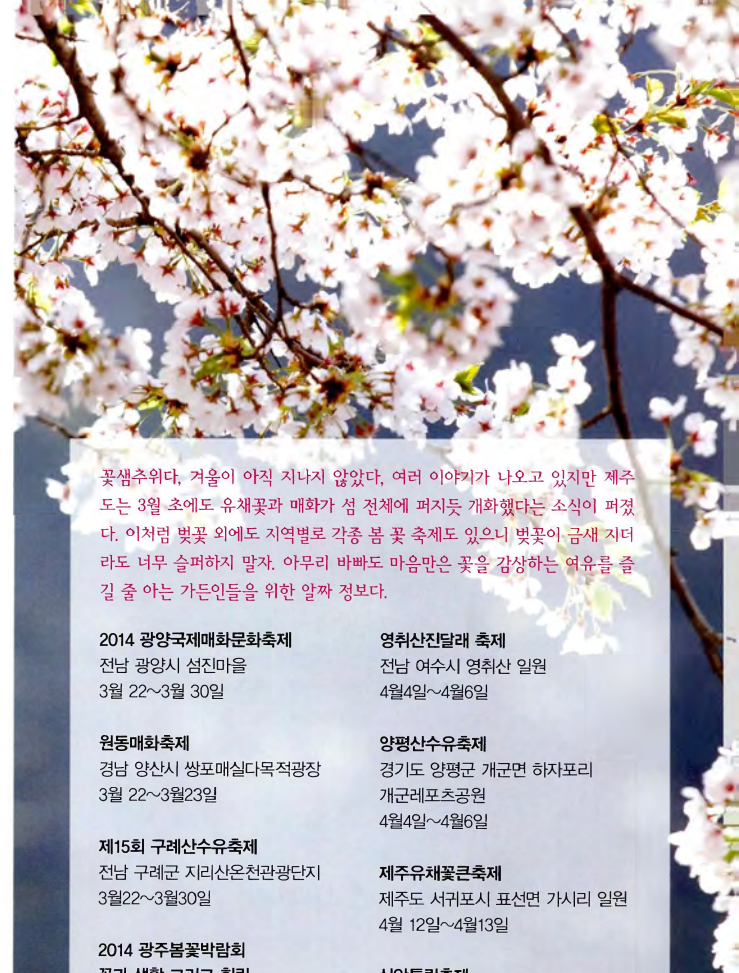
남원 광한루원, 마이산 도립공원, 광주 상록공원, 영암 벚꽃축제, 광주 운전 저수지

경상도

진해 군항제, 부산 범어사 벚꽃길, 부산 남천동 벚꽃축제, 해운대 달맞이 고개, 울산 무거천 벚꽃축제, 대구 이월드 벚꽃축제(이월드 83타워), 경주 벚꽃 마라톤대회(일원), 경남 합천 벚꽃 마라톤 대회(합천군 합천호 일원)

제주

왕벚꽃 축제(제주종합경기장), 제주대 벚꽃길, 한림공원, 서사 벚꽃거리(제주시 천농로 벚꽃놀이)



꽃샘추위다, 겨울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주도는 3월 초에도 유채꽃과 매화가 섬 전체에 퍼지듯 개화했다는 소식이 퍼졌다. 이처럼 벚꽃 외에도 지역별로 각종 봄 꽃 축제도 있으니 벚꽃이 금새 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자. 아무리 바빠도 마음만은 꽃을 감상하는 여유를 즐길 줄 아는 가든인들을 위한 알짜 정보다.

2014 광양국제매화문화축제
전남 광양시 섬진마을
3월 22~3월 30일

영취산진달래 축제
전남 여수시 영취산 일원
4월4일~4월6일

원동매화축제
경남 안산시 쌍포매실다목적광장
3월 22~3월23일

양평산수유축제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개군레포츠공원
4월4일~4월6일

제15회 구례산수유축제
전남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단지
3월22~3월30일

제주유채꽃큰축제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원
4월 12일~4월13일

2014 광주봄꽃박람회 꽃과 생활 그리고 힐링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3월28일~4월6일

신안투립축제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
4월18일~4월27일

화개장터벚꽃축제
경남 하동군 쌍계사 등
3월 29일~3월30일

태안투립축제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마검포해수욕장
4월25일~ 5월25일

2014 서울 공공시설 및 조경박람회

- 기 간 2014년 4월 24일(목) ~ 4월 27일(일)
- 장 소 KINTEX (제1전시장)
- 시 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요일·일요일 동일)
- 주 최 (주)동아전람
- 문 의 (주)동아전람 TEL. (02)780-0366



속이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놀라운 식물의 세계 식물은 똑똑하다

저자 폴커 아르츠트 출판사 들녘



니코틴을 짜내서 애벌레들을 독 살한다. 10분 사이에 흰개미 수 천 마리를 집어삼킨다. 고초균 으로 뿌리를 코팅해 임마름병 박테리아를 격퇴한다. 향기로 수컷들을 유혹해 원격 섹스를 한다.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 하는 일이다. 우리는 식물이 동물에 종속적이며 대자연에 헌신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식물은 똑똑하다>는 우리의 그런 생각을 뒤엎고 '식물은 똑똑한가? 아니면 우리가 식물을 이해할만큼 충분히 똑똑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식물의 생태와 규모에 놀라면서 도 인간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

물 것이다. 하지만 저자 폴커 아르츠트는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식물을 고등생물과 하등생물로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진화 과정에서 식물은 동물을 속이고 방패삼고 집어삼키기도 한다. 식물도 위험을 감지하고 냄새를 맡고 반응상태 경향을 축적하여 후대에 전할 줄 안다. 저자는 이를 밝히기 위해 바다와 늪, 분지와 숲 등 살아있는 자연 속에서 식물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사실로 증명해 냈다. 책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실감나는 묘사화 생생한 화보를 통해 현장감 있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보면 식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똑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일례를 들어 보면 라이머공

이 내는 '위험신호'이다. 딱정벌레가 습격했을 때 네펜테스 비칼카라타가 내뿜는 화학물질은 모두 조심해! 라는 경고가 아니라 "개미야 꿀을 줄게 딱정벌레 좀 아냐!"라는 SOS 신호였다. 저자는 비칼카라타가 꿀을 미끼로 개미를 호위병으로 끌어들여 딱정벌레를 내쫓는 장면을 촬영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가설을 증명했다. 물론 이때 주변에 있는 비칼카라타들도 위험신호에 반응해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개미에게 보내는 SOS신호를 다른 비칼카라타들이 '엿들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총 10개 테마로 구성되어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람꽃 지리산에는 사람꽃이 핀다

저자 김종관 출판사 행복한책읽기



지리산 화개동천에서 7대째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의 아들이며 3대째 녹차농사를 짓고 있는 지리산 농사꾼 김종관의 포토에세이, 고향 하동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농사꾼의 우직한 시선으로 그려냈다. '심은대로 거둔다'는 정직한 진리를 믿는 농사꾼인 저자는 지리산의 풍경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대끼며 느낀 생각들을 솔직하게 담았다. 특히 첫 사업의 실패로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죽을 직전까지 내몰렸던 위

기를 기회로 삼아 재기에 성공하는 이야기가 사뭇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마시는 녹차'에서 '먹는 녹차'로 개념을 전환한 녹차사업으로 새롭게 사업을 일군 저자가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람꽃'이라는 생각이다. 1부 '내고향 화개동천'은 지리산의 사계를 담은 사진이다. 시적인 짧은 글들을 엮었다. 2부 '지리산에는 사람꽃이 핀다'에서는 조금 더 호흡이 긴 단상들을 중심으로 사진들을 조화시켰다. 3부 '가족은 나의 힘'에서는 힘들 때마다 저자의 힘과 희망이 되어준 가족 이야기, 특히

첫사랑이자 영원한 사랑인 아내와의 이야기들을 정감있게 들려준다. 4부 '녹차 하나에 목숨을 걸다'는 사업 실패로 부도가 나고 자살 직전까지 내몰렸던 위기의 상황과 녹차 하나에 목숨을 걸고 결국 녹차사업으로 성공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5부 '논물은 꽃잎 되어 섬진강을 흐른다'에서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솔직하게 들려준다. 6부 '기적은 공짜로 오지 않는다'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단상과 함께 농촌 현실과 여러 현안들에 대한 단상들을 소박하게 담았다.

팍팍한 현실을 위로하는 밥상의 미학 시가 있는 밥상

저자 오인태 출판사 인사이트북스



저자 오인태 시인은 '내가 차린 밥상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상을 복원하고자 하는 의지이자 간절한 염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밥상머리 담론은 당황스런 시대를 우회하는 내 나름의 방편 또는 세상과의 새로운 소통방식이기도 하다"고 밝힌다. 페이스북에서 왕성하게 사회적, 문화적 담론을 펼치던 우리 사회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모색했다. 그는 직접 차린 밥상과 시 그리고 문학,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역사 등을 두루 섭렵하는 인문학 전반을 버무려 세상에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시가 있는 밥상>에는 총 60편의 시와 60편의 에세이 그리

고 그가 직접 장을 보고 준비한 60개의 밥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딱 맞게 정해진 분량이 말해주듯이 시, 에세이, 밥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 따라서 딱히 시집이라거나 산문집이라거나 요리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읽을거리로 탄생한 것이다. <시가 있는 밥상>은 네 개의 열쇳말로 읽힌다. '집'과 '인문정신' 그리고 밥상으로 상징된 '집'과 저녁으로 대변된 '일상'이다. 저자는 오늘을 '실종과 부재의 시대'로 규정하며 우리가 잃고 있는 핵심가치체계를 이 네 개의 열쇳말로 풀어가고 있다. 그래서 시인이 차린 밥상은 "집이라는 공동체의 일상을 복원하고자 하는 의지이자 간절한 염원"이 되

는 것이다. 이 건강한 공동체의 복원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 토대 또는 매개체가 바로 시와 인문정신이다. 음식에 대한 저자의 철학도 확고하다. 첫째 우리 땅에서 난 식재료만 쓴다는 것, 둘째 최대한 열을 덜 가하는 것, 셋째 화합조미료는 전혀 쓰지 않고 천연조미료도 되도록 적게 써서 주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디 맛을 한껏 살린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공동체의 일상을 되찾자는 저자는 오늘도 전국을 돌며 독자들에게 말을 걸고 있다. 밥 한 번 몹시다.

시인·사진작가 신현림이 쓰고 찍은 감성에세이 다시 사랑하고 싶은 날

저자 신현림 출판사 책읽는오두막



시인이자 사진작가 신현림의 신작 에세이. 신현림은 그동안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치를 '사랑'으로 꼽아 강조해왔다. <다시 사랑하고 싶은 날>에서도 이별과 관계, 신앙, 여행 등 여러 주제를 다루며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범위를 한정할 수 없는 폭넓은 사랑에서부터 관계에서 생기는 마음의 틈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사랑을 기다리는 시간 이야기까지 사랑에 관한 다양한 변주를 들려주고 싶은 순간이 있다는 것을 신현림은 시인의 감성으로 이야기할 뿐 아니라 자신에

게도 아픈 시절이 있었음을 기꺼이 털어놓는다. 책을 열면 가장 먼저 만나는 첫 번째 파트의 제목이 '나도 쓰레기였던 적이 있어'이다. 작가는 한 줌의 여유도 갖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달래며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라는 공감과 위로를 잔잔하게 전한다. 그리고 텅 비어버린 듯한 삶을 어떻게 인내할 것인지, 어떻게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준다. 인생에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 저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메시지는 '함께하라'는 것이다. 여행과 신앙, 예술로 사뭇한 숨을 들이쉬고 친구와 가족과 연인을 마음껏 사랑하며 함

께하는 삶의 중요성. 그러면서 도 홀로 겪어야 할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 또한 마냥 괴롭고 떨쳐야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고 강조한다. 젊은 날의 어려움, 사랑에 대한 성찰, 외로움의 은총에서부터 친구와 가족, SNS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랑의 풍경을 총 7개의 파트로 구성했다. 세상살이에 치쳐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가치와 사랑의 중요함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줄만한 작품이다.



Q1. 고구마를 수반 위에 올려놓았더니 싹이 나왔습니다. 잘라서 심어도 되는지요.

A : 되고말고요. 요즘 가정마다 고구마나 양파를 병이나 수반 위에 올려놓고 기르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내 건조 예방에도 좋고 또 산소가 배출되어 공기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어 아이들 교육식 자주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고구마는 종자로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무성 번식을 하는 식물이라서 줄기를 잘라 심으면 품종의 특성이 그대로 전달되어 자라게 됩니다. 도시민들은 옛날 시골에서 쓰던 가마니에 흙을 채운 후 고구마 싹을 심어보세요. 정원 아무 곳에나 잘 자라며 분위기에 어울립니다.

Q2. 텃밭에 쑥갓을 재배하고 싶은 데 어떻게 파종하고 관리해야 하나요?

A :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려고 할 때는 우선 그 작물의 생리적인 특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쑥갓은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채소지만 더위에도 잘 견디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높아지고 햇볕 쏘임이 길어지면 꽃대가 빨리 올라오게 되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토양적응성은 비교적 넓은 편이지만 건조도 양에는 약하므로 유기질이 풍부하고 보수성이 있는 모래흙이나 참흙이 좋습니다. 봄에는 3월부터 파종하게 됩니다. 밭을 갈고 두둑을 만들어 두둑 위에 씨앗을 뿌린 후 손으로 살짝 눌러주거나 발로 밟아 준 후 비닐멀칭을 만들어 주면 약 4주 후면 수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속이 드시다 작물이 크면 본잎 3~4매 남기고 자르면 다시 새순이 돋아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가 다양하여 최근 재배면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웰빙 채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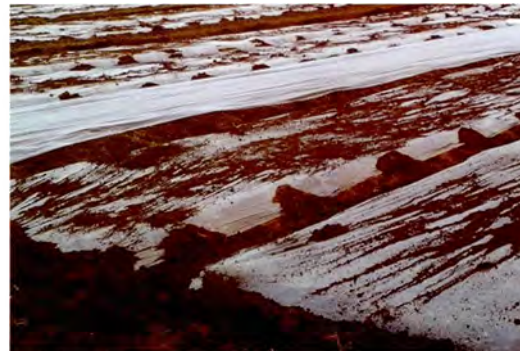
Q3. 도라지를 심으려고 합니다. 언제 심으며 종자는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요.

A : 도라지는 물 빠짐이 좋고 햇볕이 잘 들어 비옥한 곳에서 잘 자라는 뿌리를 이용하는 근근성 식물입니다. 줄기는 곧게 자라며 키는 약 60cm에서 100cm까지 자랍니다. 종자량은 300평당 3~4리터가 소요되며 가을보다는 봄에 파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언 땅이 녹는 즉시 파종하시는 것이 발아율도 높고 관리도 쉽습니다. 종자는 수명이 짧으므로 가급적 묵은 종자는 사용하지 마시고 이량은 90~120cm 정도의 두둑을 만들어 흩어뿌림을 한 후 적당히 눌러주거나 밟아준 후 짐으로 덮어주면 발아가 잘 됩니다. 중부지방에서는 3월초 파종시 5월 상순경이면 싹이 트게 됩니다. 본잎이 3~4매 나왔을 때 적당한 간격으로 솟음 작업을 해주시고 수시로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Q4. 마늘밭에 멀칭비닐은 언제 벗기는 것이 좋은가요. 또 추비를 준다고 하는데, 무슨 비료를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은가요?

A : 요즘 가장 많이 들어오는 농가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 재배하는 마늘은 대부분 한지형 마늘이거나 스페인산 마늘입니다. 한지형 마늘을 일반농가들은 6쪽마늘이라고도 합니다. 마늘의 생육적온은 18~20°C이며, 강한 추위나 더위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는 식물입니다. 한지형 마늘은 10월 중순경에 심어 잎이 2~3월 때 녹색의 잎이 0~5°C의 저온에서 최소한 1개월 이상 자국을 받아야 마늘구가 커질 수 있는 쪽눈이 발육되며, 2~3개월 이상 되어야 완성도가 높아져 마늘이 최대로 커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중부지방에서는 2~3개의 잎이 나올 수 있는 10월 중순경에 마늘을 심습니다. 마늘을 심고 흰 비닐을 파복하는 것은 초기 생육을 좋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일부 농가가 잡초방제를 위해 검은색 비닐을 멀칭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농사방법입니다. 땅이 녹는 즉시 비료를 주는 것은 초기 생육을 좋게 하기 위함이며, 유안비료를 주는 것은 낮은 온도에서 비료의 흡수가 빠르고 마늘 성분의 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마늘을 심을 때 집이나 왕겨, 비닐멀칭을 하게 되는데 집이나 왕겨는 땅의 온도를 늦게까지 떨어뜨리므로 언 땅이 녹는 즉시 거둬내는 것이 좋고, 비닐멀칭 포장은 온도가 높아지는 4월초중순경에 비닐 위에 흙을 2~3cm 정도 올려주어 온도를 낮추어 주면 됩니다. 가뭄이 들면 비료의 흡수력이 나빠지고 생육도 부진하게 되므로 포기과 포기 사이에 집이나 왕겨를 올려주거나 물을 주어 관리하게 됩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과다하게 주게 되면 마늘은 커지지만 수확 후 저장력이 떨어지거나 병발생이 많아지게 됩니다. 마늘밭에 준 석회비료는 가뭄이 심하거나 수분과다 시 가리비료의 흡수를 방해하여 잎 끝이 말라들게 하므로 포장의 수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풍작이 좌우됩니다.



Q5. 2월 초순에 하우스에 고추를 파종했는데 커 갈수록 줄기가 자꾸 잘록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A : 아마도 잘록병(입고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교차의 변화가 심했거나 이상기온으로 인해 재배지가 과습했을 때 주로 생기는 병입니다. 주로 모판에서 발생하는 병으로 잎이 2~3매 정도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균이 땅이 닿는 줄기를 침해하여 양분이동을 막아 낮에는 시들다가 밤이 되면 회복됨을 반복하다가 심하게 되면 포기전체가 쓰러져 말라죽게 됩니다. 병원균은 균사와 균핵의 형태로 병든 포기나 토양 속에서 월동하며, 기온이 낮고 다습한 조건에서 균사가 번지게 됩니다. 모판이 밀폐되어 모가 연약하거나 웃자라게 되면 발생을 조장하게 되며, 상토가 산성토양이면 더욱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예방방법은 잘록병균은 산소가 많은 상태에서는 번식이 어려우므로 배수가 좋은 상토를 사용하고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판은 토양에서 2~3cm정도 올려놓고 재배하시면 아무리 과습한 상태라도 환기만 시켜 주면 입고병이 발생하지 않는 답니다.

유봉수
대전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 소장



2014 초화, 야생화, 채소종자 TOP 11



**꽃이 저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에키나세아**
술방을 이삭이 아름다워 절화로 좋습니다.
다년생으로 매년 만나볼 수 있는 분홍
에키나세아
■ 초장 : 60~70cm, 파종 : 3~4월, 개화
: 6~8월, 5g : 3,000 원



**바람에 날아가는 나비 같은
풍접초**
꽃 피기전 실타래모양으로 꽃술을 꽃잎에
싸고 개화하면서 풀어놓는 모습이 아름답다.
■ 초장 : 60~70cm, 파종 : 3~7월, 개화
: 6~10월, 5g : 1,500 원



**매우 화려하여 축제에 많이 이용되는
앙귀비!**
귀하의 집앞에 축제를 재현해보세요.
추파용 종자로 가을에 씨앗을 뿌려야 다음
해에 크고 건강한 앙귀비꽃이 개화됩니다.
■ 초장 : 70~100cm, 파종 : 10~11월
초, 개화 : 5~6월, 5g : 3,000 원



**빠르게 꽃을 피워내는
코스모스 빅스타게!**
파종 후 60일후에 개화되어 작고 귀여운
코스모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초장 : 60~80cm, 파종 : 3~7월초
개화 : 6~10월, 5g : 3,000 원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 좋은
브로콜리!**
식이섬유 뿐만 아니라 비타민C도 풍부하여
피부관리에 탁월합니다.
실내보다는 실외 재배가 좋습니다.
■ 파종 : 3월 또는 7월, 15~20°C로 관리,
정마철 주의, 10립 : 1,000 원



**눈 건강에 가장 좋은 채소
근대!**
뿐만아니라 골다공증예방 및 항암효과
에 탁월합니다. 초보자가 기르기
쉽습니다.
■ 파종 : 3월, 이식 : 4월, 수확 : 6~11
월, 1g : 2,000 원



**금연 도움을 주는
케일**
니코틴 제거 효과가 뛰어난 금연 계획을
세우신 분에게 매우 좋습니다.
호생성 채소로 추위를 잘 견디 겨울까지
실외 재배가 가능합니다.
■ 20립 : 1,000원



**산후 조리에 좋은
노란 호박!**
이노작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
산후 붓기 빠지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발아율이 매우 좋습니다.
■ 3립 : 3,000원



**노화를 예방해주는 고마운
빨간무(비트)**
파종 후 20일 만에 수확 가능합니다.
실내,외 어디든 잘 자랍니다.
■ 1g : 2,000원



**흠 없이 기르는
새싹채소!**
씨앗을 하루정도 물에 불렸다가
물 적신 솜위에 뿌린 뒤 5~7일이면
바로 수확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 1g : 1,000원



**봄~가을까지 계절따라 다르게 연출되는
26종의 야생화**
26종의 종자가 혼합되어 개화시기에
따라 다양한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년생 종자로 이루어져 매년
관상이 가능합니다.
■ 파종 : 연중가능 | 1kg : 140,000원



“미림가든센터” 카탈로그 발행!

미림가든센터의 2014년 카탈로그가 발행되었습니다.
상품 정보 및 구매주인이 편리하도록 고객분들께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의 센터에 방문하셔서
구경도 하시고 카탈로그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Catalogue Contents Gardening/Horticulture

토양/토양개량제 비료 활력제/생장조절제 포트/컨테이너 관수
살충/살균/방제 제초/방초/피복 기계/기구 측정기구/라벨
지주/네트/울타리 정원등/정원석/연못 도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든조성을 자재로 도와드립니다.

가드닝/원예자재 전문 **미림가든센터**

TEL (02)585-5346 , 503-7080

FAX (02)504-5200

경기도 과천시 물사랑로 257(주암동)

“미림가든센터”



오시는 길

차로 오실 경우.

경부고속도로 양재 IC로 나와서 과천방향으로 700M 지점 좌측에 위치
네비게이션에 “경기도 과천시 물사랑로 257”
또는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47-8” 검색.

지하철 3호선 이용시.

양재역 11번 출구로 나와 일반버스 11-3, 917번 버스탑승.
주암동 하차 후 지하보도를 통해서 건너 오세요.
(신분당선 이용시 9번, 10번 출구 이용)

지하철 4호선 이용시.

선바위역 1번 출구로 나와 일반버스(양재방면)
11-3, 917, 441번 버스탑승. 주암동 하차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이천의 꽃농장에서 배우는 도시원에 가드닝교육

이천그린아카데미에서

마련한 도시원예아카데미는
올해로 5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봄꽃들이 만연한 1만여평의
농장에서 진행되는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은 타 기관
교육들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명품교육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울
경기권 도시원에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은 이천그린아카데미 5
기 도시원예교육의 특징들을
알아보자.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텃밭가꾸기,
야생화정원 꾸미기, 베란다정원
꾸미기, 잔디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져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교육안내자료 요청 및 참여문의
Tel. 031-634-7990

이천그린아카데미 5기 과정의 특징

체계적 프로그램	이천그린아카데미는 3개월간 총 12주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실습환경을 경험하는 현장실습 과정으로 운영된다.
국내 식물학계 대표 교수진 현장강의	강사진 역시 국내 식물학계 대표강사진을 모십니다.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 명예교수인 김영채 교수님과 윤평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님, 도시생물원예의 저자이신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이중석 교수님, 한국토종연구회 회장인신 안완식 농학박사님, 단지조경, 식생녹지 전문분야의 상지대학교 유기준 교수님, 여기에 국내 조경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우리씨드그룹의 박공영 회장님도 대표강사로 참여하신다고 한다.
주말농장 텃밭제공 & 교육과 소통의 장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도시원에 아카데미의 매력에 도시텃밭 제공이라는 매력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의 자랑거리이다. 시종 일반농장의 경우 연10만원 상당의 텃밭 가꾸기를 무료로 제공해 주어 교육기간 이후에도 재배기간 내 텃밭 작물을 무료로 수확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생간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성화로 교육 수료 후에도 즐거운 추억들 속에 정원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한다.
식물을 가꾸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 그리고 다양하게 제공되는 혜택	현장실습과 함께 수확한 재료, 그리고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맛있는 점심식사가 제공되며 교육을 위한 원예도구세트, 조경가이드북을 무료로 제공된다. 그리고 여기에 월간 가든인 1년 구독료 50%할인권도 제공되며(연간구독을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구독자격 제공) 우리꽃 식물요종 10%할인권 제공과 교육 종료시 수료증이 수여된다고 한다.

2014 이천그린아카데미

도시원에 아카데미 5기 교육생모집

교육의 목표

- 일반원에 기초이론과 기술교육으로 건전한 취미 원예생활을 생활원에
로 전환하여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 실내정원, 베란다정원, 채소가꾸기의 기초적 지식과 기술을 함양합니다.
- 정원학습을 통하여 관심있는 원예분야를 현장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개인별로 식물재배 욕도장을 제공하여 개인이 원하는 경험 실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습교육의 특징

- 야생화 정원가꾸기, 베란다정원만들기, 텃밭가꾸기, 잔디정원가꾸기
- 종자의 파종, 육묘, 식물재배, 병충해 방제, 화분의 이식, 전정, 분재
가꾸는 방법소개
- 현장실습 과정의 강화로 직접 경험해 보는 생활원에 중심교육



식생, 녹지조경 실습장면

국화분재재배 교육생모집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국화분재 교육을 다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실전 국화분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일정 : 2014년 5월 ~ 11월(월 2회 교육)
- 교육내용

국화의 재배환경과 품종특성	국화분재의 병해충방제
국화분재 수형별 재배법	화분길이와 잎,꽃숙기
모형 만들기(와 왜화(倭化)재배기술	수료식

- 교육신청 : 하단의 교육신청서 접수(전화, 팩스, 이메일)
- 교육비 : 500,000원
- 교육비 입금계좌 안내 : 농협 1087-01-012794, 예금주 박공영 우리꽃
- 교육문의 : 전화 031-634-7990 팩스 031-634-7991
메일 edu.gardenjoa@gmail.com

개강안내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등록자, 예약자 우선)
- 교육일정 : 2014년 4월 ~ 7월(3개월 과정) /매주 수요일 10:30분~15:30분
- 교육장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우리씨드그룹 교육장
- 주요 커리큘럼 안내

도시정원 조성과 생육관리	화훼원에 실내녹화
옥상녹지 조성법과 정원설계	베란다정원
건강문화 체험견학	견학실습

- 교육신청 : 하단의 교육신청서 접수(전화, 팩스, 이메일)
- 교육비 : 700,000원(가든도구, 교육자료, 중식, 가든인 1년구독료 50% 할인권
제공 및 우리꽃 식물요종 10% 할인권)
- 교육비 입금계좌 안내 : 농협 1087-01-012794, 예금주 박공영 우리꽃
- 교육문의 : 전화 031-634-7990 팩스 031-634-7991
메일 edu.gardenjoa@gmail.com
- 교육 안내자료 요청 시 우편발송
화차별 보여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활기차고 밝기운이 가득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조경 실습장면

국화분재 수형재배 실습장면

아카데미 신청서

구 분 : 도시원에 5기 () 국화분재 ()	연락처 :
성 명 :	이메일 :
주 소 :	
신청목적 : 교육 / 귀농귀촌 () 취미 ()	입금은행명 :
교육장 이동수단 : 자가용 () 대중교통 ()	입금자명 :

가든조아에서 드디어!

일년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새로운 정원을 가꾸어 보세요.

매해 올라오는 꽃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품종들입니다.



가자니아

이국적이고 화려한 가자니아 1,500원

세잎클로버

잔디와는 다른 녹색 식물인 세잎클로버 2,500원

크리산세럼

귀엽고 아기자기한 꽃 크리산세럼 2,500원

페튜니아

친숙하면서도 정원에 풍성함을 주는 페튜니아 1,500원

하늘국화

화사하고 아기자기한 꽃이 피는 하늘국화(보라, 하양) 3,500원

장미허브

퐁퐁한 몸에서 상큼한 향기를 뿜어내는 장미허브 4,000원

여러분의 정원에 색깔과 향기를 다양하게 하고,
 정원 구조와 생육환경도 풍성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GardenJoa
 가든조아

월간 <가든인> 구독이벤트

-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50%할인권 제공
- 숙소에 작은유림 제이드가든의 20%할인권문을 정기구독자에게 제공

문의전화

Tel. 031-645-200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termeden.com



50% 할인권

[기간] 2014. 4. 1 ~ 2014. 4. 30 (~4월 10일까지 내부수리)

Gardenin

정원만 만든다면 그 가든인! 재미있게 읽어볼까요?
 기사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출판된 기사 등 무엇이든 기어 (가
 든인) 편집부로 보내주세요! (가든인)은 여러분의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 이 달에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가든인>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your voice!

Gardenin

정상이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가든인 정기구독 1년 12권

정기구독

16.6% OFF

정상이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무통장입금

예금주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통계 317-0005-7946-71

(입금 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문의 : 031-712-7009

신청하시는분

이름	성별
이메일	직업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 정확한 우편발송을 위해 정확한 주소록 제공이 필요합니다.

구독기간

대금납입방법 무통장입금 (통계) 317-0005-7946-71

정기 구독 신청 및 문의 031-712-7009

예금주 우리꽃영농조합법인

Gardenin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50% 할인권

[기간] 2014. 4. 1 ~ 2014. 4. 30 (~4월 10일까지 내부수리)

이용안내

- 스파 이용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됩니다.(사우나 이용 제외)
-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매 2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본 이용권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이용권은 비매품으로 판매 및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AK레저(주)

Tel. 031-645-2000 www.termeden.com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월간 가든인

Tel. 031-712-7009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Gardenin**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리로 924번길 87가
문의 Tel.031-712-7009

4 6 7 - 8 7 2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Gardenin**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리로 924번길 87가
문의 Tel.031-712-7009

4 6 7 - 8 7 2

편집후기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마음적으로 제일 고생한 4월호다. 못하지 않게 달한 사고로 인해 일의 진행이 늦어졌다. 물론 아파도 진행을 해서 책이 나와야 한다는 일념하에 병원에서 노트북을 잡고 이어나갔다. 맘대로 되지 않았다. 갈수록 통증은 더해만 가고 몸은 하루가 다르게 부어갔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보았다. 도와주려는 분들이 많았으니 일은 더 일했다. 나 아니면 안된다는 마음이었는데, 나 아니어도 되는 일들이었다. 괜한 욕심이였다. 무념 아닌 무념을 들여온 분들과 사고시 도와준 직원에게 감사함을 전하다. 또한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나를 다시 격려했다. 다 내 탓이거늘... 위로도 해준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발행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행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박경영 우리씨드(Uniseed)그룹 대표 / 이학박사
고문 이순영 前 한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이명
감수 김중근 재이드가든 식물담당팀장
전문위원 김광두 前상명대학교 신임대학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중요(주) 대표
김귀순 (주) 그린메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 씨드림대표
우정아 경기조경가든대학 강사/가든디자이너
유봉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장
윤정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겸임교수
윤평성 상곡대학교 명예 교수
이창식 前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중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권 농학박사
책임자 김지태 jsummer@gmail.com
황주리 jurie777@hotmail.com
디자인인쇄 보마드 bomad@naver.com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리로 924번길 87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Gardenin

가든플래너 박공영의

정원 연출 기법과 식물 선택 노하우의 모든 것

우리꽃이 제안하는 조경용 식물 가이드북

한국의 대표적인 정원 테마가 시작됩니다.

계절별 변화하는 살아있는 자연이 다가옵니다.

유럽식 정원, 이제 한국의 집과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발간 10개월 만에 완판, 초판 발행 5쇄의 베스트셀러
- 교과서적 식물도감과는 다른 현장 경험을 통한 살아있는 정보와 올 컬러 사진 제공
- 혼성 혼합식재, ARI Garden, E&P(생태연못), 벽면녹화, 조경용 지피식물의 적용과 관리(A-Z)
- 현장 적용된 정원 연출 사례 제시 및 각 적용 식물의 특성 비교
- 봄부터 겨울까지 연중 꽃이 피는 혼성 혼합 식재의 비법 공개
-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연중 테마 정원 ARI Garden
- 1000여종 식물의 습성과 특성, 식재법을 올 컬러로 제공



가든인 독자 특별 할인가

20,000원 (정가 32,000원)



조선왕조 500년 온천의 명소 이천! 품격이 다른 온천수 – 테르메덴



중부·수도권 제일의 온천으로 테르메덴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작가협회 그리고 관광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이천 '테르메덴'을 중부·수도권의 최고의 온천으로 선정하였다. 테르메덴 온천수는 자극성이 강한 유황천이나 산성천 등과는 달리, 알칼리성 온천으로 여러 가지 효능의 성분이 골고루 혼합된 온천수이다. 수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특히 병후 회복과 건강 증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삶의 무게를 느낀다면 **단언컨데 온천욕은 가장 완벽한 힐링**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시간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제일은행)앞에서
 테르메덴 무료 셔틀버스 이용(약 15분 소요) ⇒ 이천 테르메덴 도착

구분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 테르메덴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출발)	테르메덴 ⇒ 이천터미널 (테르메덴 본관 앞 출발)
매일 (월~일)	08:20 09:20 10:20 11:20 13:00 14:20 15:20	12:40 14:00 15:00 17:30 18:30 19:30

※ 안전 및 도로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이케이레저(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문의 : 031)645-2000